

# I. 서론

## 1. 연구목적

인간에게 일과 직업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일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계 수단일 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도 일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청소년들이 자신과 인생, 교육, 진로, 직업, 성공에 대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는 청소년 자신과 사회에 모두 중요하다. 현재 세계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 사회는 많은 문제들과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세계는 이제 세계화와 국제화 시대로 우리 사회와 청소년들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녀야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청소년들의 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정열과 실험정신과 노력이 이러한 도전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열쇠이다.

현대 경영학의 대부로 알려진 피터 드러커는 “지식이 오늘날 유일하게 의미 있는 자원”이라고 말하였으며, MIT 교수인 레스터 더로는 “지식과 숙련이 새로운 비교우위의 원천”이라고 말하였다(조선일보, 제 24366호). 이는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제화·세계화 시대에서 우리 사회의 생존과 번영은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와 교육과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정열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화·세계화의 시대에 우리 나라 청소년들과 다른 나라 청소년들이 일과 성공에 관하여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 분석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청소년들의 인생관, 미래관, 학교관, 직업관, 성공관은 많은 부분 일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이와 같이 성공 및 일과 관련된 것들에 관하여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

고 있으며,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또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조사의 목적을 항목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청소년들의 인생관, 미래관, 학교관, 직업관, 성공관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국가간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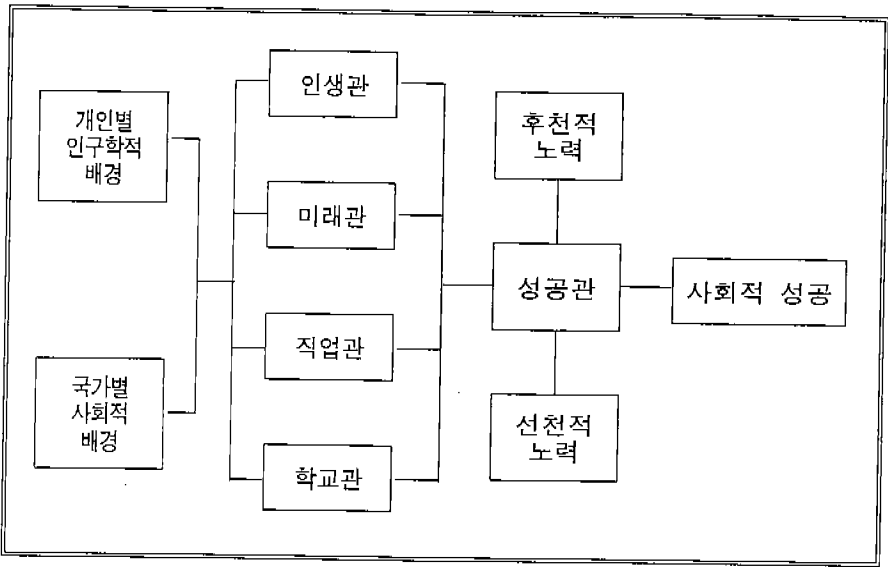
2) 남녀, 교급, 고교 계열, 성적과 같은 변인들이 청소년들의 인생관, 학교관, 직업관, 성공관과 어떻게 관련되었나를 알아본다.

## 2. 연구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청소년의 성공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국가별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아보았으며, 설문 조사를 통해 표집 청소년들의 1) 사회인구학적 특성, 2) 인생관, 3) 미래관, 4) 학교관, 5) 직업관, 6) 성공관을 알아보았다.

인생관에서는 우선 청소년들이 자신의 궁극적 인생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높은 사회적 지위, 부, 원만한 가정, 사회 공헌, 유명인, 취미나 흥미를 즐기는 것, 자립, 그날그날 즐기며 사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공부, 특기, 다른 사람에게 공헌, 과학적 발견, 이성(異性), 예체능에서 명성을 얻는 것 이렇게 15가지 인생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자신의 특성과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미래관에서는 21세기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 그리고 여러 면에서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21세기가 희망찬 사회가 될 것인지, 과학의 진보로 인류가 더 행복해질 것인지, 자유경쟁, 평화, 질서, 범죄, 부패, 신뢰, 난치병의 정복, 입시경쟁, 규제, 여가시간, 빈부차, 전원생활, 남녀평등, 종교에 대해 21세기에는 지금과 비교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그림 I-1> 조사내용 분석도

학교관에서는 4국 청소년들이 학교의 의미와 학교공부가 어떤 면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학교의 의미에서는 학습이나 학교공부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아보았다. 공부, 과외교습, 선호하는 과목, 입시, 동아리활동, 친구, 학교행사, 봉사활동, 특기개발, 반장 되는 것, 자기발견, 훌륭한 교사를 만나는 것, 애인 만나는 것 등이 학습이나 학교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학교공부의 유용성에서는 학교공부가 어떤 면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직장, 입시, 자기 특성, 사회 일원이 되는 것, 성적 나누기, 학습에 대한 흥미, 학습에 대한 이해, 인격형성, 특기 개발, 인간관계에 대한 학교 공부의 유용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직업관에서는 장래의 목표 결정여부, 장래 진로 결정여부, 장래 희망 직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성공관에서는 성공을 위한 노력, 성공의 의미, 성공 요인에 대해 알아

보았다. 성공을 위한 노력에서는 수업이 있는 날의 수면시간, 성공이나 직업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며 살고자 하는 지 등에 관해 알아보았다. 성공의 의미에서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권력, 부, 책임감, 자기 희생, 바쁨, 타인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 등이 사회적 높은 지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성공 요인에서는 어떤 요소가 성공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IQ, 사교술, 친절, 아침, 특기, 정직, 솔선, 유머감각, 친구, 학력, 부모의 높은 사회적 지위, 유력한 연줄, 부, 엄격함, 타인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성공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조사를 통해 4국 청소년들의 인생관, 미래관, 직업관, 학교관, 성공관을 알아보았고, 이를 4국간 비교 분석하였다.

###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엄밀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4개국의 청소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식차이에 관한 국가간의 양적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식을 묻는 설문지 중심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설계되었다.

조사도구인 설문지의 체계를 마련하고, 문항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측정도구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대상 및 설문조사 지역의 선정까지 수주간의 논의 끝에, 측정도구인 설문지가 완성되었고, 표집대상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표집인원은 2,000명 내외로, 조사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설문조사는 의견교환을 통해 작성된 공통의 설문지를 가지고, 한국은 '한국청소년개발원', 중국은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은 '일본청소년연구소',

미국은 ‘케인 파슨스 연구소(Kane, Parsons & Associates)’가 주체가 되어 각국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배포하여 수거된 설문지를 부호화(coding)하여 각국 간에 교환하고, 통계분석은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통계결과의 해석 및 보고서의 집필, 편집은 4개국이 서로 차이를 보일 것이다.

### 1) 조사도구의 구성

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청소년의 성공에 관한 의식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표 I-1> 설문 영역 및 문항수

설문영역	문항수	설문내용(문항수)
사회인구학적 변인	7문항	- 성별(1), 학년(1), 학교(1), 계열(1) - 학교성적(1) - 봉사활동 여부(1), 특별활동 여부(1)
인 생 관	43문항	- 자신의 특징(22) - 인생목표(15) - 생활태도(20)
미 래 관	19문항	- 21세기 사회에 대한 전망(19)
학 교 관	24문항	- 학교생활의 의미(14) - 학업의 유용성(10)
직 업 관	4문항	- 진로계획(1) - 장래목표(1) - 희망직업(2)
성 공 관	32문항	- 성공을 위한 노력(7) - 성공의 의미(8) - 성공요인(17)
기 타 관 련 요 인	10문항	- 대중매체에 관한 의식(5) - 유행에 관한 의식(5)

본 연구의 총 문항수는 133문항으로써 관련 요인들을 포괄하여 조사 영역을 인생관, 미래관, 학교관, 직업관, 성공관, 기타 관련요인의 6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성별, 학년, 학교(공사립 여부), 교급, 학교성적, 봉사활동 여부, 특별활동 여부 등 7문항이다.

인생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자신의 특징을 묻는 16문항, 인생의 목표를 묻는 15문항, 인생에 대한 태도를 묻는 6문항 등 총 37문항이다. 미래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에는 21세기 사회에 대한 전망을 묻는 19문항이 있다.

직업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진로계획을 묻는 1문항, 장래목표의 설정여부를 묻는 1문항, 장래 희망직업을 묻는 2문항 등 총 4문항이다. 학교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학교생활의 의미를 묻는 14문항, 학업의 유용성을 묻는 10문항 등 24문항이다. 성공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성공을 위한 노력여부를 묻는 7문항, 성공의 의미를 묻는 8문항, 성공요인을 묻는 17문항 등 총 32문항이다.

<표 I -2> 세부설문내용

설문영역	설문문항
사 회 인구학적 변 인	성 별 1. 성별 ①남자 ②여자
	학 년 2. 학년 ①중1 ②중2 ③중3 ④고1 ⑤고2 ⑥고3
	학 교 3. 당신의 학교는 사립인가 공립인가 ①사립 ②공립
	계 열 4. 계열 ①일반계 ②일반계의 직업교육과정 ③실업계
	학 교 성 적 5. 학급에서의 당신의 성적 ① 10등 이내 ② 11~20등 ③ 21등 이하
	봉 사 활 동 6. 당신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①하고 있다 ②지금은 하지 않지만 과거에 했었다 ③해본 적이 없다
	특 별 활 동 7. 당신은 특별활동을 즐기고 있습니까? ①매우 즐기고 있다 ②조금 즐기고 있다 ③즐기고 있지 않다

설문영역		설문문항
인생관	자신의 특징	17-1.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좋다
		17-2. 지능지수가 높다
		17-3.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한다
		17-4. 말을 잘 한다
		17-5. 예술적인 특기가 있다
		17-6. 많은 것에 의문과 관심을 가진다
		17-7. 운동신경이 좋다
		17-8.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다
		17-9. 과학적으로 사고한다
		17-10.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의 특기가 있다
		20-6.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은 한다
		20-13.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15.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
		20-17. 나는 자기주장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20-21. 나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진다	
	20-22. 고립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결정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진다	
	인생목표	9-1.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
		9-2. 부자가 되는 것
		9-3. 평범한 사람으로 원만한 가정을 꾸리는 것
		9-4.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것
		9-5. 유명인이 되는 것
		9-6. 자신의 취미나 흥미를 즐기는 것
9-7. 자립하는 사람이 되는 것		
9-8. 그날 그날을 즐기며 사는 것		
9-9.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하는 것		
9-10. 공부란 좀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9-11. 타인이 흉내낼 수 없는 특기를 갖는 것		
9-12. 다른 사람을 위해 공헌하는 것		
9-13. 과학분야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		
9-14. 매력적인 이성을 찾는 것		
9-15. 스포츠나 예술분야에서 명성을 얻는 것		
생활태도		20-7. 수업중에 수다 떠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20-14.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20-16. 자원봉사는 위선적인 행위이다
	20-18. 주변 사람에게 협조하는 것은 처세의 요령이다	
	20-19. 모든 사람과 함께라면 나쁜 일을 해도 책임이 가벼워진다	
	20-20. 다른 사람과 함께 나쁜 일을 했는데 나만 벌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미래관	21세기 사회에 대한 전망	8-1. 인류에게 있어 21세기는 희망찬 사회가 될 것이다
		8-2. 세계는 지금보다 더 평화로울 것이다
		8-3. 국민생활은 지금보다 풍요로와 질 것이다
		8-4.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많아질 것이다
		8-5. 규제없이 자유로운 경쟁으로 인류는 행복해질 것이다
		8-6. 인간과 인간은 훨씬 신뢰있는 관계가 될 것이다
		8-7. 과학의 진보로 인류는 보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설문영역		설문문항
미래관	21세기 사회에 대한 전망	8-8. 압과 같은 난치병이 정복될 것이다
		8-9. 학습경쟁은 지금보다 완화도리 것이다
		8-10. 지금보다 자유롭고 규제가 적은 사회가 될 것이다
		8-11. 노력할 필요가 적게 되어 한가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8-12. 빈부차가 적어질 것이다
		8-13. 도시보다 전원이 살기 편해질 것이다
		8-14. 남녀평등이 더 많이 실현될 것이다
		8-15. 자신의 능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8-16. 부정부패가 적어질 것이다
		8-17. 지금보다 질서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8-18. 범죄나 비행이 지금보다 적어질 것이다		
		8-19. 종교가 지금보다 중시될 것이다
직업관	진로계획	16. 당신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진학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직장을 잡을 계획입니까? ①진학예정 ②취직예정 ③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④기타
	장래목표	11. 당신은 장래 목표를 확실하게 결정하셨습니다? ①확실하게 결정했다 ②막연하지만 결정한 것이 있다 ③결정하지 못했다 ④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희망직업	10-1. 당신의 희망 10-2. 부모님의 희망
학교관	학교생활의 의미	14-1. 공부를 잘 하는 것
		14-2. 과외교습을 받는 것
		14-3.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 전문적인 분야까지 공부하는 것
		14-4. 목표하는 대학의 수험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
		14-5. 동아리활동에 열중하는 것
		14-6. 친구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
		14-7. 학교행사에 열중하는 것
		14-8. 봉사활동에 열중하는 것
		14-9. 특기를 개발하는 것
		14-10. 학습의 반장이 되는 것
		14-11. 친구를 만드는 것
		14-12.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는 것
		14-13. 인생의 선배로써 훌륭한 교사를 만나는 것
		14-14. 애인을 만나는 것
	학업의 유용성	18-1. 장래에 직업을 잡는데 유용하다
		18-2. 입시에만 유용하다
		18-3. 자신의 능력을 살리는 공부이다
		18-4.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 공부이다
		18-5. 성적순으로 나누기에 유용하다
		18-6. 매우 재미있는 공부이다
		18-7. 이해할 수 없는 공부이다
		18-8. 자신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공부이다
		18-9. 특기를 개발하는데 유용하다
		18-10.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데 유용하다



설문영역		설문문항
성공관	성공을 위한 노력	12. 당신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이나 직업을 위해 노력하면서 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이보다는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싶습니까? ①매우 노력하면서 살겠다 ②적절히 노력하면서 살겠다 ③노력보다는 취미를 즐기겠다 ④절대 노력않고 취미만을 즐기겠다
		15. 당신은 수면이 있는 날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잠을 잡니까? ①4시간 이하 ②5시간 ③6시간 ④7시간 ⑤8시간 ⑥9시간 ⑦ 10시간 이상
		20-23. 장래를 생각하기 보다 지금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20-24. 너무 일이나 공부만 하는 것은 때분한 인생이다
		20-25. 장래의 성공은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다
		20-26. 장래의 일은 지금 생각해 봐도 소용없다
		20-27. 나는 미래에 대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다
	성공의 의미	13-1.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13-2. 그렇게 되면 권력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13-3.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13-4. 그렇게 되면 책임이 무거워진다
		13-5.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희생을 해야 한다
		13-6.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시간이 없을 것이다
		13-7. 그렇게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
		13-8. 그렇게 되면 부자가 된다
	성공요인	19-1. 타고난 IQ가 높은 것
		19-2. 사교술이 좋은 것
		19-3.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를 갖는 것
		19-4. 지식을 넓히는 것
		19-5. 상판에게 아첨하는 것
		19-6. 특기를 가지고 있는 것
		19-7. 정직한 것
		19-8. 모든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솔선해서 하는 것
		19-9. 유머감각이 있는 것
		19-10. 친구들을 많이 갖는 것
		19-11. 좋은 학력을 갖고 있는 것
		19-12. 좋은 사람과 우연히 알게될 기회를 갖는 것
19-13. 부모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		
19-14. 유력한 연줄을 갖고 있는 것		
19-15. 부자인 것		
19-16.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것		
19-17.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중요시하는 것		
기타 관련 요인	대중매체에 관한 의식	20-1. TV에 나오는 것은 가공세계의 것으로 현실생활과는 다르다
		20-2. TV에 나오는 모습에서 좋은 것을 나도 해보고 싶다
		20-3. 나는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것이 재미있다
		20-4. 나는 연애를 주제로 한 TV드라마를 좋아한다
		20-5. 청소년의 폭력, 약물, 매춘 등의 행동은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유행에 관한 의식	20-8. 나는 사회에서 비난받을 유행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20-9. 유행이 좋은가 나쁜가 보다 그것에 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0-10. 유행에 따르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0-11. 내 맘에 들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도 나는 하지 않는다
		20-12.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항상 따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기타 관련요인으로는 대중매체에 대한 의식을 묻는 5문항, 유행에 대한 의식을 묻는 5문항 등 총 10문항이 있다. 이에 따른 자세한 영역분류와 세부설문내용은 <표 I-2>와 같다.

## 2) 조사과정

조사대상국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4개국이다.

조사기관은 한국은 '한국청소년개발원', 중국은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은 '일본청소년연구소', 미국은 Kane, Parsons & Associates이다.

조사시기는 한국은 98년 11월에 이루어졌고, 중국과 일본은 98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미국은 99년 10월부터 99년 3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으로 각국 모두 전국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수는 각국 모두 2,000명 내외인데, 구체적으로는 한국 2,022명, 중국 2,018명, 일본 1,996명, 미국 2,020명이고, 표본추출 방법은 변인별 계층화를 통한 임의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경우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연구진이 학교를 방문하여 담당교사에게 설문지를 전달, 담당교사의 참여 하에 학교자체에서 학급단위로 실시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2,040부였는데, 그 중 2,030부가 회수되어 99.5%의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기재된 자료 8부를 제외한 2,022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각국 청소년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crosstabulation)과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분석은 SPSS/WIN(ver 7.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각국의 조사설계는 <표 I-3>과 같다.

&lt;표 I-3&gt; 조사설계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조사기관	한국 청소년개발원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 청소년연구소	케인 파슨스 연구소
조사대상	중고생	중고생	중고생	중고생
표본크기	2,022명	2,018명	1,996명	2,020명
조사기간	98/11	98/10 ~98/12	98/10 ~98/12	98/10 ~99/3

### 3)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 분포는 한국과 중국, 미국의 경우는 남녀 각각 50% 정도씩 비례를 이루고 있으나 일본은 남자 38.1%, 여자 48.5%로 여자가 훨씬 많을 뿐 아니라 무응답율도 매우 높았다.

교급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한국 49.5%·50.5%, 중국 49.5%·50.5%, 일본 48.2%·51.5%, 미국 50.4%·49.6%로 나타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조사도구에서는 학년을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나 분포가 고르지 않아 교급별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고등학교의 계열은 한국의 경우 일반계가 66.1%, 실업계가 33.9%로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나라와 그 비율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일본, 미국의 순으로 실업계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학교의 공사립 여부에 관해서는 한국은 반반씩이나 일본과 미국은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가 훨씬 많았고, 중국은 100% 공립이다.

학교성적은 국가별로 조사도구에 차이가 있어 비교에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다. 봉사활동 경험에 있어서는 한국 청소년들이 88.1%로 가장 경험율이 높고, 다음은 미국(87.5%), 중국(81.9%), 일본(49.0%)의 순이다. 특별

활동을 즐기고 있는지 여부는 미국이 93.6%로 가장 즐기고 있고, 다음은 중국(86.6%), 일본(71.6%), 한국(7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집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I-3>과 같다.

<표 I-4>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국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구분	전체	2022		2018		1996		2020	
성별	남	1013	(50.1%)	988	(49.0%)	760	(38.1%)	1031	(51.0%)
	여	1009	(49.9%)	1030	(51.0%)	969	(48.5%)	947	(46.9%)
	소계	2022	(100%)	2018	(100%)	1729	(86.6%)	1978	(97.9%)
교급	중	1001	(49.5%)	998	(49.5%)	963	(48.2%)	1017	(50.3%)
	고	1021	(50.5%)	1020	(50.5%)	1028	(51.5%)	1002	(49.6%)
	소계	2022	(100%)	2018	(100%)	1991	(99.7%)	2019	(99.9%)
고교 계열	일반계	676	(66.1%)	697	(68.3%)	764	(74.0%)	1820	(90.0%)
	실업계	346	(33.9%)	323	(31.7%)	266	(25.8%)	159	(7.9%)
	소계	1022	(100%)	1020	(100%)	1030	(99.7%)	1979	(97.9%)
공 사립	사립	905	(44.8%)			365	(18.3%)	217	(10.7%)
	공립	1117	(55.2%)	2018	(100%)	1617	(81.0%)	1795	(88.8%)
	소계	2022	(100%)	2018	(100%)	1982	(99.2%)	2012	(99.6%)
성적	상	503	(24.9%)	694	(34.4%)	464	(23.2%)	820	(40.6%)
	중	603	(29.8%)	896	(44.4%)	809	(40.5%)	1004	(49.7%)
	하	874	(43.2%)	426	(21.1%)	675	(33.8%)	179	(8.9%)
	소계	1980	(97.9%)	2016	(99.9%)	1978	(97.6%)	2003	(99.1%)
봉사 활동	있다	421	(20.8%)	1172	(58.1%)	190	(9.5%)	650	(32.2%)
	과거	1360	(67.3%)	481	(23.8%)	789	(39.5%)	1115	(55.2%)
	없다	233	(11.5%)	359	(17.8%)	1008	(50.5%)	255	(12.6%)
	소계	2014	(99.6%)	2012	(99.7%)	1987	(99.5%)	2020	(100.0%)
특별 활동	매우즐김	405	(20.0%)	1200	(59.5%)	867	(43.4%)	1267	(62.7%)
	조금즐김	1026	(50.7%)	547	(27.1%)	563	(28.2%)	625	(30.9%)
	안즐김	588	(29.1%)	269	(13.3%)	556	(27.9%)	119	(5.9%)
	소계	2019	(99.9%)	2016	(99.9%)	1986	(99.5%)	2011	(99.5%)

#### 4. 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는 4개국 청소년들의 의식을 비교하는 규모가 비교적 방대한 조사 연구이기 때문에 사전에 오랜 시간을 두고 협의를 거쳐 체계적인 조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시간이나 지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진들이 직접 만나서 협의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전화와 팩스, 전자우편을 사용한 문서상의 협의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도구상의 표현을 충분히 조율하지 못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일부문항에 있어서는 어떤 나라는 보기별로 척도를 나누어 질문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는 보기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게 하거나 또는 몇 개만 고르게 하거나 또는 모든 보기에 순위를 매기게 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항들은 각국 모두 전체 보기의 순위로만 비교하였다.

둘째, 일부문항들의 표현에 있어서 다소 뉘앙스 차이가 나타나는 문항이 있다. 그러나 각국의 문화가 다르고 언어의 표현방식이 달라 완전하게 일치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셋째, 각국마다 반드시 질문하고자 하는 독특한 문항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문항들에 대해서는 의견조율의 어려움이 있어 모두 포함시키게 되어 문항들이 방대해 졌을 뿐 아니라 성공의식에 관한 조사내용으로서 는 다소 거리가 있는 문항들도 포함되게 되었다.

##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청소년 성공의식에 관한 선행 연구 중에서 실증적 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이어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 1. 선행연구 고찰

지금까지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 등 여러 분야에서 청소년의 인생관, 미래관, 학교관, 직업관, 성공관에 관하여 간간이 그리고 부분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여기서는 청소년에 관한 연구들 중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이번 조사연구와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실증적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국제비교 연구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한국 청소년에 대해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1)의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우리나라 청소년을 세계 10개국과 비교한 제2차 국제조사보고서-’는 일본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가 마련한 ‘세계청소년 의식구조’ 조사로서, 만 18-24세 사이의 청소년 1,00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중국, 서독, 프랑스, 스웨덴, 호주, 싱가포르, 브라질의 11개국에서, 훈련된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으로 실시되었다. 이 연구는 11개국 청소년의 생활영역과 인생관 등을 조사하여, 각국 청소년의 의식상의 특징, 고민, 문제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청소년 정책수립에 바탕이 되는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정희옥 외(1997)의 ‘한·중·일 청소년 의식 비교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 각각 2,000명씩 총 6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관, 학교관, 사회관, 청소년비행, 청소년폭력, 친구관계, 자아관, 직업관, 가치관 등 청소년 의식 전반에 대해 설문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청소년은 삼국 중 가장 심리적으로 억압되고 왜곡되어 있는 갈등적 청소년

으로 분류되었고, 중국 청소년은 개방화·사회화를 거치며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적응적 청소년으로 유형화되었으며, 일본 청소년은 현실지향적 청소년으로 유형화되었다.

오영태·강상욱(1995)의 '한·중 초등학교 학생의 가치관 비교'는 한국의 인천시와 중국의 연길시 초등학교 학생 586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으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영역에 걸친 학생들의 의식실태를 조사하고, 중국의 초등학교 학생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북한 학생들의 가치관을 유추하여,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을 비교하기 위해서 국가관, 사회관, 경제관, 윤리관, 교육관, 가족관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송광성 외(1991)의 '한국청소년의 실태와 문제'에서는 전국의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가정관, 교육관, 직업관, 여가·문화, 건강·보건, 사회·국가의식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에 반드시 진학할 생각인 청소년이 50.9%, 여건이 허락하면 진학할 생각인 청소년이 27.1%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개인의 노력(49.6%), 개인의 능력(24.5%), 학력이나 학벌(17.2%), 집안의 배경(6.3%), 요행이나 운수(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인의 노력(88.9%), 본인의 타고난 지능(4.5%), 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3.6%),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동지역발전문제연구소(1992)의 '영동청소년들의 생각과 삶-영동지역 청소년 의식조사 결과-'는 충북 영동지역의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가정관, 인생관, 학교관, 직업관, 지역관, 사회관, 가치관에 관하여 설문조사하였다. 본 조사연구와 관련된 설문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건이 허락될 경우 8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졸업(전문대 포함)을 원하고

있었다. 학교생활에 대해서 불만족해 하는 학생이 만족해 하는 학생보다 더 많았고, 불만스러운 점에서는 시설·설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학교에서 배운 교육내용이 자신의 진로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전체의 60% 이상이었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도움을 받는 것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기능 및 기술교육(컴퓨터·타자·주산 등)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50%를 넘었고, 개인의 능력이라는 학생은 30%정도였으며, 학력, 신분이나 가문, 요행이나 운수 등이라고 한 학생은 많지 않아, 이번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인생의 목표로는 50%에 가까운 학생이 일상생활을 즐겁게 보내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름을 세상에 떨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25%정도, 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15%정도로 나왔다.

권이중·김문조(1993)의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생활세계적 접근-’에서는 전국의 청소년 4,020명을 대상으로 윤리의식, 성취의식, 사회의식, 자아의식에 관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20개의 직업 가운데 교사를 희망하는 청소년이 18.0%로 이번 조사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교사를 희망하고 있었다. 83.5%의 청소년들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원하고 있었다.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권력(3.2%), 돈(15.3%), 명예(5.1%), 사회봉사(9.4%)보다는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64.8%)을 선택한 것도 이번 조사의 삶의 목표에서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공의 요소로 타고난 재능(26.5%), 가정배경이나 인간관계(30.9%), 인생경험(31.3%), 운수(12.2%)보다는 본인의 노력(69.0%)을 꼽는 것도 다른 조사들이나 이번 조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덜 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다(40.0%)’가 ‘일 대신 여유 있는 삶을 즐기는 것이 좋다(31.7%)’보다 높게 나온 것도 이번 연구나 다른 연구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우리사회가 노력을 강조하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72.5%의 청소년들은 앞으로 10년 후 우리 사회는 크게(36.0%) 혹은 조금(36.5%)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군산 YMCA (1994)의 ‘청소년 의식 및 생활에 관한 실태’에서는 군산 지역 20개 중·고등학교 2,857명을 대상으로 개인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에 대해 설문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하루 수면시간은 전반적으로 6-7시간(34.5%)이 가장 많았고, 전반적으로 7시간 이하(61.1%)였다. 학교의 기능을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곳(54.3%) 그리고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키우는 곳(25.8%)으로 보고 있다. 10년후 우리사회가 좋아질 것이다(36.6%)라는 희망적 응답보다는 나빠질 것이다(42.6%)라는 응답이 더 많아 다른 조사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을 개인의 노력(33.4%)과 능력(31.7%)으로 보고 있었다.

홍봉선·남미애(1994)의 ‘청소년의식조사 연구’에서는 부산시의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청소년 비행 등에 관해 설문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상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자기 분야에서 업적을 쌓는 사람(32.8%), 실력 있고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사람(19.4%), 남을 도와가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13.8%),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한 사람(13.7%)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진로계획에 대해 전체 청소년의 56.5%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약 1/3 정도가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숙 외(1994)의 ‘한국의 청소년지표’에서는 전국의 청소년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 시민의식,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노동·직업에 관한 인식 및 국가의식에 관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우선 일을 하는 목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36.0%), 자신의 발전을 위해(31.9%), 인생을 즐기기 위해(24.6%),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3.7%),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2.1%), 자신의 명예를 위해(1.6%)로 나타났다. 일과 여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과 여가가 모두 중요하다는 ‘일-여가 병행형’이

55.5%로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일에 지장이 있더라도 여가를 즐기려는 '여가우선형(23.3%)'이 '일우선형(21.1%)'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었다.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우리 나라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66.3%였고,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은 14.2%였다.

삼성복지재단(1994)의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생활세계적 접근-'은 전국의 초·중·고교생, 재수생, 대학생 및 근로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으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상사와 직결된 태도와 행동양식을 경험적으로 조사한 후, 분석결과에 기초해 그들의 의식세계를 재구성해 봄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사고, 정서 및 행동양식 전반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의식에 관한 제 1부와 행동에 관한 제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중등교육자회(1995)의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가치관 및 생활양식 분석-'은, 서울시의 중·고등학생 3,5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으로 조사하였으며, 오늘날 청소년들의 삶과 희망을 바르게 이해하고,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현장의 교육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도방안 탐색 및 계도자료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종교 청소년과 비종교 청소년을 구분하여 종교관, 국가·민족관, 통일관, 가정과 이웃, 노동·직업관, 학교·학업관, 인생관의 의식부분과, 취미생활, 여가생활, 수면·식사습관, 친구, 용돈, 독서, 고민·걱정거리의 생활양식 부분을 비교 조사하였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1996)의 '신세대의 이해-그들의 의식과 유형-'은, 삼성복지재단의 의뢰를 받아,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근로청소년, 비행청소년 4,644명과 신세대와 기성세대간의 세대 차를 조명하기 위해 중·고등학생 학부모 2,566명, 총 7,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으로 실시되었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처한 생태학적 조건에 따라 그

들의 가치관 및 의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모두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부는 청소년의 발달심리적 특성, 가치지향성, 사회적 의식성향 등이 청소년의 의식형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분석하였고, 제 2부는 가치갈등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청소년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청소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88)의 ‘학생 생활·의식 실태조사’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6,000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가정생활, 교우 및 여가관계, 일생관 및 일탈관계, 사회관계, 정보화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1998년 4월 1일에서 18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학교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 67.4%가 ‘장래를 위해서’라고 응답했으며, 10.1%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은 75.3%는 75.3%가 전문직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10.1%가 사무직을, 7.9%가 관리직을, 4.9%가 판매 서비스직을, 0.8%가 생산직을 희망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을 보면, 하루 8시간 정도가 가장 많은 31.2%, 7시간 정도가 24.1%, 9시간 정도가 21.6%, 6시간 정도가 10.7% 순으로 나타났으며, 5시간 이내도 2.7%, 10시간 이상도 9.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개인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2. 4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한국, 중국, 일본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해서는 1997년 연구자가 연구한 ‘한·중·일 청소년 의식 비교 연구’(정희욱 외, 1997)에서 기술한 내용을 가감을 하여 그대로 수록하였다. 그 때의 상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은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유래된 동일한 문화의 기원을 갖고 오랫동안 긴밀한 역사적 관련성을 맺어왔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삼국은 고대로부터 상호이동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은 당시 선진 문명국인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발전시켜 왔으므로 삼국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삼국은 각자의 고유한 문자를 갖고 있음에도 한자를 공동으로 사용해 “한자문화권”(공성진, 1995: p.95.)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삼국이 통신 및 의사소통의 수단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며 앞으로 정보화시대로 대두될 미래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기능을 하게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삼국은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유교적 질서관과 윤리체계를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삼았다. 이러한 유교식 전통은 가부장의 지위, 부모와 자식간의 특별한 윤리적 관계 등을 골자로 하는 가족주의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가족중심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듯 외모가 비슷하고, 한자를 사용하며, 유교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한 삼국은 사회문화적으로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각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독자적 원형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세나라는 동일한 유교문화권속에 있으면서도 유교를 대하는 인식이 각기 달랐으며, 한국은 孝, 중국은 信義, 일본은 忠을 강조하는 등 유교에서 저마다 강조한 덕목에도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인종이 어울려 살고 있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이다. 흑인지역, 한인지역, 중국지역, 유태지역, 라틴지역 등 인종별, 국가별로 지역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지역간에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에 있어서 큰 격차가 있다. 미국은 선발 자본주의 국가로 세계자본주의 경제를 주도해 왔으며, 그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문화의 미국화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부와 풍요를 누리고 있다.

4국의 경제적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은 지난 97년 12월 이후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으며, 중산층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고, 높은 실업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대학 졸업생들이 겪는 실업의 여파는 그 개개 청소년들의 인생관과 성공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지금 유사이래 최장기의 불황을 겪고 있다. 전통적으로 실업율이 낮은 사회에서 실업율이 치솟고 있으며,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중산층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다. 중국은 IMF를 겪고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나 일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긴 하지만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지금 유사이래 최장기의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현재 세계 유일의 최강국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경제호황 때문에 인력도 많이 필요하게 되어 대학졸업자 한 사람에게 여러 회사에서 입사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 1)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체계는 조선조 사회의 지배적 가치였던 유교적 사상에 그 근거를 둔다. 유교적 사상의 두드러진 특징은, 서양에서 자연의 정복과 개척을 중시 여기는 것과는 달리 자연에 대한 순응과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동양적 자연관, 서구의 근대적 인본주의가 강조하는 개인의 존엄성과 해방의 가치와는 구별되는 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기초로 한 전통적 인본주의, 즉 동양적 인간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교적 전통가치의 또 다른 특성은 철저한 상하 위계적인 서열관계를 중시여기는 권위주의적 가치지향이다. 군신, 부자, 부부, 장유 등 모든 기본적인 인간관계와 직업 및 신분집단의 관계가 엄격한 위계로서 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하 서열의식과 권위주의적 가치지향은 근대화를 경험한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도 뿌리깊이 잠재해 있는 전통가치이다.

한편, 유교적 전통가치의 대표적 특성으로 집합주의의 가치지향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집합주의가 지니는 주요한 특징은 가족, 지역 및 국가공동체 등 여러 차원의 집합체 가운데서도 특히 가족이 중요시되는 가족주

의적 집합주의 (최재석, 1976: pp.21-46)로서, 개인보다는 부모와 조상, 친족 등 가족공동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러한 가족주의적 성격은 친자간의 기본윤리인 ‘효’를 사회윤리의 기본으로 삼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주의, 인본주의, 권위주의 및 집합적 가족주의의 전통적 가치성향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었을까?

근대화라 불리는 사회변동은 근본적이고도 광범위한 사회구조상의 변동을 말한다. 즉, 전통사회의 구조가 근대적인 사회의 구조로 바뀌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의 본격적인 사회구조적 변동은 1960~1970년대에 급속도로 진행되어, 이 기간동안 한국사회는 농촌사회로부터 도시화 및 공업사회로의 질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또한 70년대 이후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사회문화적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겪어 왔는데 그 주된 유형으로, 산업화된 사회, 도시화된 사회, 중산층의 사회를 꼽을 수 있다(임희섭, 1994: p.239). 80년대 후반부터 산업구조는 한층 고도화되어 오늘날에는 이미 정보산업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고, 1960년대부터 급격하게 진행된 도시화는 오늘날에 이르러 전국인구의 3분의 1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도시의 기형화를 초래했으며, 70년대 이후 절대빈곤인구의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중산층 인구비율이 증가하여 중산층 중심의 사회로 진입하였으나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기 시작, 부의 편중화와 경제력 집중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이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완화시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지만, 증대된 부가 일부계층에 편중되어 오히려 상대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했고, 이는 사회구성원간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고 계층간, 지역간 집단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남게 되었다. 절대적인 사회경제적인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추진되어온 근대화 과정은 사회적 분배의 공평성이나 사회정의의 정착 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지금과 같은 사회구조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외에 근대화과정 이후, 한국의 정치적 환경은 권위주의적 정치로 특징 지워져,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민주화 투쟁의 대상이 되었고, 70년대 이후 본격적인 ‘고학력 사회’가 등장하면서 고등학교 진학률 95%, 대학 진학률 30%를 넘어서 인구비율로 볼 때, 한국의 대학생 비율은 세계에서 2, 3위를 차지할 정도의 고학력사회가 되었다. 또한 70년대 이후 한국의 가족구조는 ‘핵가족화? ‘평등화’의 방향으로 변화되어 평균가족수는 4명정도, 핵가족의 비율은 전체인구의 70%를 넘게되어 전통적인 부자 중심의 가족구조를 부부중심의 가족구조로 변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주의는 아직 유지되고 있으나 가족내의 권력구조는 상당정도 평등화 되어있다 (임희섭,1994: p.241).

이처럼 급격함으로 묘사되는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은 그만큼 우리 삶의 힘겨움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급격한 산업화, 근대화 과정은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에 혼란스러워 하며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기도 한다. 인본주의,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한 전통가치는 산업화, 도시화의 구조적 변동에 따라 공동체적, 친족적 결속이 와해됨으로써 개인중심적 가치관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전통적인 사회적 연대의 해체로 탈 집단화된 개인은 원초적인 연고적 관계에 안주함으로써 혈연과 학연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연줄망을 형성(임희섭, 1994 : p.54),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은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가치관의 문제에 가장 직면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청소년이다. 이들은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경제적 빈곤, 후진사회로서의 절망감이나 열등의식으로부터 벗어나 기성세대가 이루어 놓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생산주의 시대에 살았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소비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더욱 더 물질주의적 성향, 개인주의적 성향을 띄게 되며, 전통가치를 부정하고, 기성세대에 반발하는 등 많은 갈등과 마찰을 겪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 만연

한 지식위주의 교육, 학력위주의 교육병리현상과 그에 편승한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은 청소년을 과열된 학습경쟁 속으로 몰아 넣어 갈등상황을 제공하며, 그들에게 심한 가치관의 혼란과 부적응 행동을 초래하고 있다.

## 2) 중국의 사회문화적 환경

한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가치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문화는 서방문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근원성을 갖고 있다. 가치의식, 사회조직 등 여러 방면에 있어 서방문화와 명백한 차이를 드러내는 중국문화는 객관적인 이해와 해석을 주체로 논리적 자아의 형성을 중시여기는 서방문화와는 달리, 인성(人性)을 주체로 한 도덕적인 자아의 형성을 중시 여겼다 (노동선, 1993 : p.13).

. 그리하여 정치적으로는 덕치(德治)를, 사회적으로는 덕행(德行)을 경제적으로는 의리(義利)를, 개인적으로는 충효(忠孝)를 실천함이 중국사회의 가치체계의 주류를 이루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가치가 집단주의, 전체주의의 계층구조를 조직하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조직의 관점에서 중국은 기독교문화의 영향으로 교회의 비중이 큰 서방과는 달리 가정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의 전통사회구조중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형태가 바로 중국 고유의 가족제도이다. 미국의 Levy, M. J. (1948)와 같은 같은 학자는 중국의 모든 중요한 경제 및 기타 사회적인 관계는 정부와 가정간의 관계라 할 정도로 가정은 사회의 핵심으로서 중국 전체 사회가치체계를 응결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가정은 혈연중심으로써 부계가 주축이 되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절대복종관계가 주를 이루며, 이러한 상하관계는 유교의 ‘효’와 ‘삼강오륜’ 등을 강조하는 가치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같은 혈연중심의 가정의 기동은 개인주의적 경향을 억제하고



혈연의 범위를 초월하는 중국사회의 계층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전통중심의 중국사회는 1978년이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주축으로 한 개혁·개방정책 실시를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에서 ‘개혁(reform)’이란 기존의 경제, 사회체제 및 제도를 변혁시킴은 물론, 사회구성원의 사고, 사상 및 행동양식까지 광범위하게 변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의 최대목표인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념, 제도, 정책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던 것이다.

이렇듯 경제정책의 전환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식전환을 포함한 본질적인 전환을 모색했던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성과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이미 아시아 국가 중 최고의 고도성장을 기록했으며, 최근 각국의 경제력을 구매력 평가에 기초한 환율로 계산할 때, 1인당 GNP는 2,000달러 수준, GNP 규모는 세계 2위임을 IMF는 밝히고 있어 (Economist, 1993년 5월 15일자), 중국이 21세기에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또한 대내개혁·개방정책을 가속화한 결과로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군사력의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여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현대화한다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여 동북아시아에 대한 군사적인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21세기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패권장악은 물론, 동북아 신질서 형성과정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리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등소평 시대 18년간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의 경제력은 고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12억 중국인구의 약 80%가 사는 농촌의 개인소득이 월등히 증가되고, 삶의 양적·질적 향상은 물론, 중산층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 과정에서 왜곡된 서구의 자본주의 사상이 유입되어 배금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팽배, 관료의 부패,

서구의 저질·퇴폐문화의 확산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자리잡고 있다. 과거 전통을 존중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왔던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회로의 급속한 변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종래의 가치관에 큰 변혁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물결은 이미 거센 흐름을 타고 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중국은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중국의 개혁이 구 소련이나 동구권의 몰락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인지, 아니면 21세기를 주도할 세력으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 할 수 없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1997년 7월 1일부로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되는 '홍콩'이라는 변수로 인해, 중국은 비약적인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홍콩의 경제적 풍요와 시장경제의 원리, 자유민주주의로 인해 중국의 개방정책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며, 급속한 사회변화의 조류 속에서 통일된 사회구조의 확립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순과 갈등이 나타나 문화적 혼재, 가치관의 혼란 등이 만연하게 될 것은 필연적이다. 현재 중국은 유교사상으로 대표되는 전통문화, 40년이상 일상생활을 지배해온 사회주의 문화, 그리고 개방의 물결과 함께 밀려들어온 자본주의 문화 등이 혼재 되어 일으키는 갈등 속에서 문화적 아노미상태에 처해 있다. 중국을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기형적인 경제성장은 정신적인 면보다는 가시적인 물질 면에 집중되어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국이 겪었던 경제적 빈곤의 산물인 불충분한 학교교육과 문화사업 및 문화시설의 부족 등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동이 진행되는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국청소년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러한 급속한 사회변화는 그들의 생활태도와 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 3) 일본의 사회문화적 환경

일본은 사회제도나 가치체계면에서 한국, 중국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고 있으며, 삼국의 보편적 가치관인 유교도 일본에서는 한국과 중국과는 다르게 발전되었다. 즉 유교 자체의 순수한 이념을 계승, 발전시킨 한국, 중국과는 달리 일본은 유교적 전통을 재해석하여 자국의 고유전통과 조화시킴으로써 차별화 하였는데, 이는 메이지 시대인 1868년 전 국가의 보편적 관념이었던 “부시도(Bushido)”에 잘 나타나 있다. 부시도는 유교를 기초로 한 전통적인 사무라이 윤리도로서 군주에의 절대충성과 부모에의 효도를 부시도의 두 가지 핵심강령으로 보았다 (박종돈, 1994: p.35 ). 한국과 중국의 유교가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한다면 일본은 군주에 대한 충성심을 부모나 가족에 대한 충성심보다 우위에 두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일본의 가족개념 및 가족제도에서 명백해진다.

사회인류학이나 가족사회학에서 가족의 개념을 논할 때, 가족은 혈연과 결혼관계로 결합된 동거집단이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가족은 주거형태를 기반으로 형성된 형식적 사회집단으로, 가족구성원의 조건으로 혈연보다는 거주와 경제요소를 중시 여기므로 일반적 개념인 가족(family)보다는 일본고유의 “家(いえ, ie)? 즉 한 지붕밑에서 함께 사는 동거집단인 가구(家口, household)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家”의 기본의미는 가족의 계승에 있다. 일본도 한국, 중국과 마찬가지로 가계의 영속성에 비중을 두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의 가족은 혈연원리가 중요하지 않은 만큼 가장에 대해서도 가장 권은 인정하나 父權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자가 항상 가족의 계승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장자가 능력이 없을 경우 장자상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혈연관계가 없는 양자도 가족을 계승할 수 있다. 또한 딸과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도 그 능력에 따라 가족의 계승자가 될 수 있다 (박종

돈, 1994: p.36).

이처럼 일본에서는 여자도 가계를 이어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남자들도 후계자가 될 때까지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성취지위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일본의 근대화가 앞당겨 졌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현대 일본을 특징짓는 독특한 형태의 능력과 경쟁은 분명 이러한 복잡한 역사적 과정의 산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하는 이같은 일본가족의 계약적 성격 때문에 그곳의 윤리도 孝보다는 忠이 강조되었으며, 타인들과의 관계형성시 혈연 및 지연에 매우 집착하는 한국, 중국인과는 달리 동질성 형성에 있어 타고난 재능과 경력을 친족관계 우위에 두었다.

이러한 일본 가족개념의 특성으로 인해 산업화와 더불어 가장 큰 변화의 일로에 있는 것이 가족, 즉 가족문제의 전개이다. 전후 일본은 이혼율의 증가, 출생률의 감소, 노인문제 등 구미 선진국가와 유사한 경향의 가족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가족해체현상이 주요한 가족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최재석, 1990: p.300).

그에 따르면 가족해체란 가족원간의 결속력이 약화 또는 해체로 인해 가족이 1차 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 한다. 별거, 이혼, 혼외의 남녀결합을 통해 불완전한 혹은 결손가족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자녀의 문제행동, 노후생활불안, 자살의 증가, 미혼모 문제 등 가족의 위기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사회적 통제의 원초적 역할을 하며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는 가족이 기능을 상실한 상황을 말한다. 그는 또 이러한 가족문제는 산업화 함께 진행된 가족제체 자체의 변화, 가족이데올로기의 변화 및 사회전반의 개인주의, 무규범 등의 가치변화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최재석, 1990: p.303 ).

지금의 일본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제 2 차 세계 대전 직후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던 일본이 와신상담하는 자세로 온갖 역경을 딛고 패전 5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뤄낸 경제대국의 신화는 실로 경이로운 것이

었다.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미국을 앞지르고 세계 총 생산량의 15%를 차지하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으며, 이러한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미 세계의 화제가 되어있다.

그러나 일본을 세계 속의 오늘의 위치로 이끌어간 일본의 제반 사회 여건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으며, 특히 일본사회 내부의 가치관의 변화는 새로운 일본사회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신장, 핵가족화 현상, 독신자의 증가로 대표되는 가족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목표도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추구하는 현재지향주의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전후의 부흥기에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거치며 물질적 풍요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란 젊은 세대는 현재의 자기생활을 소중히 여기며, 자기감성에 충실하게 매일 매일을 살고 싶어하는 현재중심의 생활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 4) 미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

미국은 다인종, 다문화로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19세기부터 민족간, 문화간, 사회계층간의 조화와 융화를 강조해 왔으며, 다양성을 통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발전을 도모해 왔다. 여기서 용광로(melting pot)라는 말이 나왔다. 이 용어는 특히 학교 교육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출신국가와 인종이 다른 다양한 아이들이 학교 시스템, 사회 시스템을 거치면서 미국 시민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여, 미국사회와 학교를 광석들을 녹여서 쇠로 만드는 용광로로 비유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실력 사회를 지향해서, 실력과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사회 계층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라는 평가를 들어 왔다. 여기에서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하지만 사회구조가 정착됨에 따라 아메리칸 드림도 옛날 이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이러한 다양한 민족과 인종과 문화를 조화시키고 융화시켜서 창조적

인 힘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의 미국을 있게 한 힘이다. 이러한 힘은 미국의 정치 사회 시스템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의 이러한 다양성은 한편으로는 미국 사회에 창조성과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로 작용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과 불안을 발생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흑인 폭동이 그 단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백인 경찰들이 교통 위반을 한 흑인을 집단 구타하는 비디오가 언론에 공개되자, 격분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 폭동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 미국으로 퍼져나갔으며, 이 폭동에 특히 피해를 당한 것은 백인들이 아니라, 흑인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한인들이었으며, 그 여파로 이제 미국사회에 막 자리잡기 시작한 한인 사회가 큰 타격을 받았던 사건이다. 특히 한인과 흑인 사회는 같은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갈등이 심하다. 이러한 인종간의 갈등은 미국 사회가 해결해나가야 할 영구적인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미국 사회는 개방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회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그 영역이 성의 개방에까지 미치고 있어,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서 다른 3국에 비해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성적 개방은 청소년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혼전 섹스로 인한 많은 미혼모의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성 개방적인 분위기, 결혼에 있어서의 개인주의와 애정의 강조는 높은 이혼율을 가져왔다. 현재 미국의 이혼율은 약 50%로,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이혼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이혼율은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의 눈으로 현재 미국의 가정을 살펴보면, 친부모와 자녀가 어울려 살고 있는 정상적인 가정이 오히려 드물다. 계부, 계모 혹은 그 자녀들과 어울려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경우와, 홀어미(single-mother), 홀아비(single-father), 미혼모와 사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 이러한 가정의 붕괴는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가정의 파괴로 여자와 아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Rodgers, 1990), 미국 청소년들이 총기, 마약, 폭력, 매춘 등에 다른 3국의 청소년들보다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이민희 외, 1998: 96-99; 정희욱, 1998: 127-132). 특히 총기의 합법적인 혹은 불법적인 소지가 쉬운 사회이기 때문에 총기로 인한 사망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 청소년들이 특히 총기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미국 고교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들도 총기를 구입하기 쉬운 것이 한 원인이다.

현재 미국의 사회와 문화는 어느 한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수많은 민족과 인종과 문화가 어울려 있는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사회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청소년들은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개방적 사회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 한편,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 총기나 마약 등에 의한 피해가 다른 3국보다 심한 사회에 살고 있다.

### III. 주요결과 요약

#### 1. 인생관

##### 1) 인생목표

각국의 청소년 모두 자신의 취미나 흥미를 즐기는 것을 중요한 삶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그 외 특징적인 것은 한국의 경우 타인이나 사회를 위한 공헌, 미국과 중국, 일본은 평범하고 즐기는 생활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생관에 있어서 미국이나 다른 동양국과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국의 경우 아직도 명예나 공명심을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분석된다.

<표 III-1> 인생목표에 관한 국가별 순위

(단위 :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1순위	자신의 취미나 흥미를 즐기는 것 96.9	자립하는 사람이 되는 것 94.8	자신의 취미나 흥미를 즐기는 것 93.2	그날그날 즐기며 사는 것 95.5
2순위	자립하는 사람이 되는 것 88.2	자신의 취미나 흥미를 즐기는 것 91.5	자립하는 사람이 되는 것 89.9	자신의 취미나 흥미를 즐기는 것 95.0
3순위	타인이 흉내낼 수 없는 특기 갖는 것 79.5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것 89.9	그날그날 즐기며 사는 것 89.3	매력적인 이성을 찾는 것 95.0



한국·중국·일본·미국 4개국 청소년 전체를 놓고 볼 때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가장 많이 동의한 것은 ‘자신의 취미와 흥미를 즐기는 것’이며, 두 번째로 많이 동의한 것은 ‘자립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세 번째로 ‘그날 그날 즐기며 사는 것’을 꼽았다. 현재 청소년들의 교육이나 삶에서 매우 중시되고 있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라든가 ‘부자가 되는 것’은 동의의 순서에 있어서 뒤로 밀리고 있었다. 4개국의 청소년 모두 삶을 향유하며 살고 자립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에 더 많이 동의하고 있었다.

## 2) 생활태도

각국의 청소년들은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고, 처세의 요령으로써 주변사람들에게 협조하고자 하며, 공정한 처벌, 자유와 책임, 봉사정신 등에 관해 올바른 생활태도와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자유에 관해 다소 방임적인 태도를 보였고,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위선적인 행위로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아 시민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수업 중에 수다떠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한국은 33.2%, 일본은 32.6%, 미국은 30.8%, 중국은 20.5%이고, 자원봉사는 위선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한국은 29.1%, 일본은 25.6%, 미국은 20.4%, 중국은 18.0%로 각국 청소년 모두가 이에 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한국의 청소년들은 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자원봉사가 강조되고 있는 한국의

청소년들 중 거의 3분의 1 정도의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우선적인 행위로 보고 있다는 것은 특기할 만 하다.

### 3) 자신의 특징

자신의 특징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좋다는 것을 1순위로 꼽았고, 미국과 일본은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을 1순위로 꼽았다. 한편 한국은 많은 것에 의문과 관심을 가진다, 중국은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좋다는 것을 2순위로 꼽아 국가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상대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이 정의감이 높고 운동신경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 하다.

<표 III-2> 자신의 특징에 관한 국가별 순위

(단위 :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1순위	다른 사람을 돕는 것 80.2	다른 사람을 돕는 것 62.7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는 것 19.0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는 것 66.5
2순위	많은 것에 관심 갖는 것 70.4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는 것 53.4	다른 사람을 돕는 것 15.7	다른 사람을 돕는 것 62.7
3순위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는 것 69.3	말을 잘 하는 것 52.1	말을 잘 하는 것 12.2	나만의 특기 51.1

자신의 특징으로써 1순위에 올라있는 문항들은 한국(80.2%)과 중국(70.5%)의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좋다는 데에 동의율이 가장 높았고, 미국(66.5%)과 일본(19.0%)의 청소년들은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다는 데에 동의율이 가장 높아 국가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

다만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한다는 문항에 대해 한국은 4순위로써 4개국 중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고, 운동신경이 좋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6순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해 한국의 청소년들은 스스로 정의감은 높으나 운동신경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자신의 성격

각국의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책임감과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특히 자신감 면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일본은 89.0%, 중국은 72.9%, 미국은 44.4%, 한국은 38.8%로 한국 청소년들이 자신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할 용기에 관해서도 미국은 86.9%, 중국은 72.4%, 한국은 63.7%, 일본은 56.2%, 고립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생각을 지키고 싶다는 관해서도 미국은 91.9%, 중국은 80.5%, 한국은 77.1%, 일본은 72.1%로 역시 자신감이 낮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 2. 미래관

한국청소년들의 미래관은 낙관적이라고도 비관적이라고도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중국청소년들이 가장 낙관적이고, 미국, 한국, 일본의 순이다. 그런 대로 동양권에서는 사정이 나은 중국과 사상초유의 호황을 누리는 미국의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낙관적이고, 불황이 시작된지 얼마 안되는 한국, 장기간의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순으로 점점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청소년들의 미래관이 각국의 경제사정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III-3> 21세기 전망의 국가별 순위

(단위: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1순위	자유경쟁 97.3	희망 96.6	자유경쟁 93.3	과학진보 90.3
2순위	희망 93.6	풍요 89.7	과학진보 83.9	희망 89.5
3순위	풍요 88.4	질서 89.0	희망 76.2	자유경쟁 89.1

한국 청소년들은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다(80.6%) 라는 데 가장 동의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희망찬 사회가 될 것이다(67.2%),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65.1%)의 순이다. 그러나 신뢰있는 사회(26.8%), 범죄가 적은 사회(26.3%), 빈부차가 적은 사회(31.5%)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미국의 청소년들과 중국의 청소년들은 한국의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중국이 더욱 그랬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보다 비관적인 태도를 보여 가장 비관적인 미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학교관

#### 1) 학교생활의 의미

각국의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친구만들기에 더욱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누리고 있는 미국의 청소년들이 오히려 일본이나 한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공부나 입시에 더 의미를 두고 있고,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의 의미를 입시위주의 공부나 학급의 반장이 되는 것 등 기성세대들이 중시하는 것보다는 친구만들기나 특기개발과 같이 본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의미를 두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이 갖는 의미로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친구만들기'(97.3%)이고, 다음으로 특기개발(93.6%), 좋아하는 과목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88.4%) 등을 들고 있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봉사활동에 열중하기이다. 다른 학업 외 활동(동아리활동, 학교행사)에 비해 봉사활동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학급의 반장이 되는 것(20.8%)에는 의미를 두고 있는 청소년이 별로 없었고, 목표하는 대학의 수험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59.4%)이나 애인을 만나는

것(49.2%)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만이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의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기성세대들의 기준에 의해 중시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 학교생활의미의 국가별 순위

(단위: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1순위	친구 97.3	공부 96.6	친구 93.3	친구 90.3
2순위	특기 93.6	친구 89.7	특기 83.9	특기 89.5
3순위	선호과목 88.4	교사 89.0	선호과목 76.2	수험과목 89.1

국가별로 3순위 안에 드는 성공요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 청소년들은 공부를 잘 하는 것에 가장 의미를 두고 있고, 친구만들기, 인생의 선택으로써 훌륭한 교사를 만나는 것 등을 들고 있어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청소년의 경우는 한국 청소년과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친구만들기, 특기개발, 좋아하는 과목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의 순이다. 한편 미국 청소년들은 친구만들기와 특기개발, 목표하는 대학의 수험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 등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생활의 의미를 목표하는 대학의 수험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에 두고 있는 청소년들이 한국(59.4%)과 일본(55.1%)에 비해 중국(83.2%)과 미국(89.1%)이 월등히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앞의 성공요인에서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이 중국과 미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학력을 덜 중시했던 것과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현실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기인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각국의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학교생활에서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친구만들기에 더욱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누리고 있는 미국의 청소년들이 오히려 일본이나 한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공부나 입시에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 하다.

## 2) 학업의 유용성

지금 하고 있는 학교공부에 대해 한국, 중국, 일본은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공부라는 것을 1순위로 꼽았고, 미국은 입시에만 유용하다는 것을 1순위로 꼽았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입시에만 유용하다를 2순위로, 중국과 미국은 장래에 직장을 잡는데 유용하다를 2순위로 꼽았다.

먼저 한국의 청소년들은 학교공부가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공부라는 데에 동의율(75.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입시에만 유용하다(58.3%), 자신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공부이다(49.8%)의 순이다. 한국의 학교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성교육 등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공부라든가 인격형성에 중요한 공부라고 보고 있는 점은 의외의 결과이다.

중국의 청소년들도 학교공부가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공부라는 점을 가장 많이 인정(70.9%)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장래에 직장을 잡는데 유용하다(67.1%), 자신의 특징을 살리는 공부이다(57.7%)의 순이

다. 일본의 청소년들도 학교공부가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공부라는 데에 선택율(48.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입시에만 유용하다(47.4%), 장래 직장을 잡는데 유용하다(37.0%)의 순이다.

한편 미국의 청소년들은 학교공부가 입시에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4.6%로 가장 높아 이 또한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장래에 직장을 잡는데 유용하다(32.7%), 특기를 개발하는데 유용하다(15.2%)의 순이다. 또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공부라는 데는 7.1%만이 선택했다.

## 4. 직업관

### 1) 장래목표와 진로계획

각국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장래 목표를 결정했으나 확실한 결정은 아니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의 진로는 취업보다는 진학 예정인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4개국 모두 공통된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목표를 결정한 비율이 낮아 미래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장래목표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결정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청소년은 미국(45.7%), 중국(30.9%), 한국(25.3%), 일본(20.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확실하게 결정했다는 청소년과 막연하지만 결정했다는 청소년의 비율을 합친 결정했다는 편에 속하는 청소년은 중국이 96.2%로 가장 높고, 다음은 미국이 94.7%, 일본이 79.6%, 한국이 79.5%의 순으로 이어진다. 장래의 목표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청소년은 한



국(19.5%), 일본(19.3%), 미국(4.2%), 중국(3.0)의 순으로 나타나, 한국의 청소년들이 장래의 목표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각국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장래 목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고, 또한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장래 목표에 대해서 결정하고 있었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진로계획에 대해 알아본 결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진학할 계획인 청소년은 미국(82.4%), 한국(78.1%), 중국(77.6%), 일본(62.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취직할 계획인 청소년은 일본(17.3%), 중국(10.3%), 한국(8.4%), 미국(5.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결정을 하지 않은 청소년은 일본(18.3%), 한국(12.9%), 중국(10.0%), 미국(1.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학 계획인 청소년과 진로를 결정한 청소년은 미국이 가장 많았고, 취직 계획인 청소년과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은 일본이 제일 많았다.

## 2) 희망직업

한국의 청소년들은 장래 희망직업으로 교사를 가장 선호하고 있고, 일본은 공무원, 중국은 법조인, 미국은 의사를 선호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일본은 수입이 높은 자유전문직을 선호하고 있어 각국의 경제상황과 희망직업이 깊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직업에 관하여 모두 24개의 직업군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교사나 의사와 같이 많이 선택할 것 같은 직업은 단일 직

업으로 제시하였고, 그렇지 않은 직업들은 묶어서 직종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장래의 희망직업에 대해 한국의 청소년은 교사를, 중국은 법조인을, 일본은 공무원을, 미국은 의사를 제일 많이 선택하였고, 한국의 청소년은 첨단 기술자를, 한국의 학부모는 공무원을, 중국은 제1차산업(농업·어업·임업·광업 등)을, 일본은 간호사·약사를, 미국은 법조인을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한국의 청소년들과 부모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청소년들은 교사, 첨단 기술자, 매체종사자, 예술가, 연예인 순으로 희망직업을 선택하였고, 부모들은 교사, 공무원, 의사, 법조인, 간호사·약사의 순으로 선택해 부모와 청소년들이 공통으로 교사를 제일 선호하고 있지만, 그 다음 순위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주로 전통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종을 선호하였지만, 청소년들은 첨단 기술자나 매체종사자, 예술가, 연예인과 같은 새로운 인기 직종들에 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사, 연예인, 매체종사자는 다른 나라 청소년들이 별로 선택하지 않은 직종이었고, 한국 부모들이 선택한 공무원, 의사, 법조인, 간호사·약사는 외국 청소년들의 선택과 일치하는 점이 많았다.

일본청소년들은 공무원(17.3%), 간호사·약사(10.1%), 의사(9.2%), 복지관계자(7.8%), 예술가(7.3%), 운동선수(5.9%), 전문기술자(4.7%), 회사원(4.6%), 법조인(4.5%), 상점주인(3.1%) 등의 순으로 많이 선택하였고, 중국 청소년들은 법조인(43.9%), 농업·어업·임업·광업 등(40.1%), 회사경영자(39.0%), 의사(35.6%), 첨단기술자(32.3%), 회사관리자(31.6%), 경찰관·군인(30.6%), 회사원(29.5%), 연예인(26.9%), 학자(26.7%) 등의 순으로 많이 선택하였으며, 미국 청소년들은 의사(30.4%), 법조인(14.3%), 예술가(13.8%), 프로 운동선수(8.0%), 의사 외의 의료인(6.7%), 첨단기술자(5.7%), 복지관계자(4.3%), 정치가(2.1%) 등의 순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표 Ⅲ-5> 희망직업의 국가별 순위

(단위: %)

구분	한국		중국 (다수선택)	일본	미국
	청소년	부모			
1순위	교사 11.2	교사 17.6	법조인 43.9	공무원 17.3	의사 30.4
	첨단기술자 8.2	공무원 9.6	1차산업 40.1	간호사·약사 10.1	법조인 14.3
3순위	매체종사자 8.0	의사·법조인 9.2	회사경영자 39.0	의사 9.2	예술가 13.8

## 5. 성공관

### 1) 성공을 위한 노력

수업이 있는 날 일본 청소년들이 가장 적게 자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한국, 중국, 미국 순으로 적게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이나 직업을 위해 매우 노력하면서 살겠다는 청소년은 일본>중국>한국>미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노력하면서 살려는 청소년일수록 잠을 적게 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국 청소년들의 수면시간 중 가장 많은 청소년이 분포하는 시간대는 한국(30.9%), 중국(35.9%), 일본(33.0%)의 경우 7시간이고, 미국(33.3%)은 8시간이다. 8시간 이상 수면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60.4%, 중국 47.7%, 한국 33.2%, 일본 20.9%의 순이다. 6시간 이하 수면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일본이 46.3%, 한국이 36.0%, 미국이 17.9%, 중국이 16.3%의 순이

다.

매우 노력하겠다는 청소년과 적절히 노력하면서 살겠다는 청소년의 비율을 합친 노력하겠다는 편에 속하는 청소년은 미국이 91.7%로 가장 높고, 다음이 한국이 90.4%, 일본이 84.8%, 중국이 81.8%의 순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각국의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 성공이나 직업을 위해 노력하면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 매우 노력하면서 살겠다는 청소년은 일본이 가장 많고, 적절하게 노력하면서 살겠다는 청소년은 미국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 2) 성공의 의미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의 의미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청소년은 책임감과 자기희생을 강조하고 있고, 중국의 청소년은 권력을 갖게 되는 것, 일본의 청소년은 부를 누리게 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어 국가에 따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의 의미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한국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희생이 있어야 하고, 또한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책임이 무거워질 뿐 아니라 자기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 성공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청소년들은 모든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나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부자가 된다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았다. 일본 청소년들은 부자가 된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고, 다음으로는 책임이 무거워지고, 다른 사람

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청소년들은 많은 자기희생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며, 또한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책임이 무거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 성공에 따르는 책임과 함께 성공에 이르는 과정의 어려움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제일 동의율이 높은 것이 32.0%로 8개 전체 항목에 대해서 거의 동의하지 않은 반면, 일본은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의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7항목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다. 이는 중국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는 것에 별다른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고, 일본 청소년들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중국의 경우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이 아닌가 분석된다.

<표 Ⅲ-6> 높은 지위의 의미에 관한 국가별 순위

(단위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1순위	책임 막중 87.2	타인이 시키는 일 안해도 됨 32.0	부자가 됨 72.0	책임 막중 80.8
2순위	자기희생 83.3	권력 30.8	책임 막중 71.7	자기 희생 73.3
3순위	자기 시간 부재 63.2	부자가 됨 28.8	타인이 시키는 일 안해도 됨 64.2	고개를 숙여야 함 50.6

## 3) 성공요인

한국의 청소년들은 성공요인으로써 특기나 친절 등 후천적으로 노력 가능한 것을 성공요인으로 꼽고 있는 반면 부모의 능력이나 IQ 등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하는 것은 성공요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히 타인에 대한 배려나 친구 등 인간관계를 중시함으로써 공동체 지향적인데,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청소년들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의 청소년들은 학력이나 정직 등 개인적 조건을 더 중시하고 있어 개인 지향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은 성공의 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특기’(95.1%)이고, 다음으로 친절(94.7%), 지식(90.6%) 등을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직(86.0%), 친구가 많은 것(85.5%), 사교술(81.0%), 유머감각(79.4%), 남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에 출신하는 것(76.5%), 학력(66.6%), 자신에게 엄격함(53.5%) 등에 대해 성공의 요인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면에 상관에게 아첨하는 것에 대해서는 16.5%만이 동의해 성공요인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매우 적었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35.8%), 연줄(38.2%), 재력(39.9%), IQ(44.1%) 등에 대해서도 성공요인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적었다.

따라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성공요인으로써 개인적인 능력이나 좋은 성품 등을 중시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볼 때 후천적으로 노력 가능한 요인들을 성공의 요인으로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하는 부모의 능력이나 IQ 등은 성공의 요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며, 특히 상관에 대한 아침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하고 있지 않아 성공이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고 또한 적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85년도 한국궐립조사연구소의 조사결과(한국궐립조사연구소, 1985: 28)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그 조사에서도 성공요인으로써 능력(81.6%)이나 노력(74.3%)이 학력(21.5%)이나 신분(11.3%)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3순위 안에 드는 성공요인들을 살펴보면 <표 III-7>과 같다. 먼저 중국 청소년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요인들보다는 지식이나 학력이 성공과 관련있는 요인이라고 보면서 동시에 정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청소년의 경우는 한국 청소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 지식, 그리고 친구들을 많이 갖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미국 청소년들은 중국 청소년과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 학력과 정직성이 성공과 관련이 높다고 보면서 동시에 사교술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성공요인으로써의 학력에 대해서는 특히 차이가 많았는데, 미국(92.9%)과 중국(86.8%)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66.6%로 동의율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며 일본은 52.5%로 더욱 낮았다. 한국과 일본은 학력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로써 입시경쟁도 치열하고, 대학 진학율도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인데, 미국이나 중국의 청소년들 보다 오히려 학력을 성공요인이라고 보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학력에 대한 중압감이 워낙 높으니까 그것이 성공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게 체감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은 성공요인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나 마음자세 등 사회성을 중시하는 반면, 중국과 미국의 청소년들은 학력과 정직 등 개인적 조건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각국의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연줄, 경제력 등 개인의 노

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요인들은 성공과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7> 성공요인의 국가별 순위

(단위: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1순위	특기	지식	많은 친구	학력
	95.1	91.0	86.9	92.9
2순위	친절	학력	친절	사교술
	94.7	86.8	84.8	91.8
3순위	지식	정직	지식	정직
	90.6	84.2	84.4	90.9

## 6. 기타 관련요인

기타 관련요인으로 대중매체와 유행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았는데, 특기할 만한 결과로는 한국청소년 4명 중 3명이 TV에 나오는 것 중 좋은 것을 자신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무조건적으로 모방을 한다기 보다는 유행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TV에 나오는 모습에서 좋은 것을 나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한국은 75.6%, 미국은 63.1%, 일본은 54.1%, 중국은 32.5%로 각국 청소년들의 의식차가 매우 컸다. 한편 사회에서 비난받을 유행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77.1%, 일본은 71.0%, 중국은 61.9%, 미국은 58.4%로 자신의 판단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더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미국 청소년들의 비율이 낮았다. 또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항상 따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73.3%, 미국은 62.9%, 일본은 41.4%, 중국은 32.9%로 국가간의 의식차이가 매우 컸다.

## IV. 조사결과 분석

### 1. 인생관

#### 1) 인생목표

여기에서는 각국 청소년들의 삶에 있어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15문항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 (1) 문항별 분석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93.4%, 중국은 77.5%, 한국은 62.0%, 일본은 36.6%로 국가간 의식차이가 매우 컸다. 미국 청소년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고 있는 반면, 일본 청소년은 중시하지 않는 청소년이 훨씬 많았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65.1%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중국과 일본의 경우 남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미국 모두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미국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4국 모두 성적이 우수할수록 많이 동의하였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88.7%, 중국은 76.3%, 한국은 73.8%, 일본은 64.4%로 각국 청소년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이 더 많았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53.7%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중국, 일본, 미국의 경우 남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고, 미국의 경우 중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의 경우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평범한 사람으로 원만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평범한 사람으로 원만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92.3%, 중국은 88.3%, 일본은 87.6%, 한국은 74.2%로 이 문항 역시 각국 청소년들 모두 긍정적인 응답이 훨씬 많았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71.0%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일본과 미국의 경우 여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중학생이 일본의 경우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중국 모두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성적인 중간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동의하였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 미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중국은 89.7%, 미국은 88.6%, 한국은 76.6%, 일본은 62.2%로 각국 모두 동의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았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중국이 55.5%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16.5%에 그쳤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 남학생이 일본과 미국의 경우 여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의 경우 중학생이 일본과 미국의 경우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과 일본 모두 인문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 일본, 미국 모두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유명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한국> 중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유명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67.3%, 한국은 53.4%, 중국은 48.7%, 일본은 36.0%로 국가간 차이가 많았다.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들은 유명인이 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많았고, 중국은 반반, 일본은 오히려 적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32.6%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 여학생이 중국과 일본과 미국의 경우 남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 일본, 미국 모두 중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일본 모두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성적이 낮은 학생이, 중국의 경우는 성적이 높을수록, 미국의 경우 성적이 중간인 학생들이 더 많이 동의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자신의 취미나 흥미를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자신의 취미나 흥미를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한국은 96.9%, 미국은 94.9%, 일본은 93.3%, 중국은 91.5%로 각국 청소년 모두 큰 차이없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이 문항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미국이 70.7%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는 한국의 경우 남학생이 중국의 경우 여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과 일본과 미국 모두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과 일본과 미국 모두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자립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 > 일본 > 한국 > 미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자립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중국은 94.8%, 일본은 89.8%, 한국은 88.0%, 미국은 78.9%로 중국 청소년들의 자립심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기할 것은 동양인들에 비해 일찍 자립하는 미국 청소년들의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는 점이다. 이는 자립이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굳이 삶의 목표로 보기에겐 매력이 적다고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중국이 77.4%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일본과 미국 모두 여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일본 모두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중국 모두 인문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모두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그날 그날을 즐기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 일본 > 중국 > 한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그날 그날을 즐기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95.2%, 일본은 89.2%, 중국은 88.9%, 한국은 54.7%로 대부분 국가의 청소년들이 이에 관한 동의율이 매우 높았으나, 한국 청소년들은 동의가 반대보다 약간 많은 정도에 그쳐 의미있는 삶을 중시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77.7%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4국 모두 여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중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고, 미국의 경우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 중국 > 한국 >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84.6%, 중국은 80.5%, 한국은 74.9%, 일본은 69.2%로 나타났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44.5%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일본과 미국 모두 여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 모두 중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과 미국의 경우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공부를 좀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 중국 > 한국 >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공부를 좀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96.3%, 중국은 86.3%, 한국은

72.2%, 일본은 45.6%로 국가간 의식차이가 많았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이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다소 의외의 결과라 하겠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77.4%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4국 모두 여학생과 중학생이 그리고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과 일본 모두 인문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타인이 흉내낼 수 없는 특기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 한국 > 일본 >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타인이 흉내낼 수 없는 특기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92.0%, 한국은 79.3%, 일본은 69.5%, 중국은 63.0%로 미국 청소년의 대부분은 자신만의 독특한 특기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61.1%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중국의 경우 남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모두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일본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모두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공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 중국 > 한국 >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공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91.8%, 중국은 85.4%, 한국은 78.8%, 일본은 65.1%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것'에 대한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60.0%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일본과 미국 모두 여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은 중학생이 일본은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과 일본 모두 인문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과 일본과 미국 모두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4국 모두 남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 일본, 미국 모두 중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과학분야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 한국 > 미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과학분야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중국은 56.4%, 한국은 54.4%, 미국은 45.3%, 일본은 25.0%로 중국과 한국, 미국의 청소년들은 동의가 반대보다 조금 많거나 조금 적은 정도로 나타났으나, 일본은 동의가 현저하게 적게 나타났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중국이 27.4%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4국 모두 남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 일본, 미국 모두 중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일본 모두 인문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중국과 미국 모두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매력적인 이성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매력적인 이성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94.5%, 중국은 84.7%, 일본은 78.4%, 한국은 78.1%로 각국 청소년들 대부분이 이를 매우 중요한 목표로 생각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80.2%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한국과 일본은 남학생이, 일본과 미국은 여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4국 모두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미국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성적이 저조할수록, 미국의 경우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스포츠나 예술분야에서 명성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 한국 > 중국 >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스포츠나 예술분야에서 명성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62.7%, 한국은 56.7%, 중국은 46.1%, 일본은 45.3%로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들은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은 반면, 중국과 일본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더 많았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34.7%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미국과 일본 모두 남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미국의 경우 중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성적이 저조할수록, 중국의 경우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 (2) 종합분석

이상 삶의 목표에 대한 각국 청소년들의 의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국 모두 자신의 취미나 흥미를 즐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생각하는 경우가 3순위 안에 들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청소년들은 자립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각각 2순위 안에 들어 있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은 그날 그날을 즐기며 사는 것이 3순위 안에 들어 있다. 그 외 특

징적인 것은 한국의 경우 타인이 흉내낼 수 없는 특기를 갖는 것, 중국은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것이 높은 순위에 올라 있고, 미국은 공부를 좀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삶의 목표로 가장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 청소년의 경우 유명인이 되는 것이고, 중국은 스포츠나 예술분야에서 명성을 얻는 것이며, 일본과 미국은 과학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하는 것이다.

&lt;표 IV-1&gt; 인생목표

(단위 : %, (순위))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높은 사회적지위 갖는 것	62.0 (10)	77.5 (9)	36.7 (12)	94.9 (4)
부자가 되는 것	73.8 (8)	76.5 (10)	64.4 (9)	89.1 (8)
평범한 사람으로 원만한 가정을 꾸리는 것	74.3 (7)	88.6 (5)	87.8 (4)	92.5 (5)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것	76.6 (6)	89.9 (3)	62.4 (10)	89.1 (8)
유명인이 되는 것	53.5 (14)	48.8 (13)	36.0 (13)	67.8 (12)
자신의 취미 즐기는 것	96.9 (1)	91.5 (2)	93.2 (1)	95.0 (2)
자립하는 사람이 되는 것	88.2 (2)	94.8 (1)	89.9 (2)	79.3 (11)
그날 그날을 즐기며 사는 것	54.8 (12)	88.9 (4)	89.3 (3)	95.5 (1)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하는 것	70.5 (9)	80.6 (8)	69.4 (7)	84.8 (10)
타인이 흉내낼 수 없는 특기를 갖는 것	79.5 (3)	63.0 (12)	69.6 (6)	92.3 (6)
다른 사람을 위해 공헌하는 것	79.0 (4)	85.5 (6)	65.4 (8)	92.2 (7)
과학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하는 것	54.4 (13)	56.5 (13)	25.1 (14)	45.5 (14)
매력적인 이성을 찾는 것	78.2 (5)	84.8 (7)	78.6 (5)	95.0 (2)
스포츠나 예술분야에서 명성을 얻는 것	56.7 (11)	46.1 (14)	45.4 (11)	62.9 (13)

## 2) 생활태도

여기에서는 각국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6문항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수업 중에 수다떠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일본> 미국>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업 중에 수다떠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한국은 33.2%, 일본은 32.6%, 미국은 30.8%, 중국은 20.5%로 각국 청소년 모두가 이에 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한국의 청소년들은 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중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역시 중국이 38.2%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4국 모두 성적이 낮을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 일본, 미국 모두 남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중학생이, 중국의 경우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일본 모두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88.2%, 일본은 81.3%, 한국은 67.5%, 중국은 51.0%로 국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53.0%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 남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중국 모두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 일본, 미

국 모두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자원봉사는 위선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일본> 미국>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원봉사는 위선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한국은 29.1%, 일본은 25.6%, 미국은 20.4%, 중국은 18.0%로 각국 청소년들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최근들어 자원봉사가 강조되고 있는 한국의 청소년들 중 거의 3분의 1 정도의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위선적인 행위로 보고 있다는 것은 특기할 만 하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역시 중국이 51.3%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4국 모두 남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중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이, 일본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미국 모두 성적이 저조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주변 사람에게 협조하는 것은 처세의 요령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변 사람에게 협조하는 것은 처세의 요령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86.8%, 중국은 79.6%, 일본은 65.5%, 한국은 55.7%로 나타났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중국이 41.5%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한국과 미국 모두 남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과 일본 모두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일본 모두 인문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과 일본과 미국 모두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모든 사람과 함께라면 나쁜 일을 해도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든 사람과 함께라면 나쁜 일을 해도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46.0%, 한국은 36.6%, 일본은 23.5%, 중국은 21.7%로 각 국가의 청소년들 중 이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청소년들보다는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았다.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아 중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이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들보다 더 건전한 사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역시 중국이 43.2%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일본과 미국 모두 남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고, 미국은 중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중국 모두 인문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나쁜 행동을 했는데 나만 벌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나쁜 일을 했는데 나만 벌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79.6%, 한국은 77.6%, 일본은 74.4%, 중국은 44.6%로 미국, 한국, 일본의 청소년들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를 불공평하게 보고 있으나 중국의 청소년들은 불공평하지 않다고 보는 청소년들이 더 많았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52.4%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한국과 미국 모두 여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고등학생이, 미국은 중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

였다. 중국은 인문계 고등학생이, 미국은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 3) 자신의 특징

여기에서는 각국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10문항을 제시했는데, 선택방식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먼저 한국은 각 문항별로 동의정도를 알아보았고, 중국과 미국은 자신이 가진 특징 모두를 고르도록 했으며, 일본은 3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집계된 순위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특징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좋다는 것을 1순위로 꼽았고, 미국과 일본은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을 1순위로 꼽았다. 한편 한국은 많은 것에 의문과 관심을 가진다, 중국은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좋다는 것을 2순위로 꼽았다.

먼저 한국의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좋다는 데에 동의율(80.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많은 것에 의문과 관심을 가진다(70.4%),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다(69.3%)의 순이다. 한편 과학적으로 사고한다는 데에는 33.1%만이 동의해 이것을 자신의 특징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중국의 청소년들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좋다는 데에 동의율(70.5%)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다(53.4%)의 순이다. 한편 나만의 특기가 있다는 데에는 16.4%만이 동의해 이것을 자신의 특징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가장 적었다.

미국의 청소년들은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다는 데에 동의율(66.5%)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좋다(62.7%), 나만의 특기가 있다(51.1%)의 순이다. 한편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와 예술적인 특기가 있다는 데에는 각각 32.0%만이 동의해 이것을 자신의 특징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가장 적었다.

일본의 청소년들은 미국의 청소년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다는 데에 동의율(19.0%)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좋다(15.7%), 일을 잘 한다(12.2%)의 순이다. 한편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는 데에는 2.2%만이 동의해 이것을 자신의 특징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가장 적었다.

<표 IV-2> 자신의 특징

(단위 : %, (순위))

구분	한국	중국	미국	일본
	해당하는 것은 모두 선택			3개만 선택
다른 사람을 도움	80.2 (1)	70.5 (1)	62.7 (2)	15.7 (2)
지능지수가 높음	44.0 (8)	24.8 (9)	45.1 (6)	3.3 (9)
손해를 봐도 옳은 일	60.3 (4)	29.8 (6)	44.2 (7)	4.1 (8)
말을 잘 함	52.5 (5)	52.1 (3)	42.8 (8)	12.2 (3)
예술적 특기 있음	40.1 (9)	25.4 (8)	32.0 (9)	9.9 (5)
많은 것에 의문	70.4 (2)	42.2 (4)	46.5 (5)	11 (4)
운동신경이 좋음	49.6 (6)	40.9 (5)	47.5 (4)	9 (6)
누구와도 친해질	69.3 (3)	53.4 (2)	66.5 (1)	19 (1)
과학적으로 사고	33.1 (10)	29.0 (7)	32.0 (9)	2.2 (10)
나만의 특기가 있음	47.8 (7)	16.4 (10)	51.1 (3)	5.2 (7)

#### 4) 자신의 성격

여기에서는 각국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6문항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자신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은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은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68.8%, 일본은 63.9%, 한국은 63.4%, 중국은 56.9%로 모든 국가의 청소년들이 비슷한 응답경향을 보였고, 책임감이 강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48.6%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4국이 모두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동의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동의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실업고가 인문고 학생보다 더 많이 동의하였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일본> 중국> 미국> 한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일본은 89.0%, 중국은 72.9%, 미국은 44.4%, 한국은 38.8%로 한국 청소년들이 자신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일본이 49.1%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한국과 미국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동의하였고, 중국의 경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동의하였고 미국의 경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동의하였으며, 중국과 미국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동



의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동의하였다. 일본의 경우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86.9%, 중국은 72.4%, 한국은 63.7%, 일본은 56.2%로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일본 청소년들의 동의율이 가장 낮았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48.1%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동의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의 경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 일본, 미국의 경우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자신은 자기주장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은 자기주장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91.3%, 한국은 71.3%, 일본은 70.5%, 중국은 49.6%로 미국 청소년의 대다수는 자기주장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43.8%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중국의 경우 남학생이, 일본의 경우 여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중학생이, 일본의 경우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일본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 일본, 미국의 경우 성적이 우수할수

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일본> 중국> 미국> 한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일본은 93.0%, 중국은 92.2%, 미국은 90.8%, 한국은 89.6%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책임감이 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중국이 68.7%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일본과 미국의 경우 여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으며,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4국 모두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고립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생각을 지키고 싶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립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생각을 지키고 싶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91.9%, 중국은 80.5%, 한국은 77.1%, 일본은 72.1%로 이 문항 역시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일본 청소년들의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60.3%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남학생이 그리고 미국의 경우 여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중학생이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경우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중국 모두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과 미국 모두 성적이

우수할수록 많이 동의하였다.

## 2. 미래관

여기에서는 희망, 평화, 생활수준, 자유경쟁, 행복도, 화합, 과학진보의 영향, 학교생활, 병의 정복, 입시경쟁, 자유, 과로정도, 빈부차, 시골생활, 남녀평등, 능력, 부정부패, 공공질서, 범죄 및 비행, 종교심 등에 대한 21세기 사회의 전망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 1) 희망찬 사회

인류에게 21세기는 희망찬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 한국> 미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국 청소년들은 인류사회의 희망성에 대해서 낙관적이었으며, 대부분의 일본 청소년들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청소년들은 91.4%가, 한국의 청소년들은 67.2%가, 미국의 청소년들은 64.4%가, 일본은 39.3%가 인류에게 21세기는 희망찬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에 매우 동의하거나 동의하였다. 또한 중국의 청소년들의 55.3%가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한국은 13.4%, 미국은 8.0%, 일본은 6.5%의 청소년들이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중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 일본, 미국의 모두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 2) 평화로운 사회

세계 평화에 대한 예측은 중국, 한국, 미국, 일본의 순으로 낙관적으

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서 질문한 인류의 희망성 보다는 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청소년들은 75.2%, 한국의 청소년들은 45.7.2%, 미국은 35.6%, 일본의 청소년들은 32.4%가 21세기의 세계는 지금보다 더 평화로울 것이라는 것에 매우 동의하거나 동의하였다. 또한 중국의 청소년들의 32.1%가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한국은 8.3%, 미국은 4.8%, 일본은 5.4%의 청소년들이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21세기의 세계는 지금보다 더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 한국> 미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중국의 경우 여학생이, 미국의 경우 남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중국 모두 중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은 성적이 저조할수록, 중국과 일본은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 3) 풍요로운 사회

21세기의 국민생활은 지금보다 더 풍요로와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 한국> 미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생활의 풍요성 향상에 대한 예측은 중국, 한국, 미국, 일본의 순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청소년들은 85.1%, 한국의 청소년들은 65.1%, 미국은 52.1%, 일본의 청소년들은 31.8%가 '21세기에는 국민생활이 지금보다 더 풍요로와 질 것이다'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하거나 동의하였다. 또한 중국의 청소년들의 48.0%가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한국은 13.4%, 미국은 9.8%, 일본은 6.2%의 청소년들이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 여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의 경우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 4) 신뢰로운 사회

21세기에는 인간과 인간은 훨씬 신뢰있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 미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1세기의 인간관계의 신뢰성 향상에 대해서는 4국의 청소년 모두 그다지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중국의 청소년들은 48.8%, 미국의 청소년들은 43.7%, 한국의 청소년들은 26.8%, 일본의 청소년들은 24.8%가 '21세기에는 인간과 인간은 훨씬 신뢰 있는 관계가 될 것이다'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하거나 동의하였다. 한·중·일·미국의 청소년들은 21세기 인간관계의 신뢰성 회복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4국 모두 중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미국 모두 성적이 저조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 5) 질서있는 사회

21세기에는 지금보다 질서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 한국> 미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1세기에 지금보다 질서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하여 중국의 청소년 제일 낙관하고 있으며, 그 다음 한국, 미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청소년들은 76.7%, 한국의 청소년들은 42.4%, 미국

의 청소년들은 35.3%가, 일본의 청소년들은 28.1%가 '21세기에는 지금보다 질서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말에 매우 동의하거나 동의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남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 일본, 미국 모두 중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성적이 저조한 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 6) 규제가 적은 사회

21세기에는 지금보다 자유롭고 규제가 적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 한국> 일본> 미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규제 완화에 대한 21세기 전망에 대해서 중국의 청소년들이 제일 낙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한국, 일본,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청소년들은 63.8%가, 한국의 청소년들은 47.1%가, 일본의 청소년들은 30.8%가, 미국의 청소년들은 20.2%가 '21세기에는 지금보다 자유롭고 규제가 적은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하거나 동의하였다. 규제가 보다 많은 나라일수록 21세기에는 규제가 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 7) 자유경쟁 사회

21세기에는 지금보다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많아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 일본> 한국> 미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국의 청소년들은 92.6%가, 일본의 청소년들은 81.5%가, 한국의 청

소년들은 80.6%가, 미국은 52.2%가 '21세기에는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하거나 동의하였다. 또한 중국의 청소년들의 69.2%가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한국은 27.5%, 일본은 21.8%, 미국은 9.8%의 청소년들이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중국에서 자유경쟁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이미 자유 경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적게 예측이 나오는 것일 것이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한국, 일본, 미국 모두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일본 모두 인문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4국 모두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21세기에는 규제없는 자유로운 경쟁으로 인류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 미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 중국, 일본의 청소년들은 21세기에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에는 모두 8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보이는 반면, 자유로운 경쟁이 인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았다. 중국의 청소년들은 60.6%가, 한국의 청소년들은 35.0%가, 일본의 청소년들은 24.3%가, 미국의 청소년들은 55.6%가 '21세기에는 규제 없는 자유로운 경쟁으로 인류는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하거나 동의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한국, 중국, 미국 모두 중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은 실업계 고등학생이, 중국과 미국은 인문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은 성적이 저조할수록, 중국과 미국은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21세기에는 학습경쟁이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중국> 일국> 미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습경쟁 완화에 대한 21세기 전망에 대해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제일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65.6%, 중국의 청소년들은 38.6%, 일본의 청소년들은 37.1%, 미국의 청소년들은 32.5%가 '21세기에는 학습경쟁이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다'라는 말에 매우 동의하거나 동의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한국, 일본, 미국 모두 중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고, 성적이 저조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21세기에는 노력할 필요가 적게 되어 한가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가 시간에 대한 21세기 전망에 대해서는 4개국 청소년 모두 다소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그런 가운데도 한국의 청소년들이 제일 낙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41.2%, 미국의 청소년들은 31.3%, 일본의 청소년들은 21.2%, 중국의 청소년들은 13.6%가 '21세기에는 노력할 필요가 적게 되어 한가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하거나 동의하였다. 특히 중국의 청소년들은 21세기에는 더 한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적이었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일본과 미국 모두 중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미국의



경우 성적이 중간이 학생이 제일 많이 동의하였다.

## 8) 빈부차 감소

21세기에는 빈부차가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 미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빈부차 감소에 대한 21세기 전망에 대해서는 4개국 청소년 대부분 다소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그런 가운데도 중국의 청소년들이 제일 낙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미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청소년들은 42.1%가, 미국의 청소년들은 36.6%가, 일본의 청소년들은 22.6%가, 한국의 청소년들은 31.5%가 ‘21세기에는 빈부차가 적어질 것이다’라는 말에 매우 동의하거나 동의하였다.

중국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21세기 빈부차 감소에 대해서 제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4국 모두 중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성적이 저조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고, 미국의 경우 성적이 중간인 학생이 제일 많이 동의하였다.

## 9) 남녀평등 사회

21세기에는 남녀평등이 더 많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 한국> 미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녀평등에 대한 21세기 전망에 대해서 4개국 청소년들은 대체로 향

상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중국의 청소년들이 제일 낙관하고 있으며, 그 다음 한국, 미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청소년들은 88.2%가, 한국의 청소년들은 83.3%가, 미국의 청소년들은 77.3%가, 일본의 청소년들은 75.0%가 '21세기에는 남녀평등이 더 많이 실현될 것이다'라는 말에 매우 동의하거나 동의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 여학생이, 일본의 경우 남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고등학생이, 중국의 경우 중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일본 모두 인문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4국 모두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 10) 부정부패 감소

21세기에는 부정부패가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 > 한국 > 미국 >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1세기에 부정부패가 적어질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 4개국 청소년 대체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중국의 청소년들이 제일 낙관하고 있으며, 그 다음 한국, 미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다. '21세기에는 부정부패가 적어질 것이다'라는 말에 대하여 중국의 청소년들은 54.8%가, 한국의 청소년들은 42.4%가, 미국의 청소년들은 26.8%가, 일본의 청소년들은 15.8%가 매우 동의하거나 동의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한국, 일본, 미국 모두 남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4국 모두 중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일본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고, 성적이 저조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 11) 범죄나 비행 감소

21세기에는 범죄나 비행이 지금보다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 미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1세기에는 범죄나 비행이 지금보다 적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하여 4개국 청소년들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하였다. 그중 중국의 청소년 제일 낙관하고 있으며, 그 다음 미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청소년들은 55.5%, 미국의 청소년들은 34.7%, 한국의 청소년들은 26.3%가, 일본의 청소년들은 9.2%가 '21세기에는 범죄나 비행이 지금보다 적어질 것이다'라는 말에 매우 동의하거나 동의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일본의 경우 남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4국 모두 중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실업계 공동학생이. 중국과 미국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성적이 저조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고, 미국의 경우 성적이 중간인 학생이 제일 많이 동의하였다.

## 12) 능력 발휘

21세기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 한국> 미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1세기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 중국의 청소년들이 제일 낙관하고 있으며, 그 다음 한국, 미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청소년들은 86.4%, 한국의 청소년들은 84.2%, 미국의 청소년들은 80.0%, 일본의 청소년들은 56.4%가 '21세기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에 매우 동의하거나 동의하였다.

4개국 중 특히 일본의 청소년들이 사람들의 능력발휘에 대한 21세기 전망에 있어서 다른 3국에 비해 아주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 여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과 일본 모두 인문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중국과 일본 모두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 13) 과학의 진보

21세기에는 과학의 진보로 인류가 보다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 > 미국 > 한국 >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1세기에는 과학의 진보가 인류를 보다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국, 미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청소년들은 85.5%가, 미국의 청소년들은 70.7%가, 한국의 청소년들은 54.7%가, 일본의 청소년들은 40.5%가 '21세기에는 과학의 진보로 인류는 보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하거나 동의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일본과 미국 모두 남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4국 모두 중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고, 중국의 경우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 14) 난치병 정복

21세기의 난치병에 대한 정복 전망에 대해서는 4개국 청소년 대부분이 낙관하고 있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87.3%가, 중국의 청소년들은

86.1%가, 미국의 청소년들은 80.0%가, 일본의 청소년들은 74.8%가 '21세기에는 암과 같은 난치병이 정복될 것이다'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하거나 동의하였다. 이 문항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21세기 난치병 정복에 대해서 제일 낙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21세기에는 암과 같은 난치병이 정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 중국 > 미국 >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한국과 중국 모두 남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고등학생이, 중국의 경우 중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인문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4국 모두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 15) 종교의 중요성 증가

21세기에는 종교가 지금보다 중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 한국 > 중국 >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1세기에는 종교가 지금보다 중시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하여 미국의 청소년들은 47.4%가, 한국의 청소년들은 43.7%가, 중국의 청소년들은 39.7%가, 일본의 청소년들은 21.9%가 '21세기에는 종교가 지금보다 중시될 것이다'라는 말에 매우 동의하거나 동의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중국의 경우 여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고, 중국, 일본, 미국의 경우 중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일본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 16) 전원생활

21세기에는 도시보다 전원이 살기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 일본 > 미국 >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원 생활에 대한 21세기 전망에 대해서는 4개국 청소년 대부분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제일 낙관하고 있으며, 그 다음 일본, 미국, 중국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78.5%가, 일본의 청소년들은 72.4%가, 미국의 청소년들은 71.2%가, 중국의 청소년들은 68.8%가 '21세기에는 도시보다 전원이 살기 편해질 것이다'라는 말에 매우 동의하거나 동의하였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한국, 일본, 미국 모두 남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중국 모두 고등학교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인문계 고등학교생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성적이 중간인 학생이 제일 많이 동의하였고, 미국의 경우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동의하였다.

## 17) 종합분석

이상 미래관에 관한 각국 청소년들의 의식을 종합해 보면, 먼저 한국 청소년들은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다(80.6%) 라는 데 가장 동의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희망찬 사회가 될 것이다(67.2%),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65.1%)의 순이다. 그러나 신뢰있는 사회(26.8%), 범죄가 적은 사회(26.3%), 빈부차가 적은 사회(31.5%)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미국의 청소년들과 중국의 청소년들은 한국의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미국이 더욱 그랬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보다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가장

비관적인 미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청소년들의 미래관은 낙관적이라고도 비관적이라고도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미국청소년들이 가장 낙관적이고, 중국, 한국, 일본의 순이다. 사상초유의 호황을 누리는 미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낙관적이고, 그런대로 동양권에서는 사정이 나은 중국, 불황이 시작된지 얼마 안되는 한국, 장기간의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의 순서로 점점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청소년들의 미래관이 각국의 경제사정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IV-3> 21세기 사회에 대한 전망

(단위 :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희망찬 사회	67.2	91.4	39.3	64.4
평화로운 사회	45.7	75.2	32.4	35.6
풍요로운 사회	65.1	85.1	31.8	52.1
질서있는 사회	42.4	76.7	28.1	35.3
자유경쟁으로 행복	35.1	60.6	24.4	57.0
규제없는 사회	47.1	63.8	30.8	20.2
신뢰있는 사회	26.8	48.8	24.8	43.7
여가가 많은 사회	41.2	13.6	21.2	31.3
빈부차가 적은 사회	31.5	42.1	22.6	36.6
부정부패가 적은 사회	42.4	54.8	15.8	26.8
범죄가 적은 사회	26.3	55.5	9.2	34.7
종교가 중요한 사회	43.7	39.7	21.9	47.4
과학이 진보한 사회	54.7	85.5	40.5	70.7
자유경쟁 사회	80.6	92.6	81.5	52.2

변인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21세기가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었다. 성적이 우수할수록 대체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3. 학교관

#### 1) 학교생활의 의미

여기에서는 각국의 청소년들이 학습이나 학교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14문항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 (1) 문항별 분석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 미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중국은 96.6%, 미국은 88.1%, 한국은 78.2%, 일본은 73.1%로 전반적인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아 자녀들의 공부나 성적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청소년들의 생각은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보다 공부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보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 하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중국이 75.9%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보다 여자의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는 중국과 일본에서 중학생의 동의율이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계열별로는 일본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의



동의율이 실업계보다 높았다. 성적별로는 한국, 일본, 미국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는데, 성적이 낮을수록 동의율이 낮아 성적이 좋지 않을수록 공부 잘하는 것에 의미를 적게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과외교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 미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과외교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중국은 29.1%, 미국은 26.5%, 한국은 15.4%, 일본은 13.6%로 각국 청소년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학습을 보충하기 위한 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역시 일본이 39.4%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보다 여자의 동의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는 중국과 일본에서 중학생의 동의율이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계열별로는 한국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의 동의율이 실업계보다 높았다. 성적별로는 미국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동의율이 높았는데, 미국의 경우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일수록 과외교습의 부담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 전문적인 분야까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 전문적인 분야까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한국은 88.4%, 미국은 84.5%, 중국은 83.2%, 일본은 76.2%로 전반적인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 고등학교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없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인 것은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역작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한국이 45.5%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미국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보다 여자의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는 한국, 중국과 일본에서 중학생의 동의율이 고등학생보다 낮았다. 계열별로는 중국의 경우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동의율이 실업계보다 낮았으나, 일본은 인문계의 동의율이 실업계보다 높았다. 성적별로는 미국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동의율이 낮았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목표하는 대학의 수험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 중국 > 한국 >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목표하는 대학의 수험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미국은 89.1%, 중국은 83.2%, 한국은 59.4%, 일본은 55.1%로 나타나 이 역시 대학입시의 경쟁이 치열한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의 동의율이 낮게 나타났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62.4%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미국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보다 여자의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는 모든 나라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그 경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즉, 한국과 일본은 고등학생의 동의율이 더 높고, 중국과 미국은 중학생의 동의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계열별로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의 동의율이 실업계보다 높았다. 성적별로는 미국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동의율이 낮아 학업과 관련된 문항 모두에서 미국청소년들은 일관성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동아리활동에 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동아리활동에 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미국은 79.1%, 일본은 73.4%, 한국은 62.3%, 중국은 56.5%로 나타났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44.0%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응답은 실제 특별활동을 즐기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와 어느 정도 일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미국 62.7%, 중국 59.5%, 일본 43.4%, 한국 20.0%의 순으로 특별활동을 매우 즐기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 순위가 일치하고 있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보다 여자의 동의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는 일본의 경우 중학생의 동의율이 고등학생보다 낮았고, 나머지 나라는 반대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의 동의율이 실업계보다 높았다. 성적별로는 미국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동의율이 낮았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친구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일본> 미국> 중국> 한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친구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일본은 88.4%, 미국은 77.0%, 중국은 76.9%, 한국은 60.6%로 나타나 전통적으로 주변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는 일본의 청소년들이 역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고, 성공의 요인으로 사교술을 높이 평가했던 미국의 청소년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일본이 47.1%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교급별로는 모든 나라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한국, 중국, 일본에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고, 미국은 중학생의 동의율이 더 높았다. 계열별로는 한국과 미국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의 동의율이 실업계보다 높았다. 성적별로는 미국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동의율이 낮았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학교행사에 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 일본 > 한국 >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학교행사에 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미국은 85.9%, 일본은 68.6%, 한국은 66.9%, 중국은 58.2%로 나타났다. 미국은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학진학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중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45.8%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일본과 미국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보다 여자의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는 한국, 중국, 미국에서 중학생의 동의율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중국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의 동의율이 실업계보다 낮았다. 성적별로는 미국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동의율이 낮았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봉사활동에 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 한국 > 중국 >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봉사활동에 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미국은 71.3%, 한국은 70.8%, 중국은 65.7%, 일본은

58.5%로 봉사정신을 중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대학진학에도 반영되는 미국 청소년들의 동의율이 역시 가장 높았고, 몇 년 전부터 학생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시간이 기록되고 이것이 대학입시에서 고려되기 시작한 한국의 청소년들도 높은 동의율을 보여주고 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27.2%로 가장 높았다. 한편 실제 봉사활동을 해본 경험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88.1%, 미국은 87.4%, 중국은 81.9%, 일본은 49.0%의 순으로 봉사활동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경험율과 이를 중시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일본과 미국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보다 여자의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는 한국, 중국, 미국에서 중학생의 동의율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일본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의 동의율이 실업계보다 높았다. 성적별로는 일본과 미국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동의율이 낮았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특기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 미국 > 일본 >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특기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한국은 93.6%, 미국은 89.5%, 일본은 83.9%, 중국은 79.9%로 나타나 각국 청소년 모두 동의율이 높았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미국이 54.0%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교급별로는 중국과 일본에서 중학생의 동의율이 고등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중국의 경우 실업계의 동의율이 더 높았고, 미국에서는 인문계가 더 높았다. 성적별로는 중국과 미국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동의율이 낮았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학급의 반장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학급의 반장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미국은 66.8%, 중국은 46.7%, 일본은 22.6%, 한국은 20.8%로 미국의 청소년을 제외하고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일본이 21.8%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중국에서는 남자의 동의율이 더 낮았고, 일본에서는 여자의 동의율이 더 낮았다. 또한 교급별로는 중국에서 중학생의 동의율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중국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의 동의율이 실업계보다 낮았다. 성적별로는 모든 나라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모두 성적이 낮을수록 동의율이 낮았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친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일본> 미국>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친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한국은 97.3%, 일본은 93.3%, 미국은 90.3%, 중국은 89.7%로 각국 청소년들 모두 이 문항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교생활에서 친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경우는 동의하지 않는 청소년이 6.7%에 그쳐 이 문항에 대해 반대하는 청소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한국과 중국에서는 남자의 동의율이 더 높고, 미국에서는 여자의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고등학생의 동

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중국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의 동의율이 더 높으나 나머지는 반대로 나타났다. 성적별로는 한국, 일본, 미국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동의율이 낮았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일본> 미국>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한국은 93.1%, 일본은 85.5%, 미국은 81.6%, 중국은 67.5%로 모두 동의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다소 편차가 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한국이 47.6%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중국은 남자가 더 동의하고 일본과 미국은 여자가 더 동의하고 있다. 또한 교급별로는 한국과 일본에서 중학생의 동의율이 고등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도 한국과 일본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의 동의율이 실업계보다 더 높았다. 성적별로는 한국과 일본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동의율이 낮았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인생의 선배로서 훌륭한 교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 한국> 미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인생의 선배로서 훌륭한 교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중국은 89.0%, 한국은 83.8%, 미국은 81.7%, 일본은 59.0%이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중국이 55.9%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는 미국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여자의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는 한국과 일본에서 고등학생의 동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일본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의 동의율이 실업계보다 높았다. 성적별로는 한국과 일본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동의율이 낮았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애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 일본 > 한국 >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애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미국은 80.8%, 일본은 67.2%, 한국은 49.2%, 중국은 27.6%로 국가간 편차가 매우 심했다. 이러한 의식차이는 실제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실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미국이나 일본의 청소년들이 한국이나 중국의 청소년보다는 이성교제가 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56.8%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한국과 중국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는 중국과 일본에서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한국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의 동의율이 실업계보다 낮았다. 성적별로는 한국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동의율이 높았다.

## (2) 종합분석

이상 각국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이 갖는 의미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이 갖는 의미로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친구만들기'(97.3%)이고, 다음으로 특기개발(93.6%), 좋아하는 과목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88.4%) 등을 들고 있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봉사활동에 열중하기이다. 다른 학업 외 활동(동아리활동, 학교 행사)에 비해 봉사활동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학습의 반장이 되는 것(20.8%)에는 의미를 두고 있는 청소년이 별로 없었고, 목표하는 대학의 수험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59.4%)이나 애인을 만나는 것(49.2%)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1년도 한국청소년연구(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79-86)원의 조사에 따르면 66.7%의 청소년들이 '실제로 우리의 현실적 목표는 명문대 입학이다' 라고 응답하고 있어, 학교생활에서의 현실적 목표와 의미를 두는 것이 괴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도 '좋은 성적을 위해 친구타도는 어쩔 수 없다' 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67.1%가 부정적으로 응답해 친구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은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의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기성세대들의 기준에 의해 중시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의 의미로써 친구만들기와 특기개발은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에게도 대체로 높은 지지를 받은 항목들이다. 그러나 몇몇 항목들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생활의 의미를 목표하는 대학의 수험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에 두고 있는 청소년들이 한국(59.4%)과 일본(55.1%)에 비해 중국(83.2%)과 미국(89.1%)이 월등히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앞의 성공요인에서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이 중국과 미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학력을 덜 중시했던 것과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현실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애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었는데, 중국은 27.6%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한국은 49.2%, 일본 67.2%, 미국

80.8%의 순이다. 이것은 남녀공학의 비율이나 실제 청소년 이성교제의 실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4> 학교생활의 의미

(단위 : %, (순위))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공부를 잘 하는 것	78.2(5)	96.6(1)	73.1(5)	88.1(4)
선호과목의 전문적 공부	88.4(3)	83.2(4)	76.2(3)	84.5(6)
입시위주의 공부	59.4(9)	83.2(4)	55.1(10)	89.1(3)
동아리활동에 열중하기	62.3(8)	56.5(9)	73.4(4)	79.1(9)
학교행사 열중하기	66.9(7)	58.2(8)	68.6(6)	85.9(5)
봉사활동 열중하기	70.8(6)	65.7(7)	58.5(9)	71.3(10)
특기개발	93.6(2)	79.9(6)	83.9(2)	89.5(2)
학급의 반장되는 것	20.8(11)	46.7(10)	22.6(11)	66.8(11)
친구만들기	97.3(1)	89.7(2)	93.3(1)	90.3(1)
훌륭한 교사 만나는 것	83.8(4)	89.0(3)	59.0(8)	81.7(7)
애인을 만나는 것	49.2(10)	27.6(11)	67.2(7)	80.8(8)

또한 학급의 반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은 동의하는 청소년이 20%대에 그치고 있으나 중국은 46.7%, 미국은 66.8%로 매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청소년들이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이 항목의 지지율이 가장 낮다는 점에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청소년들은 제시된 모든 항목들에 대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봉사활동에 열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70.8%)과 미국

(71.3%)의 청소년들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지지하고 있고, 중국(65.7%)과 일본(58.5%)은 이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3순위에 드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 청소년들은 공부를 잘 하는 것에 가장 의미를 두고 있고, 친구만들기, 인생의 선배로써 훌륭한 교사를 만나는 것 등을 들고 있어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청소년의 경우는 한국 청소년과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친구만들기, 특기개발, 좋아하는 과목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의 순이다. 한편 미국 청소년들은 친구만들기와 특기개발, 목표하는 대학의 수험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 등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국의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학교생활에서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친구만들기에 더욱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누리고 있는 미국의 청소년들이 오히려 일본이나 한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공부나 입시에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 하다.

## 2) 학업의 유용성

여기에서는 각국의 청소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학교공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공부의 유용성과 관련된 10문항을 제시했는데, 선택방식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먼저 한국은 각 문항별로 동의정도를 알아보았고, 중국과 미국은 유용한 것 모두를 고르도록 했으며, 일본은 3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집계된 학교공부의 유용성 순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청소년들은 학교공부가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공부라는 데에 동의율(75.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입시에만 유용하다(58.3%), 자신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공부이다(49.8%)의 순이다. 한편 매우 재미있는 공부라는 데에는 16.2%만이 동의하고 있어 학교공부가 전혀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는 학교공부에 대해 한국, 중국, 일본은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공부라는 것을 1순위로 꼽았고, 미국은 입시에만 유용하다는 것을 1순위로 꼽았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입시에만 유용하다는 것을 2순위로, 중국과 미국은 장래에 직장을 잡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2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중국의 청소년들도 학교공부가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공부라는 점을 가장 많이 인정(70.9%)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장래에 직장을 잡는데 유용하다(67.1%), 자신의 특징을 살리는 공부이다(57.7%)의 순이다. 한편 중국의 청소년들도 매우 재미있는 공부라는 데에는 16.2%만이 동의하고 있어 학교공부가 전혀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5> 학교공부의 유용성

(단위 : %, (순위))

구분	한국	중국	미국	일본
	해당하는 것 모두 선택			3개선택
장래에 직장 잡는데 유용	48.3 (4)	67.1 (2)	32.7 (2)	37.0 (3)
입시에만 유용	58.3 (2)	30.1 (6)	54.6 (1)	47.4 (2)
자신의 특징 살리는 공부	27.5 (9)	57.7 (3)	12.5 (4)	22.6 (5)
사회일원의 기본적공부	75.8 (1)	70.9 (1)	7.1 (9)	48.1 (1)
성적순 나누기에 유용	47.6 (6)	9.0 (10)	8.9 (10)	9.6 (8)
매우 재미있는 공부	16.2 (10)	23.3 (8)	6.4 (5)	8.9 (9)
이해할 수 없는 공부	47.7 (5)	11.6 (9)	7.7 (8)	35.6 (4)
인격형성에 중요한 공부	49.8 (3)	55.6 (4)	10.2 (6)	14.9 (7)
특기를 개발하는데 유용	33.5 (8)	28.9 (7)	15.2 (3)	21.3 (6)
인간관계 좋게하는데 유용	42.8 (7)	39.4 (5)	10.6 (5)	6.8 (10)

미국의 청소년들은 학교공부가 입시에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4.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장래에 직장을 잡는데 유용하다(32.7%), 특기를 개발하는데 유용하다(15.2%)의 순이다. 한편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공부라는 데는 7.1% 만이 선택했다.

일본의 청소년들은 학교공부가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공부라는 데에 선택율(48.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입시에만 유용하다(47.4%), 장래 직장을 잡는데 유용하다(37.0%)의 순이다. 한편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6.8%에 그치고 있다.

#### 4. 직업관

여기에서는 장래의 목표에 대한 결정 여부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계획을 알아보았으며, 청소년들의 장래의 희망직업(한국의 경우는 부모의 자녀의 장래 직업에 대한 희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 1) 장래목표

자신의 장래 목표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결정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확실하게 결정했다는 청소년이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장래 목표를 확실하게 결정했다는 청소년은 미국(45.7%), 중국(30.9%), 한국(25.3%), 일본(20.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막연하지만 결정했다는 청소년은 중국(65.3%), 일본(58.7%), 한국(54.2%), 미국(48.8%)의 순이다. 따라서 확실하게 결정했다는 청소년과 막연하지만 결정했다는 청소년의 비율을 합쳐보면, 결정했다는 편에 속하는 청소년은 중국이 96.2%로 가장 높고, 다음이 미국이 94.7%, 일본이 79.6%, 한국이 79.5%의 순으로 이어진다. 한편 전혀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청소년은 미국(1.1%), 일본(1.1%), 한국(1.0%), 중국(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국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장래 목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고, 또한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장래 목표에 대해서 결정하고 있었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일본과 미국 모두 여학생이 목표를 더 많이 결정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고등학생이 더 많이 결정하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결정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미국 모두 성적이 우수할수록 더 많이 결정하고 있었다.

## 2) 진로계획

진로계획에 대해 알아본 결과, 진학예정인 청소년은 미국>한국>중국>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취직예정인 청소년은 일본>중국>한국>미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은 일본>한국>중국>미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진학할 계획인 청소년은 미국(82.4%), 한국(78.1%), 중국(77.6%), 일본(62.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취직할 계획인 청소년은 일본(17.3%), 중국(10.3%), 한국(8.4%), 미국(5.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결정을 하지 않은 청소년은 일본(18.3%), 한국(12.9%), 중국(10.0%), 미국(1.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학 계획인 청소년과 진로를 결정한 청소년은 미국이 가장 많았고, 취직 계획인 청소년과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은 일본이 제일 많았다.

## 3) 장래희망직업

한국의 청소년들은 28개의 직업군 선택 중에서 교사가 11.2%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이 첨단기술자(8.2%), 매체종사자(8.0%), 예술가(7.6%), 연예인(7.4%), 잘 모르겠다(6.1%), 기타(5.8%), 전문기술자(5.7%), 의사

(5.5%), 학자(5.3%), 회사경영자(4.4%), 경찰·군인(3.9%), 운동선수(3.4%), 회사원(3.3%), 공무원(3.3%), 간호사·약사(2.2%), 법조인(2.2%), 회사관리자(1.6%), 정치가(1.5%), 복지관계자(0.9%), 상점주인(0.9%), 숙련공(0.7%), 아르바이트(0.5%), 가정주부(0.4%), 영업사원(0.3%)였으며, 농업·어업·임업·광업 등은 0.1%로 선택하는 청소년이 2002명 중에서 2명이 있었다.

장래의 희망직업에 대해 한국의 청소년과 학부모는 교사를, 중국은 법조인을, 일본은 공무원을, 미국은 의사를 제일 많이 선택하였고, 한국의 청소년은 첨단 기술자를, 한국의 학부모는 공무원을, 중국은 농업·어업·임업·광업 등의 제1차산업을, 일본은 간호사·약사를, 미국은 법조인을 희망직업으로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한국 부모들의 희망으로 역시 교사가 17.6%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이 공무원(9.6%), 의사(9.2%), 법조인(9.2%), 간호사·약사(5.3%), 회사원(4.8%), 학자(4.6%), 경찰관·군인(4.1%), 첨단기술자(4.1%), 예술가(3.9%), 전문기술자(3.3%), 매체종사자(2.8%), 회사경영자(2.2%), 연예인(1.3%), 정치가(1.2%), 운동선수(1.1%), 회사관리자(0.9%), 상점주인(0.4%), 숙련공(0.3%), 영업사원(0.3%), 아르바이트(0.3%), 복지관계자(0.3%), 농업·어업·임업·광업 등은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일본청소년들의 희망은 공무원(17.3%)이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 간호사·약사(10.1%), 의사(9.2%), 복지관계자(7.8%), 예술가(7.3%), 운동선수(5.9%), 전문기술자(4.7%), 회사원(4.6%), 법조인(4.5%)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제 2희망으로는 공무원(7.8%), 전문기술자(6.2%), 회사원(5.7%), 운동선수(5.5%), 상점주인(5.0%), 예술가(4.3%), 복지관계자(4.2%), 아르바이트(4.1%), 간호사·약사(3.5%), 연예인(3.5%). 제 3희망으로는 전문기술자, 아르바이트, 상점주인, 회사원, 연예인, 경찰관·군인, 교사 순으로 답했다. 제 4희망은 연예인, 전문기술자, 교사, 아르바이트 순이다.

&lt;표 IV-6&gt; 장래희망

(단위 : %, (순위))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내희망 (1개선택)	부모희망 (1개선택)	내희망 (복수선택)	내희망 (제1희망)	내희망 (제1희망)
의사	5.5 (9)	9.2 (3)	35.6 (4)	9.2 (3)	30.4(1)
법조인	2.2 (16)	9.2 (3)	43.9 (1)	4.5(11)	14.3(2)
정치가	1.5 (19)	1.2 (17)	17.7(17)	1.7(17)	2.1(10)
간호사·약사	2.2 (16)	5.3 (6)	9.3 (21)	10.1 (2)	6.7 (5)
복지관계자	.9 (21)	.3 (20)	13.0(19)	7.8 (4)	4.3 (7)
공무원	3.3 (14)	9.6 (2)	19.8(15)	17.3 (1)	.6(16)
예술가	7.6 (4)	3.9 (12)	24.5(12)	7.3 (5)	13.8 (3)
운동선수	3.4 (13)	1.1 (17)	17.8(16)	5.9 (6)	8.0 (4)
첨단기술자	8.2 (2)	4.1 (10)	32.3 (5)	2.8(13)	5.7 (6)
학자	5.3 (10)	4.6 (8)	26.7(10)	.9 (21)	.3(19)
회사경영자	4.4 (11)	2.2 (15)	39.0 (3)	2.4(14)	1.3(13)
회사원	3.3 (14)	4.8 (7)	29.5 (8)	4.6(10)	.2(21)
회사관리자	1.6 (18)	.9 (19)	31.6 (6)	.1 (23)	1.5(12)
상점주인	.9 (20)	.4 (22)	12.4(20)	3.1(12)	1.7(11)
전문기술자	5.7 (7)	3.3 (13)	22.0(13)	4.7 (7)	.5(17)
경찰관·군인	3.9 (12)	4.1 (10)	30.6 (7)	1.1(19)	.7(14)
숙련공	.7 (22)	.3 (20)	20.7(14)	.1 (23)	.0(24)
영업사원	.3 (25)	.3 (20)	2.7 (25)	.1 (23)	.0(24)
아르바이트	.5 (23)	0 (25)	5.6 (23)	2.2(15)	.0(24)
가정주부	.4 (23)	.3 (24)	1.4 (26)	.4 (22)	.2(21)
교사	11.2 (1)	17.6 (1)	6.1 (22)	1.3(18)	.7(14)
연예인	7.4 (5)	1.3 (16)	26.9 (9)	1.8(16)	.5(17)
매체종사자	8.0 (3)	2.8 (14)	25.4(11)	1.0(20)	.3(19)
1차산업	.1 (26)	0 (25)	40.1 (2)	.1(23)	.2(21)
기타	5.7 (8)	4.7 (9)	5.5 (24)	4.7 (7)	2.2 (9)
잘모르겠다	6.1 (6)	8.4 (5)	15.4(18)	4.7 (7)	3.2 (8)



중국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직업을 모두 선택하라고 하였다. 그 결과, 법조인(43.9%)을 제일 많이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농업·어업·임업·광업 등(40.1%), 회사경영자(39.0%), 의사(35.6%)의 순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미국청소년 2021명중 2026명이 이 질문에 응답하였다. 미국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으로는 의사가 30.4%로 제 1희망으로 제일 많이 선택하였다. 두 번째가 법조인으로 14.3%가 제 1희망으로 선택하였다. 그 다음은 음악가(예술가)로 13.8%가 제 1희망으로 선택하였다. 그 다음은 프로 운동선수(8.0%), 의사 외의 의료인(6.7%), 첨단기술자(5.7%), 복지관계자(4.3%), 잘모르겠다(3.2%), 기타(2.2%), 정치가(2.1%), 상점주인(1.7%), 회사관리자(1.5%), 회사경영자(1.3%), 공무원(0.6%), 교사(0.7%, 15명), 경찰관·군인(0.7%, 14명), 연예인(0.5%), 전문기술자(0.5%), 학자(0.3%), 매체 종사자(0.3%), 회사원(0.2%), 가정주부(0.2%), 숙련공(1명), 영업사원(0명), 아르바이트(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제 2희망으로 많이 선택된 직업을 보면 법조인(13.2%), 간호사·약사(10.7%), 복지관계자(4.5%), 예술가(7.8%), 운동선수(10.1%), 첨단기술자(7.5%), 회사관리자(5.1%), 상점주인(5.8%),

제 3희망으로 많이 선택된 직업을 보면 간호사·약사(6.3%), 예술가(6.6%), 운동선수(6.9%), 첨단기술자(6.9%), 학자(6.0%), 회사관리자(6.9%), 상점주인(8.8%), 교사(3.6%), 연예인(4.5%)이었다. 제 4, 5희망으로는 회사관리자와 상점주인이, 제 6희망으로는 회사관리자와 교사와 상점주인을 많이 선택하였다.

## 5. 성공관

### 1) 성공을 위한 노력

여기에서는 각국 청소년들의 성공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3종류의 사

향을 알아보았다. 먼저 성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지 짐작해 보기 위해 수면시간을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노력하면서 살고 싶은지를 알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성공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5문항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수업이 있는 날 일본 청소년들이 가장 적게 자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한국, 중국, 미국 순으로 적게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이나 직업을 위해 매우 노력하면서 살겠다는 청소년은 일본>중국>한국>미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노력하면서 살려는 청소년일수록 잠을 적게 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국 청소년들의 수면시간 중 가장 많은 청소년이 분포하는 시간대는 한국(30.9%), 중국(35.8%), 일본(32.9%)의 경우 7시간이고, 미국(33.1%)은 8시간이다. 8시간 이상 수면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60.1%, 중국 47.5%, 한국 33.2%, 일본 20.9%의 순이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중국과 일본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적게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는 모든 나라에서 고등학생이 더 적게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한국과 중국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이 더 적게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는 수면시간의 차이가 없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이나 직업을 위해 노력하면서 살고 싶은지 아니면 자신의 취미나 흥미를 즐기고 싶은지를 알아본 결과, 매우 노력하면서 살겠다는 청소년의 비율은 일본>중국>한국>미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노력하면서 살겠다는 청소년은 일본(54.2%), 중국(46.6%), 한국(36.3%), 미국(8.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적절히 노력하면서 살겠다는 청소년은 미국(83.1%), 한국(54.1%), 중국

(34.9%), 일본(30.5%)의 순이다. 따라서 매우 노력하겠다는 청소년과 적절히 노력하면서 살겠다는 청소년의 비율을 합쳐보면, 노력하겠다는 편에 속하는 청소년은 미국이 91.4%로 가장 높고, 다음이 한국이 90.4%, 일본이 84.7%, 중국이 81.5%의 순으로 이어진다. 한편 취미만을 즐기겠다는 청소년은 각국이 공통적으로 거의 없었으나 노력보다는 취미를 즐기겠다는 응답은 중국(16.1%), 일본(13.6%), 한국(9.2%), 미국(6.8%)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국의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 성공이나 직업을 위해 노력하면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 매우 노력하면서 살겠다는 청소년은 일본이 가장 많고, 적절하게 노력하면서 살겠다는 청소년은 미국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한국과 미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는 일본의 경우 고등학생이 더 노력하겠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중학생이 더 노력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중국과 일본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이 더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성적별로는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성적이 좋을수록 더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를 생각하기 보다 지금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일본> 미국> 한국>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래를 생각하기 보다 지금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일본은 66.5%, 미국은 63.9%, 한국은 31.7%, 중국은 25.4%로 일본과 미국의 청소년들은 미래 보다는 현실을 즐기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일본이 28.7%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일본에서는 여자, 미국에서는 남자가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는 중국은 고등학생, 나머지는 중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한국과 일본에서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다. 성적별로는 모든 나라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더 동의하고 있다.

너무 일이나 공부만 하는 것은 따분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너무 일이나 공부만 하는 것은 따분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한국은 79.6%, 미국은 71.6%, 일본은 57.5%, 중국은 38.6%로 국가간 의식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한국이 34.5%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한국, 중국, 미국에서 남자가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는 한국이 중국에서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성적별로는 모든 나라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더 동의하고 있다.

장래의 성공은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래의 성공은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한국은 90.4%, 중국은 88.6%, 미국은 87.3%, 일본은 79.2%로 대부분의 청소년이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어 한국 청소년들의 동의율이 가장 높았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중국이 57.5%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한국과 미국에서 여자가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는 중국에서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중국에서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다. 성적별로는 모든 나라에서 성적이 높을수록 더 동의하고 있다.

장래의 일은 지금 생각해 봐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래의 일은 지금 생각해 봐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중국은 34.4%, 미국은 28.4%, 일본은 21.6%, 한국은 13.6%로 각국 청소년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청소년들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미국이 41.1%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모든 나라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자보다 남자가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는 한국, 일본, 미국에서 중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일본에서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다. 성적별로는 모든 나라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더 동의하고 있다.

자신이 미래에 대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미래에 대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92.9%, 중국은 90.1%, 한국은 87.0%, 일본은 78.9%로 각국 청소년 모두 대다수가 미래에 대해 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청소년들이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70.4%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중국에서는 남자, 일본과 미국에서는 여자가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는 한국에서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일본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다. 성적별로는 모든 나라에서 성적이 높을수록 더 동의하고 있다.

이상 5문항의 변인별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향은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장래를 위한 노력을 중시하고, 꿈도 가지고 있으나, 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장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며 살고자 함을 알 수 있다.

## 2) 성공의 의미

여기에서는 각국의 청소년들이 성공의 의미에 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8문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그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 (1) 문항별 분석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일본> 미국> 중국> 한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일본은 63.9%, 미국은 35.5%, 중국은 32.0%, 한국은 29.9%로 일본은 동의하는 응답이 반대하는 응답보다 현저하게 많은 반면, 나머지 나라들은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특히 우

리 나라는 동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일본이 19.4%로 가장 높았다. 이 문항에 대해 이와 같이 일본 청소년들의 동의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상명하복을 중시여기는 일본의 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한국, 일본, 미국에서는 남자가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는 모든 나라에서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 성적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권력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일본> 중국, 한국> 미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권력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일본은 50.8%, 중국과 한국은 각각 30.8%, 미국은 27.7%로 일본은 동의와 반대가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고, 나머지 나라들은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특히 미국은 동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도 일본이 16.6%로 가장 높았다. 이 문항 역시 일본 청소년의 동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앞의 문항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한국, 중국, 미국에서는 남자가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는 모든 나라에서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는 한국에서 성적이 나쁠수록 더 동의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한국은 36.7%, 미국은 31.7%, 일본은 26.4%, 중국은 12.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동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일본이 12.9%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교급별로는 한국에서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한국에서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다. 성적별로는 미국에서 성적이 나쁠수록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책임이 무거워진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책임이 무거워진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한국은 87.1%, 미국은 79.6%, 일본은 71.5%, 중국은 26.6%로 나타나 한국과 미국, 일본의 청소년들은 동의하는 청소년들이 반대하는 청소년보다 훨씬 많았으나, 중국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미국이 43.86%로 가장 높았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책임도 무거워져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인 면에서 볼 때 보편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각국의 청소년들이 이에 대해 높은 동의율을 보인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나, 중국 청소년의 경우만 전혀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 한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중국과 일본에서는 여자가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는 한국에서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성적별로는 한국과 미국에서 성적이 좋을수록 더 동



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한국은 83.1%, 미국은 72.1%, 일본은 54.1%, 중국은 14.6%로 한국과 미국의 청소년들은 동의하는 청소년이 훨씬 많았고, 일본은 동의와 반대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동의하는 청소년이 매우 적었다. 매우 동의하는 비율은 미국이 32.8%로 가장 높았다.

이 문항에 대해 이와 같이 중국 청소년의 동의율이 낮은 것은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함에 있어 개인의 노력 이전에 출신성분이 중시되고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한국에서는 여자가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는 한국의 경우 고등학생, 일본의 경우는 중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성적별로는 미국에서 성적이 좋을수록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자기의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일본> 미국>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자기의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한국은 63.2%, 일본은 63.1%, 미국은 43.6%, 중국은 24.7%로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은 동의하는 청소년이 더 많았고, 미국은 동의가 반대보다 조금 적었으며, 중국은 동의하는 청소년이 매우 적었다. 매우 동의하는 비율은 일본이 25.4%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

난 것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생활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시간조절이 어느 정도 개인의 선택에 의해 좌우될 수 있고, 중국의 경우는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시간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교급 뿐인데, 일본의 경우 중학생, 미국의 경우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게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일본> 미국> 한국>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게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일본은 54.6%, 미국은 49.1%, 한국은 39.1%, 중국은 28.0%로 일본 청소년들의 동의율이 가장 높았다.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도 일본이 26.0%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한국과 미국에서는 남자가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는 한국과 중국에서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한국에서 실업계가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일본> 한국> 중국> 미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일본은 71.9%, 한국은 49.3%, 중국은 28.8%, 미국은 27.6%로 각 나라마다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일본 청소년은 3분의 2가 동의하고 있는 반면, 한

국은 동의와 반대가 반반 정도, 중국과 미국은 3분의 1 정도만이 동의하고 있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중국과 미국에서는 남자가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는 한국, 중국, 미국에서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중국의 경우 실업계, 미국은 인문계로 동의율이 더 높았다. 성적별로는 일본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학생 집단이 가장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종합분석

이상 성공의 의미에 관한 각국 청소년들의 의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희생이 있어야 하고, 또한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책임이 무거워질 뿐 아니라 자기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 성공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 청소년들은 모든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부자가 된다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았다.

일본 청소년들은 부자가 된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고, 다음으로는 책임이 무거워지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희생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며, 또한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책임이 무거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 성공에 따르는 책임과 함께 성공에 이르는 과정의 어려움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t;표 IV-7&gt;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의 의미

(단위 : %, (순위))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타인이 시키는 일 안함	29.9 (8)	32.0 (2)	64.2 (3)	36.0 (5)
권력있게 되고 타인지배	30.8 (7)	30.8 (3)	51.1 (7)	28.1 (6)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음	36.8 (6)	12.2 (1)	37.6 (8)	32.4 (8)
책임이 무거워짐	87.2 (1)	26.6 (6)	71.7 (2)	80.8 (1)
많은 자기희생을 해야 함	83.3 (2)	14.6 (8)	54.4 (6)	73.3 (2)
자신의 시간이 없음	63.2 (3)	24.7 (7)	63.4 (4)	44.3 (4)
타인에게 고개 숙여야 함	39.1 (5)	28.0 (5)	54.6 (5)	50.6 (3)
부자가 됨	49.3 (4)	28.8 (4)	72.0 (1)	28.1 (6)

### 3) 성공의 요인

여기에서는 각국의 청소년들이 성공의 요인에 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성공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17문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그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 (1) 문항별분석

타고난 IQ가 높은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타고난 IQ가 높은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미국은 78.0%, 일본은 49.1%, 중국은 43.7%, 한국은 29.9%로 미국은 동의하는 응답이 반대하는 응답보다 현저하게 많았고, 일본과 중국은 동의와 반

대가 절반 정도씩이며, 한국은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31.3%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한국과 중국에서는 남자가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는 중국, 일본에서는 고등학생, 미국에서는 중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성적별로는 일본과 미국에서 성적이 좋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술이 좋은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교술이 좋은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미국은 91.5%, 한국은 80.9%, 일본은 68.3%, 중국은 46.5%로 미국 청소년은 절대 다수가 이 요인에 대해 동의하고 있고, 한국 청소년들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나 중국은 상대적으로 동의율이 가장 낮았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55.1%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교급별로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고등학생, 미국에서는 중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한국과 일본에서 인문계가 더 동의하고 있고, 성적별로는 한국, 일본과 미국에서 성적이 좋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할 태도를 갖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일본> 미국 >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할 태도를 갖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한국은 94.7%, 일본은 84.8%, 미국은 84.5%, 중

국은 71.6%로 각국의 청소년 모두가 이 문항을 성공의 중요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절대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고,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한국이 45.3%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일본과 미국에서 여자가 더 동의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일본의 경우 고등학생, 미국의 경우는 중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한국에서 인문계가 더 동의하고 있고, 성적별로는 한국, 일본과 미국에서 성적이 좋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을 넓히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 한국> 미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식을 넓히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중국은 90.6%, 한국은 90.5%, 미국은 87.8%, 일본은 84.0%로 각국의 청소년 모두가 이 문항도 성공의 중요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절대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고,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중국이 61.6%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여자가 더 동의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한국, 일본에서는 고등학생, 미국에서는 중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일본에서 인문계가 더 동의하고 있고, 성적별로는 모든 나라에서 성적이 좋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에게 아침하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관에게 아침하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미

국은 45.1%, 일본은 31.2%, 중국은 26.9%, 한국은 16.5%로 각국의 청소년 모두 동의하는 비율보다는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상관에 아첨하는 것은 성공과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은 거의 대다수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모든 나라에서 남자가 더 동의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한국에서는 고등학생, 미국에서는 중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성적별로는 한국과 중국, 미국에서 성적이 나쁠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한국은 95.1%, 미국은 84.5%, 일본은 80.2%, 중국은 79.9%로 각국 청소년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문항을 성공의 중요요인으로 꼽고 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한국이 45.8%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미국에서 남자가 더 동의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중국과 일본에서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인문계, 중국의 경우는 실업계가 더 동의하고 있고, 성적별로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성적이 좋을수록, 미국에서는 중간성적을 가진 청소년들이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한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한국> 중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직한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미국은 89.7%, 한국은 86.0%, 중국은 84.2%, 일본은 67.4%로 이 문항도 대체로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64.3%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일본과 미국에서 여자가 더 동의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우 중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실업계가 더 동의하고 있고, 성적별로는 일본의 경우는 중간성적, 미국에서는 성적이 좋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술선해서 하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 일본> 한국> 미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든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술선해서 하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중국은 83.0%, 일본은 77.5%, 한국은 76.5%, 미국은 73.6%로 이 문항은 각국이 큰 차이 없이 대체로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특기할 만한 것은 다른 문항들과 달리 중국 청소년들의 동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중국이 44.7%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중국과 일본에서 여자가 더 동의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중국에서 중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성적별로는 중국과 일본에서 성적이 좋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머감각이 있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머감각이 있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미국



은 88.3%, 일본은 80.4%, 한국은 79.3%, 중국은 68.8%로 이 문항도 대체로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특히 유머감각을 중시하는 서구인들의 의식을 반영하듯이 미국 청소년들의 동의율이 가장 높았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53.9%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일본의 경우 여자, 미국에서는 남자가 더 동의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중국의 경우 중학생, 일본의 경우는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성적별로는 중국, 일본과 미국에서 성적이 좋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을 많이 갖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일본> 한국> 미국>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친구들을 많이 갖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일본은 86.7%, 한국은 85.4%, 미국은 76.0%, 중국은 73.3%로 이 문항도 대체로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친구관계가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비율이 더 높았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일본이 45.8%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한국, 일본과 미국에서 남자가 더 동의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고등학생, 미국의 경우는 중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한국과 일본에서 인문계가 더 동의하고 있고, 성적별로는 한국, 일본에서 성적이 좋을수록 더 동의하고 있다.

좋은 학력을 갖고 있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좋은 학력을 갖고 있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미국은 92.3%, 중국은 86.8%, 한국은 66.5%, 일본은 52.3%로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청소년들이 반대하는 청소년보다 많았으나 국가간에 동의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았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는 절대 다수가 이 문항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절반을 좀 넘거나 절반 정도만이 찬성하고 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67.5%로 가장 높았다. 평소 한국과 일본의 경우 학력주의의 병폐가 심각한 나라로 인식되어 있는 점을 생각할 때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이 미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좋은 학력과 성공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미국에서 여자가 더 동의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한국의 경우 고등학생, 미국의 경우는 중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한국에서 인문계, 중국에서 실업계가 더 동의하고 있고, 성적별로는 중국은 중간성적, 나머지는 성적이 좋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사람과 우연히 알게 될 기회를 갖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일본 > 중국 > 미국 > 한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좋은 사람과 우연히 알게 될 기회를 갖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일본은 77.1%, 중국은 65.9%, 미국은 65.5%, 한국은 61.1%로 이 문항도 전체적으로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35.9%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한국과 미국에서 남자가 더 동의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고등학생, 중국과 미국의 경우는 중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일본에서 인문계가 더 동의하고 있고, 성적별로도

일본에서 성적이 좋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미국은 44.6%, 중국은 38.7%, 한국은 35.8%, 일본은 34.3%로 이 문항에 대해서는 각국 청소년들 모두 부정적인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일본이 25.4%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일본과 미국에서 여자가 더 동의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 고등학생, 미국의 경우는 중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성적별로는 미국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한 연줄을 갖고 있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리한 연줄을 갖고 있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미국은 60.9%, 한국은 38.2%, 일본은 36.1%, 중국은 31.7%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의 청소년들은 이 문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같은 서구 사회보다는 동양에서 실제 연줄이 많은 작용을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청소년들의 의식은 이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특기할 만 하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25.2%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는 한국, 일본과 미국에서 남자가 더 동의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미국의 경우 중학생, 나머지 나라는 모두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성적별로는 미국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인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자인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미국은 55.2%, 한국은 39.9%, 일본은 36.9%, 중국은 32.0%로 미국만 동의하는 청소년이 반대한 청소년보다 조금 많고, 나머지 국가는 동의하는 청소년이 반대하는 청소년보다 훨씬 적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역시 중국이 30.3%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일본과 미국에서 남자가 더 동의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미국의 경우 중학생, 나머지 나라는 모두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성적별로는 한국과 미국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 및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 일본> 미국> 한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 및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중국은 79.9%, 일본은 60.2%, 미국은 55.1%, 한국은 53.5%로 모든 국가가 동의하는 편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중국의 동의율이 가장 높았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중국이 43.3%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일본에서는 여자, 미국에서는 남자가 더 동의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한

국과 일본, 미국에서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성적별로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성적이 좋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중요시하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 일본 > 미국 >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중요시하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한국은 91.9%, 일본은 86.8%, 미국은 86.7%, 중국은 82.5%로 각국 고르게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일본이 49.1%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일본과 미국에서 남자가 더 동의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중국의 경우 중학생, 일본의 경우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일본과 미국에서 실업계가 더 동의하고 있고, 성적별로는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종합분석

이상 성공의 요인에 관한 각국 청소년들의 의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청소년들은 성공의 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특기'(95.1%)이고, 다음으로 친절(94.7%), 지식(90.6%) 등을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직(86.0%), 친구가 많은 것(85.5%), 사교술(81.0%), 유머감각(79.4%), 남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에 추천하는 것(76.5%), 학력(66.6%), 자신에게 엄격함(53.5%) 등에 대해 성공의 요인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면에 상관에게 아침하는 것에 대해서는 16.5%만이 동의해 성공요인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매우 적었고, 부모의 사회적 지

위(35.8%), 연줄(38.2%), 재력(39.9%), IQ(44.1%) 등에 대해서도 성공요인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 보다 적었다.

따라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성공요인으로써 개인적인 능력이나 좋은 성품 등을 중시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볼 때 후천적으로 노력 가능한 요인들을 성공의 요인으로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하는 부모의 능력이나 IQ 등은 성공의 요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상관에 대한 아첨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하고 있지 않아 성공이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고 또한 정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85년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조사결과(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5: 28)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그 조사에서도 성공요인으로써 능력(81.6%)이나 노력(74.3%)이 학력(21.5%)이나 신분(11.3%)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요인으로서의 특기나 친절, 지식 등은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에게도 대체로 높은 지지를 받은 항목들이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 등은 대체로 지지율이 낮았다. 그러나 몇몇 항목들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공요인으로서의 학력에 대해서는 특히 차이가 많았는데, 미국(92.9%)과 중국(86.8%)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66.6%로 동의율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며 일본은 52.5%로 더욱 낮았다. 한국과 일본은 학력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로써 입시경쟁도 치열하고, 대학 진학율도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인데, 미국이나 중국의 청소년들 보다 오히려 학력을 성공요인이라고 보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학력에 대한 중압감이 워낙 높으니깐 그것이 성공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게 체감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사교술에 관해서는 미국은 91.8%로 거의 대다수가 중시하고 있으나 중국은 46.5% 만이 성공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도 IQ에 대해서

는 한국, 중국, 일본의 청소년들은 동의하는 비율이 40%대로 거의 차이없이 부정적이거나 미국의 청소년들은 78.6%로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표 IV-8> 성공요인

(단위 : %, (순위))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IQ	44.1 (11)	43.7 (11)	49.2 (11)	78.6 (8)
사교술	81.0 (6)	46.5 (10)	68.6 (7)	91.8 (2)
친절	94.7 (2)	71.8 (8)	84.8 (2)	85.7 (7)
지식	90.6 (3)	91.0 (1)	84.4 (3)	88.5 (5)
상관에게 아침	16.5 (15)	27.1 (15)	31.3 (15)	45.8 (14)
특기	95.1 (1)	80.1 (5)	80.4 (5)	86.0 (6)
정직	86.0 (4)	84.2 (3)	67.5 (8)	90.9 (3)
술선수법	76.5 (8)	83.0 (4)	77.8 (6)	74.2 (10)
유머감각	79.4 (7)	68.8 (9)	80.7 (4)	88.8 (4)
많은 친구	85.5 (5)	73.4 (7)	86.9 (1)	76.7 (9)
학력	66.6 (9)	86.8 (2)	52.5 (10)	92.9 (1)
부모의 사회적 지위	35.8 (14)	38.7 (12)	34.3 (14)	44.6 (15)
연줄	38.2 (13)	31.7 (14)	36.1 (13)	60.9 (11)
재력	39.9 (12)	32.0 (13)	36.9 (12)	55.2 (12)
자신에게 엄격함	53.5 (10)	79.9 (6)	60.2 (9)	55.1 (13)

또한 연줄에 대해서도 한국, 중국, 일본 모두 30%대로 거의 차이없이 부정적이거나 미국은 60.9%로 동의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다. 이를 종합해 보

면, 전반적으로 동양 3국에 비해 미국청소년들의 의식이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매 항목에 대해 동양 3국의 청소년들보다 미국의 청소년들이 동의율이 높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미국의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성공에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국가별로 3순위에 드는 성공요인들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먼저 중국 청소년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요인들보다는 지식이나 학력이 성공과 관련있는 요인이라고 보면서 동시에 정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청소년의 경우는 한국 청소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 지식, 그리고 친구들을 많이 갖는 것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미국 청소년들은 중국 청소년과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 학력과 정직성이 성공과 관련이 높다고 보면서 동시에 사교술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은 성공요인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나 마음자세 등 사회성을 중시하는 반면, 중국과 미국의 청소년들은 학력과 정직 등 개인적 조건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각국의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연줄, 경제력 등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요인들은 성공과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기타 관련요인

### 1) 대중매체에 대한 의식

여기에서는 각국의 청소년들이 대중매체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매체와 관련된 5문항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TV에 나오는 것은 가공세계의 것으로 현실생활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일본> 중국> 한국> 미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TV에 나오는 것은 가공세계의 것으로 현실생활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일본 78.4%, 중국 67.2%, 한국 64.1%, 미국 59.1%로 동의하는 청소년들이 반대하는 청소년보다 많았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많았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일본이 32.6%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한국에서 남자가 더 동의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한국과 일본에서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성적별로는 한국에서 성적이 좋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에 나오는 모습에서 좋은 것을 나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TV에 나오는 모습에서 좋은 것을 나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한국은 75.6%, 미국은 63.1%, 일본은 54.1%, 중국은 32.5%로 각국 청소년들의 의식차가 매우 컸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한국이 28.4%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중국과 일본, 미국에서 여자가 더 동의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한국과 중국에서 고등학생, 미국에서 중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으며, 성적별로는 한국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더 동의하고 있다.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83.0%, 한국은 75.6%, 일본은 65.3%, 중국은 55.4%로 나타나 의식차이가 컴퓨터 보급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42.5%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한국과 중국에서 남자가 더 동의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중국에서 고등학생, 일본과 미국에서는 중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성적별로는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성적이 좋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애를 주제로 한 TV 드라마를 좋아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일본> 미국>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애를 주제로 한 TV 드라마를 좋아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한국은 66.9%, 일본은 64.5%, 미국은 48.2%, 중국은 32.4%로 국가간 의식차가 컸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일본이 30.4%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모든 나라에서 여자가 더 동의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중국과 일본에서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한국에서 실업계가 더 동의하고 있고, 성적별로도 한국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폭력, 약물, 매춘 등의 행동은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폭력, 약물, 매춘 등의 행동은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68.8%, 일본은 63.9%, 한국은 63.4%, 중국은 56.9%로 국가별로 의식차이가 거의 없이 동의하는 청소년

들이 반대하는 청소년들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중국이 26.8%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일본에서 여자가 더 동의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한국과 일본에서 인문계가 더 동의하고 있고, 성적별로는 모든 나라에서 성적이 좋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유행에 대한 의식

여기에서는 각국의 청소년들이 대중매체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매체와 관련된 5문항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사회에서 비난받을 유행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 일본 > 중국 > 미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에서 비난받을 유행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한국은 77.1%, 일본은 71.0%, 중국은 61.9%, 미국은 58.4%로 자신의 판단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더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미국 청소년들의 비율이 낮았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중국이 23.0%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일본과 미국에서 여자가 더 동의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고등학생, 미국은 중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성적별로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성적이 좋을수록, 미국에서는 성적이 낮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이 좋은가 나쁜가 보다 그것에 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한국> 중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행이 좋은가 나쁜가 보다 그것에 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49.1%, 한국은 39.0%, 중국은 33.8%, 일본은 27.7%로 나타나 무조건적으로 유행을 따르는데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 일본 청소년들의 동의율이 가장 낮은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인데, 왜냐하면 일본의 청소년들은 통상적으로 유행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16.4%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남자, 미국에서는 여자가 더 동의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중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한국에서 실업계가 더 동의하고 있고, 성적별로는 한국과 미국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에 따르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행에 따르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72.6%, 일본은 46.1%, 중국은 41.1%, 한국은 32.2%로 대부분 이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편이나 미국 청소년들은 거의 생각해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27.6%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한국에서 남자, 미국에서는 여자가 더 동의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한국

과 미국에서 중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한국과 일본에서 실업계가 더 동의하고 있고, 성적별로는 한국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맘에 들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도 하지 않는다는 청소년의 비율은 미국> 한국> 중국>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맘에 들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미국은 82.2%, 한국은 72.4%, 중국은 69.8%, 일본은 64.3%로 남의 눈치를 별로 보지 않는 서구인의 특성에 맞게 미국 청소년의 동의율이 가장 높았고, 반대로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일본의 청소년들은 동의율이 가장 낮았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미국이 46.8%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미국에서 여자가 더 동의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한국은 인문계, 중국은 실업계가 더 동의하고 있고, 성적별로는 일본과 미국에서 성적이 좋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항상 따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항상 따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한국은 73.3%, 미국은 62.9%, 일본은 41.4%, 중국은 32.9%로 국가간의 의식차이가 매우 컸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미국이 24.0%로 가장 높았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는 차이가 없었고, 교급별로는 한국에서 고등학생이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도 한국에서 인문계가 더 동의하고 있고, 성적별로도 한국에서 성적이 좋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이 연구는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등 4개국 청소년들의 인생관, 미래관, 학교관, 직업관, 성공관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여 국가간 청소년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청소년들은 21세기 사회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4개국 중 중국과 미국 청소년들이 낙관적인 반면,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은 현저하게 비관적이다. 이것은 현재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겪고있는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래관에 있어서 한국청소년들은 21세기 사회에 대해 인간간의 신뢰가 떨어지고, 범죄도 많아진다고 보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인류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아 미래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도 더 비관적이고, 중국과 미국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각국의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이나 동양3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중국의 청소년들이 낙관적인 반면, 불황인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은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들은 장래를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나, 자신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결정한 청소년의 비율은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청소년들이 품고 있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 비관적인 전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인생관에 있어서 장래목표를 결정한 청소년은 4개국 중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적게 나타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장래의 목표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청소년들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노력하며 살겠다는 의지는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 다소간의 희망을 보여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의 학교교육은 청소년들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의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이 자신들에게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교육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우리의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에 대해 그들의 욕구를 뒷받침해주는 유용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청소년들은 욕구와 유용성이 거의 일치하고 있고, 중국은 비교적 일치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정도로 일치하고 있지 않다.

즉, 한국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친구만들기, 특기개발, 선호과목의 공부’ 등인데, 특히 특기개발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학교교육은 인간관계를 좋게 하거나 특기를 개발하거나 재미있는 공부가 아니고, 입시에만 유용할 따름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교육이 청소년들의 욕구를 전혀 뒷받침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미래는 더욱더 불안하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의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가 선호하는 직업은 교사가 1순위로써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그 다음 순위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은 첨단기술자, 매체관련 조사자 등 자신의 특기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반면, 부모들은 공무원, 의사, 법조인 등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고 있어 큰 차이가 있다.

넷째, 직업관에 있어서는 장래의 희망직업으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교사’이고, 다음은 컴퓨터 및 정보화와 관련된 첨단 기술자, 연예인, 아나운서·영화감독 등 매체종사자의 순이다. 1순위의 교사는 전통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선호되어온 직업이지만, 다른 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상위 5순위 이내는 대부분 안정적인 직업이 차지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2순위 이하 선호도는 매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이 직업들은 안정성보다는 유동성이 많고, 개성과 특기가 중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학교교육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기대하고 있는 특기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청소년들은 불안한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이와 같이 유동적인 직업들을 선호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학교교육을 통해 특기를 개발하고자 기대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장래목표가 불확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 청소년들은 성공요인으로서 부모의 지위나 재력보다는 개인적인 능력을 중시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미국이나 중국 청소년들과는 달리 학력보다는 특기를 중시하고 있다.

다섯째, 성공관에 관해 한국청소년들은 성공요인으로서 부모의 지위나 재력보다는 개인적인 능력을 중시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미국이나 중

국청소년들과는 달리 학력보다는 특기를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관은 앞에서 살펴본 학교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기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를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청소년들은 중국이나 미국의 청소년에 비해 21세기사회에 대해 현저하게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 장래 목표를 결정한 청소년도 4개국 중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 한국 청소년의 대다수가 장래를 위해 노력하면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장래를 위해 준비하는 생활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교육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 대해 기대하는 것으로써 특기개발을 중시할 뿐 아니라 성공요인으로써도 특기를 가장 중시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특기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고, 선호하는 직업도 컴퓨터 및 정보화 관련 첨단기술자나 연예인 등 매체종사자로서 개성과 특기가 중시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 현재의 학교교육은 우리 청소년들의 이러한 욕구를 뒷받침해주는 유용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특기를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으나, 학교교육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지 않아, 장래목표를 확실하게 세울 수가 없으며,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공성진(1995). 한·중·일 문화인식과 동북아의 미래. 기업경영 443호.
- 군산 YMCA(1994). 청소년 의식 및 생활에 관한 실태. 청소년실태보고서 94-1.
- 권이종·김문조(1993).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 : 생활세계적 접근. 청소년학술세미나자료집. 삼성복지재단청소년연구위원회.
- 노동선(1993). 중국문화의 가치체계와 민족성 연구 시론. 중국연구 14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 박종돈(1994). 동양적 유교사상 이후의 경영실태와 행동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 비교 분석-. 인천전문대논문집 21편.
- 삼성복지재단 (1994).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생활세계적 접근. 서울: 삼성복지재단.
- 천주교서울대교구 가톨릭중등교육자회(1995).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
- 송광성·이종원·김범준·김하연(1991). 한국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영동지역발전문제연구소(1992). 영동 청소년들의 생각과 삶. 서울: 영동지역발전문제연구소.
- 오영태·강상욱(1995). 한·중 초등학교 학생의 가치관 비교.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제 29집, 제 1호, pp.197-244.
- 이민희·이명숙·정희옥·이춘화(1998). 청소년폭력 대책 모델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영숙·이종원(1994). 한국의 청소년지표.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임희섭(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
- 정희옥(1998). 세계청소년장관회의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희옥·전경숙·권오실(1997). 한·중·일 청소년 의식 비교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8). 학생 생활·의식 실태조사.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

최재석(1976).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1).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 서울: 한국갤럽조  
사연구소.

홍봉선·남미애(1994). 청소년의식조사연구. 부산직할시청소년종합상담  
실.

Levy, Marin J. (1948). *The Family Revolution in Modern China*,  
Cambridge, Mass: Havard Press.

Rodgers, Harrell R. (1990). *Poor women, poor families : The economic  
plight of america's female-headed households*. M E Sharpe.

## ABSTRACT

###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Youth Success Consciousness

The survey on 2,000 Junior-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in each countries Korea, China, Japan and U.S. had been conducted from Nov. 1, 1998 to Feb.28, 1999. Survey institutes are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Chinese Association of Youth Sociology', 'Japan Youth Research Institute', 'Kane, Parsons & Associates' of the U.S.

This study shows that youths in Korea and Japan are more pessimistic about the 21st century than their Chinese and American counterpart. Of 2,000 Korean youths polled, only 26.8% percent thought society would become more honest in next centuries. This figure compares to 48.8 percent in China and 43.7 percent in the U.S. Japanese youths were more pessimistic about the future than Korean youths, with only 24.8 percent expressing a bright outlook.

With regard to the question of whether crime rates will fall in the 21st century, only 26.3 percent of Korean respondents replied "yes," compared with 55.5 percent in China and 34.7 percent in the U.S. Only 9.2 percent of Japanese youths polled think crime rates will fall in the next century.

This study shows 19.5 percent of Korean Youths have not yet decided their future career paths. In contrast, 96.2 and 94.7

percent of Chinese and American youths respectively, had already set their life goals. This also demonstrates that Korean youths look at the future apprehensively.

According to the survey, Korean youths favor fashionable jobs in general. Jobs favored by Korean youths, in descending order, were teachers(11.2 percent), high-tech technicians(8.2 percent) and media specialists such as journalists and movie director (8.0 percent). In contrast, youths from China, the U.S. and Japan preferred traditionally popular jobs such as judicial officials, medical doctors, public servants and entrepreneurs. Korean youths tend to be more sensitive to fashion than their peers abroad in their choice of jobs.

This study showed that Korean youths appraise their education lower than their counterparts in other nations. Education authorities have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respond to the poll, noting that Korean youths generally showed negative responses to the usefulness of formal education.

# 부 록

## 부록 1. 설문지

- 국문설문지
- 영문설문지

## 부록 2. 통계표

- 빈도분석표
- 변인별분석표





## 부록 1. 설문지

--	--	--	--

## 청소년의 성공에 관한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의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중국, 일본, 미국, 독일의 청소년 연구기관과 함께 격년제로 청소년들의 의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조사내용은 21세기를 맞이함에 있어 청소년의 장래 및 삶의 방향, 학업이나 직업에서의 노력 등 성공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1999년에 중국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에서 발표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개인의 응답에 따른 비밀은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우)137-715

문의처 : 정희숙, 이춘화(Tel 2188-8815, 2188-8835)

\* 다음은 당신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 주십시오.

1. 성별      \_\_\_① 남자      \_\_\_② 여자
2. 학년      \_\_\_① 중1   \_\_\_② 중2   \_\_\_③ 중3   \_\_\_④ 고1   \_\_\_⑤ 고2   \_\_\_⑥ 고3
3. 당신의 학교는 사립인가 공립인가?   \_\_\_① 사립   \_\_\_② 공립
4. 계열(고등학생만 응답)   \_\_\_① 일반계   \_\_\_② 일반계의 직업교육과정   \_\_\_③실업계
5. 학급에서의 당신의 성적   \_\_\_① 10등 이내   \_\_\_② 11등~20등 이내   \_\_\_③ 21등 이하
6. 당신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_\_\_① 하고 있다   \_\_\_② 지금은 하지 않지만 과거에 했었다   \_\_\_③ 해본 적이 없다
7. 당신은 특별활동을 즐기고 있습니까?  
\_\_\_① 매우 즐기고 있다   \_\_\_② 조금 즐기고 있다   \_\_\_③ 즐기고 있지 않다

\* 다음부터 끝까지의 문항은 21세기를 맞이함에 있어 청소년의 장래 및 삶의 방향, 학업이나 직업에서의 노력 등 성공에 관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을 묻는 질문입니다.

(21세기에 관한 전망)

8. 21세기에는 인간사회와 당신의 생활이 어떻게 변할 것인라고 생각합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오른편에서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	----	-------	----------

- |   |   |   |   |   |
|---|---|---|---|---|
| 1) 인류에게 있어 21세기는 희망찬 사회가 될 것이다-----     | 1 | 2 | 3 | 4 |
| 2) 세계는 지금보다 더 평화로울 것이다-----             | 1 | 2 | 3 | 4 |
| 3) 국민생활은 지금보다 풍요로와 질 것이다-----           | 1 | 2 | 3 | 4 |
| 4)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많아질 것이다-----         | 1 | 2 | 3 | 4 |
| 5) 규제없이 자유로운 경쟁은 인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 1 | 2 | 3 | 4 |
| 6) 인간과 인간은 훨씬 신뢰되는 관계가 될 것이다-----       | 1 | 2 | 3 | 4 |
| 7) 과학의 진보로 인류는 보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 1 | 2 | 3 | 4 |
| 8) 인간 개개인은 지금보다 더 근면해질 것이다-----         | 1 | 2 | 3 | 4 |
| 9) 암과 같은 난치병이 정복될 것이다-----              | 1 | 2 | 3 | 4 |
| 10) 학습경쟁은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다-----             | 1 | 2 | 3 | 4 |
| 11) 지금보다 자유롭고 규제가 적은 사회가 될 것이다-----     | 1 | 2 | 3 | 4 |
| 12) 노력할 필요가 적게 되어 한가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 1 | 2 | 3 | 4 |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	----	----------	----------------

- 13) 빈부차가 적어질 것이다----- 1 2 3 4
- 14) 도시보다 전원이 살기 편해질 것이다----- 1 2 3 4
- 15) 남녀평등이 더 많이 실현될 것이다----- 1 2 3 4
- 16) 자신의 능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 17) 부정부패가 적어질 것이다----- 1 2 3 4
- 18) 지금보다 질서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1 2 3 4
- 19) 범죄나 비행이 지금보다 적어질 것이다----- 1 2 3 4
- 20) 종교가 지금보다 증시될 것이다----- 1 2 3 4

(삶의 목표)

9. 삶에 있어서 당신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오른쪽에서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	----	----------	----------------

- 1)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 1 2 3 4
- 2) 부자가 되는 것----- 1 2 3 4
- 3) 평범한 사람으로 원만한 가정을 꾸리는 것----- 1 2 3 4
- 4)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것----- 1 2 3 4
- 5) 유명인이 되는 것----- 1 2 3 4
- 6) 자신의 취미나 흥미를 즐기는 것----- 1 2 3 4
- 7) 자립하는 사람이 되는 것----- 1 2 3 4
- 8) 그날 그날을 즐기며 사는 것----- 1 2 3 4
- 9)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하는 것----- 1 2 3 4
- 10) 공부를 좀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1 2 3 4
- 11) 타인이 흉내낼 수 없는 특기운 갖는 것----- 1 2 3 4
- 12) 다른 사람을 위해 공헌하는 것----- 1 2 3 4
- 13) 과학분야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 1 2 3 4
- 14) 매력적인 이성(남자/여자)을 찾는 것----- 1 2 3 4
- 15) 스포츠나 예술분야에서 명성을 얻는 것----- 1 2 3 4

(장래희망)

10. 당신과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이 앞으로 무엇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다음 보기에서 당신과 부모님의 희망직업을 각각 1개씩만 선택해 다음의 표 안에 번호로 적어 주십시오. 보기 중에 희망직업이 없는 경우는 25번을 선택하고, 표 안에 직접 직업을 적어 주십시오.

당신의 희망	부모님의 희망

- |                                 |                        |
|---------------------------------|------------------------|
| 1) 의사                           | 2) 변호인(판사, 검사, 변호사)    |
| 3) 정치가(대통령, 국회의원, 정당활동 등)       | 4) 간호사·약사              |
| 5) 복지관계자(사회단체, 복지단체 등)          | 6) 공무원                 |
| 7) 예술가(음악가, 화가, 사진작가, 소설가 등)    | 8) 운동선수                |
| 9) 첨단기술자(인터넷 등 정보관련, 컴퓨터 관련)    | 10) 학자(대학교수, 연구원 등)    |
| 11) 회사경영자(사장)                   | 12) 회사원(평직원)           |
| 13) 회사관리자(부장급 이상)               | 14) 상점주인               |
| 15) 전문기술자(엔지니어)                 | 16) 경찰관·군인             |
| 17) 숙련공                         | 18) 영업사원(세일즈맨)         |
| 19) 아르바이트                       | 20) 가정주부               |
| 21) 교사                          | 22) 연예인(배우, 가수, 개그맨 등) |
| 23) 매체종사자(기자, 아나운서, 영화감독, PD 등) | 24) 농업·어업·임업·광업 등      |
| 25) 기타( )                       | 26) 잘 모르겠다             |

(목표결정과 성공을 위한 노력)

11. 당신은 장래 목표를 확실하게 결정하셨습니까?

- |                     |                           |
|---------------------|---------------------------|
| ___ ① 확실하게 결정했다     | ___ ② 막연하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
| ___ ③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 ___ ④ 생각해 본 적도 없다         |

12. 당신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이나 직업을 위해 노력하면서 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이 보다는 자신의 취미(또는 흥미)를 즐기고 싶습니까? 당신의 생각에 가장 근접한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___ ① 매우 노력하면서 살겠다   | ___ ② 적절히 노력하면서 살겠다     |
| ___ ③ 노력보다는 취미를 즐기겠다 | ___ ④ 절대 노력않고 취미만을 즐기겠다 |

(성공의 의미)

13. 당신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오른쪽에서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1)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1	2	3	4
2) 그렇게 되면 권력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1	2	3	4
3)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1	2	3	4
4) 그렇게 되면 책임이 무거워진다-----	1	2	3	4
5)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희생을 해야 한다-----	1	2	3	4
6)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시간이 없을 것이다-----	1	2	3	4
7) 그렇게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	1	2	3	4
8) 그렇게 되면 부자가 된다-----	1	2	3	4

(학교생활의 중요성)

14. 당신은 다음에 열거한 문항들이 학습이나 학교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해 중요한지 아닌지에 관해 동의하는 정도를 오른쪽에서 골라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1) 공부를 잘 하는 것-----	1	2	3	4
2) 과외교습을 받는 것-----	1	2	3	4
3)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 전문적인 분야까지 공부하는 것-----	1	2	3	4
4) 목표하는 대학의 수험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	1	2	3	4
5) 동아리(서클)활동에 열중한 것-----	1	2	3	4
6) 친구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	1	2	3	4
7) 학교행사에 열중한 것-----	1	2	3	4
8) 봉사활동에 열중한 것-----	1	2	3	4
9) 특기를 개발하는 것-----	1	2	3	4
10) 학급의 반장이 되는 것-----	1	2	3	4
11) 친구를 만드는 것-----	1	2	3	4
12)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는 것-----	1	2	3	4
13) 인생의 선배로써 훌륭한 교사를 만나는 것-----	1	2	3	4
14) 애인을 만나는 것-----	1	2	3	4

(수면시간과 진로에 대한 계획)

15. 당신은 수면이 있는 날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잠을 잡니까?

- \_\_\_① 4시간이하    \_\_\_② 5시간    \_\_\_③ 6시간    \_\_\_④ 7시간  
\_\_\_⑤ 8시간    \_\_\_⑥ 9시간    \_\_\_⑦ 10시간 이상

16. 당신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진학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직장을 잡을 계획입니까?

- \_\_\_① 진학예정    \_\_\_② 취직예정    \_\_\_③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_\_\_④ 기타(예:주부)

(자신의 특징)

17. 당신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오른쪽에서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	----	----------	----------------

- 1)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좋다----- 1    2    3    4  
2) 지능지수가 높다----- 1    2    3    4  
3)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한다----- 1    2    3    4  
4) 말을 잘 한다----- 1    2    3    4  
5) 예술적인 특기가 있다----- 1    2    3    4  
6) 많은 것에 의문과 관심을 가진다----- 1    2    3    4  
7) 운동신경이 좋다----- 1    2    3    4  
8)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다----- 1    2    3    4  
9) 과학적으로 사고한다----- 1    2    3    4  
10)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의 특기가 있다----- 1    2    3    4

(학교공부의 유용성)

18.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학교공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오른쪽에서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	----	----------	----------------

- 1) 장래에 직장을 잡는데 유용하다----- 1    2    3    4  
2) 입시에만 유용하다----- 1    2    3    4  
3) 자신의 특징을 살리는 공부이다----- 1    2    3    4  
4)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 공부이다----- 1    2    3    4  
5) 성적순으로 나누기에 유용하다----- 1    2    3    4  
6) 매우 재미있는 공부이다----- 1    2    3    4  
7) 이해할 수 없는 공부이다----- 1    2    3    4  
8) 자신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공부이다----- 1    2    3    4  
9) 특기를 개발하는데 유용하다----- 1    2    3    4  
10)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데 유용하다----- 1    2    3    4

(성공의 요인)

19.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다음에 열거하였습니다. 각각에 대해 오른편에서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	----	----------	----------------

- |                                     |   |   |   |   |
|-------------------------------------|---|---|---|---|
| 1) 타고난 IQ가 높은 것-----                | 1 | 2 | 3 | 4 |
| 2) 사교술이 좋은 것-----                   | 1 | 2 | 3 | 4 |
| 3)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진절한 태도를 갖는 것-----   | 1 | 2 | 3 | 4 |
| 4) 지식을 넓히는 것-----                   | 1 | 2 | 3 | 4 |
| 5) 상관에게 아첨하는 것-----                 | 1 | 2 | 3 | 4 |
| 6) 특기를 가지고 있는 것-----                | 1 | 2 | 3 | 4 |
| 7) 정직한 것-----                       | 1 | 2 | 3 | 4 |
| 8) 모든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출선해서 하는 것----- | 1 | 2 | 3 | 4 |
| 9) 유머감각이 있는 것-----                  | 1 | 2 | 3 | 4 |
| 10) 친구들을 많이 갖는 것-----               | 1 | 2 | 3 | 4 |
| 11) 좋은 학력을 갖고 있는 것-----             | 1 | 2 | 3 | 4 |
| 12) 좋은 사람과 우연히 알게될 기회를 갖는 것-----    | 1 | 2 | 3 | 4 |
| 13) 부모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     | 1 | 2 | 3 | 4 |
| 14) 유력한 연줄을 갖고 있는 것-----            | 1 | 2 | 3 | 4 |
| 15) 부자인 것-----                      | 1 | 2 | 3 | 4 |
| 16)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것-----          | 1 | 2 | 3 | 4 |
| 17)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중요시하는 것-----        | 1 | 2 | 3 | 4 |

(생활전반에 관한 의식)

20. 당신은 다음에 열거한 내용에 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오른편에서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	----	----------	----------------

- |  |   |   |   |   |
|--|---|---|---|---|
| 1) TV에 나오는 것은 가공세계의 것으로 현실생활과는 다르다-----            | 1 | 2 | 3 | 4 |
| 2) TV에 나오는 모습에서 좋은 것을 나도 해보고 싶다-----               | 1 | 2 | 3 | 4 |
| 3) 나는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것이 재미있다-----                     | 1 | 2 | 3 | 4 |
| 4) 나는 연애를 주제로 한 TV드라마를 좋아한다-----                   | 1 | 2 | 3 | 4 |
| 5) 청소년의 폭력, 약물, 매춘 등의 행동은 매스미디어의<br>영향을 받고 있다----- | 1 | 2 | 3 | 4 |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6)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은 한다-----	1	2	3	4
7) 수업 중에 수다떠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1	2	3	4
8) 나는 사회에서 비난받을 유행인지 아닌지 곧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1	2	3	4
9) 유행이 좋은가 나쁜가 보다 그것에 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10) 유행에 따르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1	2	3	4
11) 네 밤에 들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도 나는 하지 않는다-----	1	2	3	4
12)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항상 따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	2	3	4
13)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2	3	4
14)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1	2	3	4
15)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	1	2	3	4
16) 자원봉사는 위선적인 행위이다-----	1	2	3	4
17) 나는 자기주장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1	2	3	4
18) 주변 사람에게 협조하는 것은 처세의 요령이다-----	1	2	3	4
19) 모든 사람과 함께라면 나쁜 일을 해도 책임이 가벼워진다-----	1	2	3	4
20) 다른 사람과 함께 나쁜 행동을 했는데 나만 벌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1	2	3	4
21) 나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진다-----	1	2	3	4
22) 고립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생각을 지키고 싶다-----	1	2	3	4
23) 장래를 생각하기 보다 지금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24) 너무 일이나 공부만 하는 것은 따분한 인생이다-----	1	2	3	4
25) 장래의 성공은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다-----	1	2	3	4
26) 장래의 일은 지금 생각해 봐도 소용없다-----	1	2	3	4
27) 나는 미래에 대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다-----	1	2	3	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School Name :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The Japan Youth Research Institute is undertaking a comparative study of high school students in Japan, Korea, China and United States. We would appreciate it if you would take a few minutes to complete this questionnaire.

All answers are completely anonymous. DO NOT SIGN YOUR NAME TO THIS QUESTIONNAIRE. Your answers and those of other american students will be compared to those of the same age in the other countries.

There are no right or wrong answers to any questions; merely mark the answers that best describes your opinion or situation. Circle the number to the right of the answer you choose. you do not have to answer a question if you do not want to.

1. Are you : Male\_\_\_\_\_ Female\_\_\_\_\_
2. Your grade in school\_\_\_\_\_
3. What kind of school do you attend?  
Public\_\_\_\_\_ Private\_\_\_\_\_
4. What kind of program are you in?  
General academic\_\_\_\_\_ Vocational\_\_\_\_\_ Other\_\_\_\_\_
5. In terms of grades, where do you think you rank in your class?  
Top third of class\_\_\_\_\_ Middle third of class\_\_\_\_\_ Lower third of class\_\_\_\_\_
6. Have you ever done volunteer work?  
Yes, do it now\_\_\_\_\_ No, Never\_\_\_\_\_ Yes, in the past but not now\_\_\_\_\_
7. How much do you enjoy extracurricular activities?  
Enjoy them a lot\_\_\_\_\_ Enjoy them a little\_\_\_\_\_ Do not enjoy them\_\_\_\_\_
8. What do you think life will be like in the mid-21st Century? Please indicate how mu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Strongly Agree Disagree Strongly  
agree Somewhat Somewhat Disagree

- 1) Society will be filled with hope in the 21st Century
- 2) The world will be more peaceful than it is today
- 3) Living standards will be more peaceful than it is today
- 4) Free market economies will exist in almost all countries in the world
- 5) As a result of free market economies, people will be happier than now
- 6) People will have more stable and long-term relationships
- 7) progress in science and technology will make people happier than now
- 8) People will be expected to be more responsible
- 9) Serious diseases like cancer will be conquered
- 10) It will be easier to get into a good college
- 11) There will be more freedoms and fewer laws and regulations
- 12) People will be able to live comfortable lives without working hard
- 13)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will be narrowed
- 14) Life in rural areas will be more pleasant than life in big cities
- 15) There will be greater equality between sexes
- 16) People will be better able to demonstrate their strengths and abilities than now
- 17) There will be less crime and corruption
- 18) Society will be safer and more orderly
- 19) There will be less delinquency and other problem with young people
- 20) Religion will be more important than now

9. What are your ultimate goals in life? Please indicate how mu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each statement by marking one answer in each row.

Strongly Agree    Disagree    Strongly  
agree    Somewhat    Somewhat    Disagree

- 1) You want to become prominent in your field
- 2) You want to become rich
- 3) You want to have a nice home and family and live like an ordinary person
- 4) You want to contribute to society
- 5) You want to become famous
- 6) You want to enjoy many interests and hobbies
- 7) You want to become independent of other people
- 8) You want to live a happy life day after day
- 9) You want to do what is right, even if it results in a loss
- 10) You want to be smart
- 11) You want to have a special skill or talent that is all your own
- 12) You want to do something for other people
- 13) You want to make a discovery in the field of science
- 14) You want to find someone to love
- 15) You want to be famous as an athlete or artist

10. Which of the following occupations are especially appealing to you? Choose as many as you want.

- |   |                            |
|---|----------------------------|
| Medical doctor  | Lawyer or judge            |
| Politician or elected public official                           |                            |
| Health care workers, other than doctor (nurse, therapist, etc.) |                            |
| Social worker   | Civil servant              |
| Musician  | Professional athlete       |
| Engineer  | Professor/teacher          |
| Middle level manager of a company                               |                            |
| Staff person (non-manager) of a company                         |                            |
| Top-level manager/officer of a company                          |                            |
| Owner of small business or shop                                 | Technical expert           |
| Police officer  | Skilled blue collar worker |
| Sales person  | Part-time worker           |
| Homemaker   | Other                      |
| Not sure  |                            |

11. Have you decided what you want to do in the future?

Yes

Have thought about it, but not made any decisions

Haven't given it much thought

Haven't thought about it at all

12. Which one of the following statements best describes how hard you want to work in life?

You want to devote all of your energy to work and achieving success

You want to work and achieve success while still having some time to enjoy yourself

You would rather devote more effort to your interests and hobbies than to work

You want to devote as little effort to work as possible

13. What do you think about VIPs (very important persons)? Please choose one answer in each row.

Strongly Agree	Disagree	Strongly agree
agree	Somewhat	Somewhat Disagree

1) A VIP no longer has to work for others

2) A VIP is able to take over and control and control other people

3) A VIP can do as he/she likes

4) A VIP has to assume a lot of responsibility

5) To become a VIP, one must make a lot of self sacrifices

6) A VIP's time is no longer his/her own

7) To become a VIP, a person must defer to others

8) To become a VIP is to become rich

14. How important to you is each of the following aspects of your school life? Please choose one answer in each row.

very important	Somewhat important	not very important	not at all important
----------------	--------------------	--------------------	----------------------

1) Studying hard

2) Having a private tutor

3) Devoting a lot of effort to studying the subjects that interest you

4) Studying hard so you can get admitted to a good college

5) Taking part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 6) Being liked by others
- 7) Being one of those people who works to make things happen
- 8) Taking part in volunteer activities
- 9) Developing your special abilities or skills
- 10) Being a leader in your school
- 11) Having a close friend
- 12) Discovering what makes you different from other people
13. Having a teacher that you can admire and respect
- 14) Finding someone to love
15. How many hours do you sleep during the week?
- |                  |                 |
|------------------|-----------------|
| 4 hours or less  | 5 hours or less |
| 6 hours or less  | 7 hours or less |
| 8 hours or less  | 9 hours or less |
| 10 hours or more |                 |

16. What do you plan to do when you finish high school?
- Go to college
- Get a full-time job (no further education), join the military
- Other (e.g. become a homemaker)
- Not decided yet

17. In which of the following ways do you think you are different from other people?  
(PLEASE CHOOSE AS MANY ANSWERS AS DESCRIBE YOU)

- You like doing things for other people
- You are very smart
- You always do what you think is right, even if you lose something as a result
- You are good at speaking and expressing yourself orally
- You are good at artistic pursuits
- You have serious interests in many things and ask a lot of questions
- You are a good athlete
- You can easily make friends with anybody
- You are good at science
- You have some other ability that makes you distinctive
- None of the above

18. Which one of the things on this list is closest to your attitude toward school work?  
(PLEASE CHOOSE ONE ANSWER ONLY)

- It will be useful for getting a jib in the future
- It will be useful for getting into college
- It will be useful for for developing your talents
- It teaches one how to be a member of society
- It is a useful way of determining how much ability people have
- It is very interesting
- It is hard to understand
- It is an important way to build character
- It is a way for you to develop your skills and talents
- It will be useful for having good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19. How important do you think each of the things on that list is in terms of being successful in life? (PLEASE CHOOSE ONE ANSWER IN EACH ROW)

very	Somewhat	not very	not at all
important	important	important	important

- 1) A high IQ
- 2) To be a good at making friendships with others
- 3) To be a gentle and kind to everyone
- 4) To know about a lot of different things
- 5) To flatter your superiors
- 6) To have a special ability or skill
- 7) To be honest
- 8) To work hard and take on jobs that no one else wants to do
- 9) To have a sense of humor
- 10) To have many friends
- 11) To be well educated
- 12) To try to know as many people as possible
- 13) To have parents of high social standing
- 14) To have connections to important people
- 15) To be wealthy
- 16) To be strict and demanding of yourself and of others
- 17) To always think of others and take their needs into account
- 18) To be funny and good at telling jokes

20. Please indicate how mu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life. (PLEASE CHOOSE ONE ANSWER IN EACH ROW)

Strongly Agree	Disagree	Strongly
agree	Somewhat	Disagree

- 1) The stories on TV are so fictitious they don't have any resemblance to the way you live
- 2) You sometimes dream of being like the stars you see on TV
- 3) Computers are fun to play with
- 4) You like to watch TV programs about love and romance
- 5) The mass media influence many young people in undesirable ways
- 6) You have good self control in terms of what you do and do not do
- 7) You are free to chat or do whatever you want during class
- 8) You are good at judging if a new fashion will be widely accepted or not
- 9) It is important to keep up with the latest fashions
- 10) It is neither good nor bad to follow fashions
- 11) You don't follow what others do if you disagree with it
- 12) It is shameful to always do the same things others are doing
- 13) You are superior to other people
- 14) It is important to maintain your pride and honor
- 15) You have the moral courage not to do what everybody else is doing
- 16) People who do volunteer work are hypocrites
- 17) You like people who are decisive and strong willed
- 18) Staying on good terms with others is a key to success in life
- 19) If you were to commit a crime with others, you would feel less responsible than if you did it by yourself
- 20) If you were to commit a crime with others, you would feel it was unfair if you were the only one to be punished
- 21) You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the decisions you make
- 22) you should do what you believe is right even if others disagree
- 23) It is more important to enjoy life now than to think about the future
- 24) Too much hard work makes one unable to appreciate life
- 25) Your future success depends on how much effort you make now
- 26) There is no point in worrying about future
- 27) You have dreams and ambitions for the futur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HELP!**

## 부록 2. 통계표

## 부 록 표 목 차

<부록표 I-1>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은 한다 .....	162
<부록표 I-2>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162
<부록표 I-3>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 ...	162
<부록표 I-4> 나는 자기주장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	162
<부록표 I-5> 나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진다 ...	163
<부록표 I-6> 고립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생각을 지키고싶다 .....	163
<부록표 I-7>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 .....	163
<부록표 I-8> 부자가 되는 것 .....	163
<부록표 I-9> 평범한 사람으로 원만한 가정을 꾸리는 것 .....	164
<부록표 I-10>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것 .....	164
<부록표 I-11> 유명인이 되는 것 .....	164
<부록표 I-12> 자신의 취미나 흥미를 즐기는 것 .....	164
<부록표 I-13> 자립하는 사람이 되는 것 .....	165
<부록표 I-14> 그날 그날을 즐기며 사는 것 .....	165
<부록표 I-15>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하는 일 .....	165
<부록표 I-16> 공부를 좀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	165
<부록표 I-17> 타인이 흉내낼 수 없는 특기를 갖는 것 .....	166
<부록표 I-18> 다른 사람을 위해 공헌하는 것 .....	166
<부록표 I-19> 과학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하는 것 .....	166



- <부록표 I-20> 매력적인 이성(남자/여자)를 찾는 것 ..... 166
- <부록표 I-21> 스포츠나 예술분야에서 명성을 얻는 것 ..... 167
- <부록표 I-22> 수업중에 수다떠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 167
- <부록표 I-23>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 167
- <부록표 I-24> 자원봉사는 위선적인 행동이다 ..... 167
- <부록표 I-25> 주변 사람에게 협조하는 것은 처세의 요령이다 ..... 168
- <부록표 I-26> 모든 사람과 함께라면 나쁜 일을 해도 책임이  
가벼워진다 ..... 168
- <부록표 I-27> 다른 사람과 함께 나쁜 행동을 했는데 나만 벌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 168
- <부록표 I-28> 진로계획 ..... 168
- <부록표 I-29> 목표결정 ..... 169
- <부록표 I-30> 성공을 위한 노력여부 ..... 169
- <부록표 I-31> 장래를 생각하기 보다 지금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 169
- <부록표 I-32> 너무 일이나 공부만 하는 것은 따분한 인생이다 .... 169
- <부록표 I-33> 장래의 성공은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다 .... 170
- <부록표 I-34> 장래의 일은 지금 생각해봐도 소용없다 ..... 170
- <부록표 I-35> 나는 미래에 대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다 ..... 170
- <부록표 I-36> 수면시간 ..... 170
- <부록표 I-37>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 171
- <부록표 I-38> 그렇게 되면 권력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 171
- <부록표 I-39>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 171
- <부록표 I-40> 그렇게 되면 책임이 무거워진다 ..... 171
- <부록표 I-41>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희생을 해야한다 .. 172

<부록표 I-42>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시간이 없을 것이다 .....	172
<부록표 I-43> 그렇게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 ...	172
<부록표 I-44> 그렇게 되면 부자가 된다 .....	172
<부록표 I-45> 타고난 IQ가 높은 것 .....	173
<부록표 I-46> 사교술이 좋은 것 .....	173
<부록표 I-47>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할 태도를 갖는 것 ....	173
<부록표 I-48> 지식을 넓히는 것 .....	173
<부록표 I-49> 상관에게 아첨하는 것 .....	174
<부록표 I-50> 특기를 가지고 있는 것 .....	174
<부록표 I-51> 정직한 것 .....	174
<부록표 I-52> 모든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솔선해서 하는 것 ....	174
<부록표 I-53> 유머 감각이 있는 것 .....	175
<부록표 I-54> 친구들을 많이 갖는 것 .....	175
<부록표 I-55> 좋은 학력을 갖고 있는 것 .....	175
<부록표 I-56> 좋은 사람과 우연히 알게될 기회를 갖는 것 .....	175
<부록표 I-57> 부모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 .....	176
<부록표 I-58> 유력한 연줄을 갖고 있는 것 .....	176
<부록표 I-59> 부자인 것 .....	176
<부록표 I-60>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것 .....	176
<부록표 I-61>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중요시하는 것 .....	177
<부록표 I-62> 공부를 잘하는 것 .....	177
<부록표 I-63> 과외교습을 받는 것 .....	177
<부록표 I-64>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 전문적인 분야까지 공부하는 것 ..	177
<부록표 I-65> 목표하는 대학의 수험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 ....	178
<부록표 I-66> 동아리(서클)활동에 열중하는 것 .....	178
<부록표 I-67> 친구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 .....	178

<부록표 I-68> 학교행사에 열중하는 것 .....	178
<부록표 I-69> 봉사활동에 열중하는 것 .....	179
<부록표 I-70> 특기를 개발하는 것 .....	179
<부록표 I-71> 학급의 반장이 되는 것 .....	179
<부록표 I-72> 친구를 만드는 것 .....	179
<부록표 I-73>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는 것 .....	180
<부록표 I-74> 인생의 선배로써 훌륭한 교사를 만나는 것 .....	180
<부록표 I-75> 애인을 만나는 것 .....	180
<부록표 I-76> TV에 나오는 것은 가공세계의 것으로 현실 생활과는 다르다 .....	180
<부록표 I-77> TV에 나오는 모습에서 좋은 것을 나도 해보고 싶다 ..	181
<부록표 I-78> 나는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것이 재미있다 .....	181
<부록표 I-79> 나는 연애를 주제로 한 TV드라마를 좋아한다 .....	181
<부록표 I-80> 청소년의 폭력, 약물, 매춘 등의 행동은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있다 .....	181
<부록표 I-81> 나는 사회에서 비난받을 유행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	182
<부록표 I-82> 유행이 좋은가 나쁜가 보다 그것에 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182
<부록표 I-83> 유행에 따르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182
<부록표 I-84> 내 맘에 들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도 나는 하지 않는다 .....	182
<부록표 I-85>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항상 따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183
<부록표 I-86> 인류에게 있어 21세기는 희망찬 사회가 될 것이다 ...	183

<부록표 I-87> 세계는 지금보다 더 평화로울 것이다 .....	183
<부록표 I-88> 국민생활은 지금보다 풍요로와 질 것이다 .....	183
<부록표 I-89>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많아질 것이다 .....	184
<부록표 I-90> 규제없이 자유로운 경쟁으로 인류는 행복해질 것이다 ...	184
<부록표 I-91> 인간과 인간은 훨씬 신뢰있는 관계가 될 것이다 ....	184
<부록표 I-92> 과학의 진보로 인류는 보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	184
<부록표 I-93> 암과 같은 난치병이 정복될 것이다 .....	185
<부록표 I-94> 학습경쟁은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다 .....	185
<부록표 I-95> 지금보다 자유롭고 규제가 적은 사회가 될 것이다 ...	185
<부록표 I-96> 노력할 필요가 적게 되어 한가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	185
<부록표 I-97> 빈부차가 적어질 것이다 .....	186
<부록표 I-98> 도시보다 전원이 살기 편해질 것이다 .....	186
<부록표 I-99> 남녀평등이 더 많이 실현될 것이다 .....	186
<부록표 I-100> 자신의 능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186
<부록표 I-101> 부정부패가 적어질 것이다 .....	187
<부록표 I-102> 지금보다 질서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	187
<부록표 I-103> 범죄나 비행이 지금보다 적어질 것이다 .....	187
<부록표 I-104> 종교가 지금보다 중시될 것이다 .....	187
<부록표 II-1> 봉사활동 .....	188
<부록표 II-2> 특별활동 .....	188
<부록표 II-3>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은 한다 .....	189
<부록표 II-4>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189
<부록표 II-5>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 .....	189

<부록표 II-6> 나는 자기주장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	190
<부록표 II-7> 나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진다 ..	190
<부록표 II-8> 고립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생각을 지키고 싶다 .....	190
<부록표 II-9>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 .....	191
<부록표 II-10> 부자가 되는 것 .....	191
<부록표 II-11> 평범한 사람으로 원만한 가정을 꾸리는 것 .....	191
<부록표 II-12>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것 .....	192
<부록표 II-13> 유명인이 되는 것 .....	192
<부록표 II-14> 자신의 취미나 흥미를 즐기는 것 .....	192
<부록표 II-15> 자립하는 사람이 되는 것 .....	193
<부록표 II-16> 그날 그날을 즐기며 사는 것 .....	193
<부록표 II-17>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하는 일 .....	193
<부록표 II-18> 공부를 좀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	194
<부록표 II-19> 타인이 흉내낼 수 없는 특기를 갖는 것 .....	194
<부록표 II-20> 다른 사람을 위해 공헌하는 것 .....	194
<부록표 II-21> 과학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하는 것 .....	195
<부록표 II-22> 매력적인 이성(남자/여자)를 찾는 것 .....	195
<부록표 II-23> 스포츠나 예술분야에서 명성을 얻는 것 .....	195
<부록표 II-24> 수업중에 수다떠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	196
<부록표 II-25>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	196
<부록표 II-26> 자원봉사는 위선적인 행동이다 .....	196
<부록표 II-27> 주변 사람에게 협조하는 것은 처세의 요령이다 ....	197
<부록표 II-28> 모든 사람과 함께라면 나쁜 일을 해도 책임이 가벼워진다 .....	197

<부록표 II-29> 다른 사람과 함께 나쁜 행동을 했는데 나만 벌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	197
<부록표 II-30> 목표결정 .....	198
<부록표 II-31> 성공을 위한 노력여부 .....	198
<부록표 II-32> 장래를 생각하기 보다 지금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	198
<부록표 II-33> 너무 일이나 공부만 하는 것은 따분한 인생이다 ..	199
<부록표 II-34> 장래의 성공은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다 ...	199
<부록표 II-35> 장래의 일은 지금 생각해봐도 소용없다 .....	199
<부록표 II-36> 나는 미래에 대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다 .....	200
<부록표 II-37> 수면시간 .....	200
<부록표 II-38>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	200
<부록표 II-39> 그렇게 되면 권력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	201
<부록표 II-40>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	201
<부록표 II-41> 그렇게 되면 책임이 무거워진다 .....	201
<부록표 II-42>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희생을 해야한다 ...	202
<부록표 II-43>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시간이 없을 것이다 .....	202
<부록표 II-44> 그렇게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 .....	202
<부록표 II-45> 그렇게 되면 부자가 된다 .....	203
<부록표 II-46> 타고난 IQ가 높은 것 .....	203
<부록표 II-47> 사교술이 좋은 것 .....	203
<부록표 II-48>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할 태도를 갖는 것 ..	204
<부록표 II-49> 지식을 넓히는 것 .....	204
<부록표 II-50> 상관에게 아첨하는 것 .....	204
<부록표 II-51> 특기를 가지고 있는 것 .....	205

<부록표 II-52> 정직한 것 .....	205
<부록표 II-53> 모든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출선해서 하는 것 ...	205
<부록표 II-54> 유머감각이 있는 것 .....	206
<부록표 II-55> 친구들을 많이 갖는 것 .....	206
<부록표 II-56> 좋은 학력을 갖고 있는 것 .....	206
<부록표 II-57> 좋은 사람과 우연히 알게될 기회를 갖는 것 .....	207
<부록표 II-58> 부모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 .....	207
<부록표 II-59> 유력한 연줄을 갖고 있는 것 .....	207
<부록표 II-60> 부자인 것 .....	208
<부록표 II-61>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것 .....	208
<부록표 II-62>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중요시하는 것 .....	208
<부록표 II-63> 공부를 잘하는 것 .....	209
<부록표 II-64> 과외교습을 받는 것 .....	209
<부록표 II-65>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 전문적인 분야까지 공부하는 것 .....	209
<부록표 II-66> 목표하는 대학의 수험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 ...	210
<부록표 II-67> 동아리(서클)활동에 열중하는 것 .....	210
<부록표 II-68> 친구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 .....	210
<부록표 II-69> 학교행사에 열중하는 것 .....	211
<부록표 II-70> 봉사활동에 열중하는 것 .....	211
<부록표 II-71> 특기를 개발하는 것 .....	211
<부록표 II-72> 학급의 반장이 되는 것 .....	212
<부록표 II-73> 친구를 만드는 것 .....	212
<부록표 II-74>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는 것 .....	212
<부록표 II-75> 인생의 선배로써 훌륭한 교사를 만나는 것 .....	213
<부록표 II-76> 애인을 만나는 것 .....	213

- <부록표 II-77> TV에 나오는 것은 가공세계의 것으로 현실 생활과는 다르다 ..... 213
- <부록표 II-78> TV에 나오는 모습에서 좋은 것을 나도 해보고 싶다 ... 214
- <부록표 II-79> 나는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것이 재미있다 ..... 214
- <부록표 II-80> 나는 연애를 주제로 한 TV드라마를 좋아한다 ..... 214
- <부록표 II-81> 청소년의 폭력, 약물, 매춘 등의 행동은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있다 ..... 215
- <부록표 II-82> 나는 사회에서 비난받을 유행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 215
- <부록표 II-83> 유행이 좋은가 나쁜가 보다 그것에 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215
- <부록표 II-84> 유행에 따르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216
- <부록표 II-85> 내 맘에 들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도 나는 하지 않는다 ..... 216
- <부록표 II-86>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항상 따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216
- <부록표 II-87> 인류에게 있어 21세기는 희망찬 사회가 될 것이다 ..... 217
- <부록표 II-88> 세계는 지금보다 더 평화로울 것이다 ..... 217
- <부록표 II-89> 국민생활은 지금보다 풍요로와 질 것이다 ..... 217
- <부록표 II-90>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많아질 것이다 ..... 218
- <부록표 II-91> 규제 없이 자유로운 경쟁으로 인류는 행복해질 것이다 ..... 218
- <부록표 II-92> 인간과 인간은 훨씬 신뢰 있는 관계가 될 것이다 .... 218
- <부록표 II-93> 과학의 진보로 인류는 보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 219
- <부록표 II-94> 암과 같은 난치병이 정복될 것이다 ..... 219



<부록표 II-95> 학습경쟁은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다 .....	219
<부록표 II-96> 지금보다 자유롭고 규제가 적은 사회가 될 것이다 .....	220
<부록표 II-97> 노력할 필요가 적게 되어 한가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	220
<부록표 II-98> 빈부차가 적어질 것이다 .....	220
<부록표 II-99> 도시보다 전원이 살기 편해질 것이다 .....	221
<부록표 II-100> 남녀평등이 더 많이 실현될 것이다 .....	221
<부록표 II-101> 자신의 능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221
<부록표 II-102> 부정부패가 적어질 것이다 .....	222
<부록표 II-103> 지금보다 질서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	222
<부록표 II-104> 범죄나 비행이 지금보다 적어질 것이다 .....	222
<부록표 II-105> 종교가 지금보다 중시될 것이다 .....	223

## □ 빈도분석표

&lt;부록표 I-1&gt;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은 한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304 (15.1)	899 (44.7)	635 (31.9)	983 (49.0)
동의	1168 (57.9)	830 (41.3)	1076 (54.1)	784 (39.1)
동의 안함	474 (23.5)	212 (10.5)	238 (12.0)	180 (9.0)
전혀동의안함	72 (3.6)	69 (3.4)	41 (2.1)	59 (2.9)
전체	2018 (100.0)	2010 (100.0)	1990 (100.0)	2006 (100.0)

&lt;부록표 I-2&gt;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154 (7.6)	804 (39.9)	980 (49.3)	297 (15.0)
동의	631 (31.3)	667 (33.1)	796 (40.1)	601 (30.3)
동의 안함	1118 (55.4)	391 (19.4)	167 (8.4)	582 (29.4)
전혀동의안함	115 (5.7)	153 (7.6)	44 (2.2)	502 (25.3)
전체	2018 (100.0)	2015 (100.0)	1987 (100.0)	1982 (100.0)

&lt;부록표 I-3&gt;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269 (13.3)	667 (33.1)	353 (17.8)	972 (48.5)
동의	1019 (50.5)	805 (40.0)	769 (38.7)	785 (39.2)
동의 안함	658 (32.6)	436 (21.6)	752 (37.9)	199 (9.9)
전혀동의안함	71 (3.5)	106 (5.3)	111 (5.6)	49 (2.4)
전체	2017 (100.0)	2014 (100.0)	1985 (100.0)	2005 (100.0)

&lt;부록표 I-4&gt; 나는 자기주장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412 (20.4)	365 (18.1)	489 (24.7)	885 (44.0)
동의	1029 (51.1)	635 (31.5)	918 (46.3)	959 (47.7)
동의 안함	503 (25.0)	701 (34.8)	500 (25.2)	131 (6.5)
전혀동의안함	71 (3.5)	314 (15.6)	75 (3.8)	37 (1.8)
전체	2015 (100.0)	2015 (100.0)	1982 (100.0)	2012 (100.0)

## &lt;부록표 I-5&gt; 나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진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666 (33.4)	1386 (68.8)	1149 (58.0)	1092 (54.6)
동의	1147 (57.5)	475 (23.6)	706 (35.7)	743 (37.2)
동의 안함	157 (7.9)	103 (5.1)	100 (5.1)	127 (6.4)
전혀동의안함	25 (1.3)	51 (2.5)	25 (1.3)	38 (1.9)
전체	1995 (100.0)	2015 (100.0)	1980 (100.0)	2000 (100.0)

## &lt;부록표 I-6&gt; 고립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생각을 지키고싶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551 (27.4)	957 (47.4)	578 (29.2)	1218 (60.7)
동의	1006 (50.0)	668 (33.1)	860 (43.4)	638 (31.8)
동의 안함	407 (20.2)	306 (15.2)	459 (23.2)	118 (5.9)
전혀동의안함	48 (2.4)	86 (4.3)	84 (4.2)	34 (1.7)
전체	2012 (100.0)	2017 (100.0)	1981 (100.0)	2008 (100.0)

## &lt;부록표 I-7&gt;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258 (12.8)	685 (33.9)	217 (10.9)	1315 (66.1)
동의	994 (49.2)	880 (43.6)	513 (25.8)	572 (28.8)
동의 안함	624 (30.9)	370 (18.3)	951 (47.8)	73 (3.7)
전혀동의안함	144 (7.1)	83 (4.1)	310 (15.6)	28 (1.4)
전체	2020 (100.0)	2018 (100.0)	1991 (100.0)	1988 (100.0)

## &lt;부록표 I-8&gt; 부자가 되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447 (22.1)	600 (29.8)	476 (23.9)	1085 (53.9)
동의	1045 (51.7)	941 (46.7)	811 (40.7)	708 (35.2)
동의 안함	430 (21.3)	395 (19.6)	556 (27.9)	170 (8.4)
전혀동의안함	99 (4.9)	79 (3.9)	148 (7.4)	49 (2.4)
전체	2021 (100.0)	2015 (100.0)	1991 (100.0)	2012 (100.0)

## &lt;부록표 I-9&gt; 평범한 사람으로 원만한 가정을 꾸리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491 (24.3)	1250 (62.1)	1066 (53.5)	1434 (71.1)
동의	1009 (50.0)	533 (26.5)	683 (34.3)	431 (21.4)
동의 안함	412 (20.4)	159 (7.9)	185 (9.3)	87 (4.3)
전혀동의안함	106 (5.3)	72 (3.6)	60 (3.0)	65 (3.2)
전체	2018 (100.0)	2014 (100.0)	1994 (100.0)	2017 (100.0)

## &lt;부록표 I-10&gt;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376 (18.6)	1120 (55.6)	330 (16.6)	1030 (51.3)
동의	1172 (58.0)	691 (34.3)	912 (45.8)	760 (37.8)
동의 안함	400 (19.8)	152 (7.5)	589 (29.6)	145 (7.2)
전혀동의안함	73 (3.6)	51 (2.5)	161 (8.1)	73 (3.6)
전체	2021 (100.0)	2014 (100.0)	1992 (100.0)	2008 (100.0)

## &lt;부록표 I-11&gt; 유명인이 되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363 (18.0)	379 (18.8)	315 (15.8)	658 (32.8)
동의	715 (35.5)	604 (30.0)	403 (20.2)	702 (35.0)
동의 안함	774 (38.4)	808 (40.1)	817 (41.0)	450 (22.4)
전혀동의안함	163 (8.1)	223 (11.1)	456 (22.9)	195 (9.7)
전체	2015 (100.0)	2014 (100.0)	1991 (100.0)	2005 (100.0)

## &lt;부록표 I-12&gt; 자신의 취미나 흥미를 즐기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1139 (56.3)	1329 (65.9)	1241 (62.2)	1429 (70.8)
동의	821 (40.6)	517 (25.6)	619 (31.0)	489 (24.2)
동의 안함	53 (2.6)	126 (6.2)	108 (5.4)	81 (4.0)
전혀동의안함	9 (0.4)	46 (2.3)	27 (1.4)	19 (0.9)
전체	2022 (100.0)	2018 (100.0)	1995 (100.0)	2018 (100.0)

## &lt;부록표 I-13&gt; 자립하는 사람이 되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720 (35.7)	1562 (77.4)	1051 (52.7)	885 (44.0)
동의	1059 (52.5)	351 (17.4)	741 (37.2)	710 (35.3)
동의 안함	207 (10.3)	72 (3.6)	163 (8.2)	280 (13.9)
전혀동의안함	30 (1.5)	33 (1.6)	38 (1.9)	136 (6.8)
전체	2016 (100.0)	2018 (100.0)	1993 (100.0)	2011 (100.0)

## &lt;부록표 I-14&gt; 그날 그날을 즐기며 사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437 (21.6)	1310 (64.9)	1230 (61.7)	1571 (77.9)
동의	670 (33.2)	484 (24.0)	550 (27.6)	354 (17.6)
동의 안함	638 (31.6)	174 (8.6)	156 (7.8)	68 (3.4)
전혀동의안함	276 (13.7)	50 (2.5)	59 (3.0)	23 (1.1)
전체	2021 (100.0)	2018 (100.0)	1995 (100.0)	2016 (100.0)

## &lt;부록표 I-15&gt;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하는 일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382 (18.9)	628 (31.2)	412 (20.7)	899 (20.7)
동의	1133 (56.1)	996 (49.4)	971 (48.7)	810 (48.7)
동의 안함	441 (21.8)	313 (15.5)	491 (24.6)	236 (24.6)
전혀동의안함	65 (3.2)	79 (3.9)	118 (5.9)	71 (5.9)
전체	2021 (100.0)	2016 (100.0)	1992 (100.0)	2016 (100.0)

## &lt;부록표 I-16&gt; 공부를 좀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498 (24.7)	1050 (52.1)	237 (11.9)	1565 (77.8)
동의	963 (47.7)	692 (34.3)	672 (33.7)	381 (18.9)
동의 안함	454 (22.5)	224 (11.1)	786 (39.4)	49 (2.4)
전혀동의안함	103 (5.1)	50 (2.5)	298 (15.0)	17 (0.8)
전체	2018 (100.0)	2016 (100.0)	1993 (100.0)	2012 (100.0)

## &lt;부록표 I-17&gt; 타인이 흉내낼 수 없는 특기를 갖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769 (38.1)	627 (31.1)	714 (35.8)	1235 (61.3)
동의	836 (41.4)	644 (31.9)	673 (33.8)	625 (31.0)
동의 안함	355 (17.6)	562 (27.9)	478 (24.0)	110 (5.5)
전혀동의안함	61 (3.0)	183 (9.1)	127 (6.4)	46 (2.3)
전체	2021 (100.0)	2016 (100.0)	1992 (100.0)	2016 (100.0)

## &lt;부록표 I-18&gt; 다른 사람을 위해 공헌하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364 (18.0)	853 (42.3)	384 (19.3)	1213 (60.2)
동의	1230 (61.0)	870 (43.2)	916 (46.1)	642 (31.9)
동의 안함	370 (18.3)	241 (12.0)	546 (27.5)	108 (5.4)
전혀동의안함	54 (2.7)	52 (2.6)	141 (7.1)	52 (2.6)
전체	2018 (100.0)	2016 (100.0)	1987 (100.0)	2015 (100.0)

## &lt;부록표 I-19&gt; 과학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하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378 (18.7)	552 (27.4)	160 (8.0)	381 (19.0)
동의	721 (35.7)	586 (29.1)	340 (17.1)	533 (26.5)
동의 안함	729 (36.1)	626 (31.1)	940 (47.2)	625 (31.1)
전혀동의안함	191 (9.5)	250 (12.4)	552 (27.7)	471 (23.4)
전체	2019 (100.0)	2014 (100.0)	1992 (100.0)	2010 (100.0)

## &lt;부록표 I-20&gt; 매력적인 이성(남자/여자)를 찾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681 (33.7)	1044 (51.8)	859 (43.1)	1620 (80.6)
동의	898 (44.5)	665 (33.0)	707 (35.5)	290 (14.4)
동의 안함	354 (17.5)	233 (11.6)	330 (16.6)	67 (3.3)
전혀동의안함	87 (4.3)	75 (3.7)	96 (4.8)	33 (1.6)
전체	2020 (100.0)	2017 (100.0)	1992 (100.0)	2010 (100.0)

## &lt;부록표 I-21&gt; 스포츠나 예술분야에서 명성을 얻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425 (21.0)	324 (16.1)	388 (19.5)	701 (34.8)
동의	722 (35.7)	606 (30.0)	516 (25.9)	566 (28.1)
동의 안함	690 (34.1)	755 (37.4)	762 (38.3)	446 (22.2)
전혀동의안함	184 (9.1)	332 (16.5)	326 (16.4)	297 (14.8)
전체	2021 (100.0)	2017 (100.0)	1992 (100.0)	2010 (100.0)

## &lt;부록표 I-22&gt; 수업중에 수다떠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184 (9.2)	136 (6.8)	247 (12.4)	175 (8.7)
동의	488 (24.3)	279 (13.9)	403 (20.2)	446 (22.2)
동의 안함	1055 (52.5)	829 (41.2)	944 (47.4)	818 (40.7)
전혀동의안함	282 (14.0)	770 (38.2)	398 (20.0)	570 (28.4)
전체	2009 (100.0)	2014 (100.0)	1992 (100.0)	2009 (100.0)

## &lt;부록표 I-23&gt;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272 (13.5)	333 (16.6)	685 (34.5)	1072 (53.3)
동의	1091 (54.1)	697 (34.7)	939 (47.3)	712 (35.4)
동의 안함	549 (27.2)	683 (34.0)	304 (15.3)	180 (9.0)
전혀동의안함	104 (5.2)	297 (14.8)	57 (2.9)	46 (2.3)
전체	2016 (100.0)	2010 (100.0)	1985 (100.0)	2010 (100.0)

## &lt;부록표 I-24&gt; 자원봉사는 위선적인 행동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149 (7.4)	138 (6.8)	167 (8.4)	155 (7.7)
동의	439 (21.8)	227 (11.3)	343 (17.3)	256 (12.8)
동의 안함	982 (48.7)	615 (30.5)	834 (42.0)	569 (28.4)
전혀동의안함	448 (22.2)	1035 (51.4)	640 (32.3)	1024 (51.1)
전체	2018 (100.0)	2015 (100.0)	1984 (100.0)	2004 (100.0)

## &lt;부록표 I-25&gt; 주변 사람에게 협조하는 것은 처세의 요령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174 (8.6)	837 (41.5)	298 (15.0)	812 (40.4)
동의	952 (47.3)	769 (38.2)	1010 (51.0)	941 (46.8)
동의 안함	765 (38.0)	301 (14.9)	564 (28.5)	202 (10.0)
전혀동의안함	121 (6.0)	108 (5.4)	110 (5.5)	56 (2.8)
전체	2012 (100.0)	2015 (100.0)	1982 (100.0)	2011 (100.0)

## &lt;부록표 I-26&gt; 모든 사람과 함께라면 나쁜 일을 해도 책임이 가벼워진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147 (7.3)	140 (7.0)	116 (5.8)	380 (19.0)
동의	593 (29.5)	299 (14.9)	353 (17.8)	549 (27.5)
동의 안함	782 (38.9)	702 (34.9)	769 (38.8)	451 (22.6)
전혀동의안함	489 (24.3)	872 (43.3)	746 (37.6)	620 (31.0)
전체	2011 (100.0)	2013 (100.0)	1984 (100.0)	2000 (100.0)

## &lt;부록표 I-27&gt; 다른 사람과 함께 나쁜 행동을 했는데 나만 벌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558 (27.7)	351 (17.5)	791 (39.9)	1058 (53.0)
동의	1012 (50.3)	549 (27.4)	695 (35.1)	549 (27.5)
동의 안함	325 (16.2)	597 (29.7)	357 (18.0)	205 (10.3)
전혀동의안함	116 (5.8)	510 (25.4)	138 (7.0)	183 (9.2)
전체	2011 (100.0)	2007 (100.0)	1981 (100.0)	1995 (100.0)

## &lt;부록표 I-28&gt; 진로계획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진학예정	1572 (78.1)	1560 (77.6)	1218 (62.1)	1660 (82.4)
취직예정	170 (8.4)	208 (10.3)	340 (17.3)	109 (5.4)
결정안함	260 (12.9)	201 (10.0)	360 (18.3)	38 (1.9)
기타(예:주부)	12 (.6)	41 (2.0)	44 (2.2)	208 (10.3)
전체	2014 (100.0)	2010 (100.0)	1962 (100.0)	2015 (100.0)



## &lt;부록표 I-29&gt; 목표결정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확실하게 결정했다.	512 (25.3)	623 (30.9)	416 (20.9)	923 (45.9)
막연하지만 결정했다.	1094 (54.2)	1315 (65.3)	1169 (58.7)	982 (48.8)
결정하지 못했다.	393 (19.5)	60 (3.0)	384 (19.3)	85 (4.2)
전혀 생각해본적 없다.	21 (1.0)	17 (.8)	22 (1.1)	23 (1.1)
전체	2020 (100.0)	2015 (100.0)	1991 (100.0)	2013 (100.0)

## &lt;부록표 I-30&gt; 성공을 위한 노력여부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노력하면서 살겠다.	733 (36.3)	940 (46.8)	1081 (54.2)	167 (8.3)
적절히 노력하면서 살겠다.	1093 (54.1)	704 (35.0)	609 (30.6)	1680 (83.4)
노력보다 취미를 즐기겠다.	186 (9.2)	325 (16.2)	271 (13.6)	138 (6.9)
취미만을 즐기겠다.	8 (.4)	40 (2.0)	32 (1.6)	29 (1.4)
전체	2020 (100.0)	2009 (100.0)	1993 (100.0)	2014 (100.0)

## &lt;부록표 I-31&gt; 장래를 생각하기 보다 지금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167 (8.3)	202 (10.0)	573 (28.9)	547 (27.2)
동의	473 (23.5)	310 (15.4)	754 (38.1)	744 (37.1)
동의 안함	990 (49.2)	741 (36.8)	542 (27.4)	525 (26.1)
전혀동의안함	384 (19.1)	762 (37.8)	112 (5.7)	192 (9.6)
전체	2014 (100.0)	2015 (100.0)	1981 (100.0)	2008 (100.0)

## &lt;부록표 I-32&gt; 너무 일이나 공부만 하는 것은 때분한 인생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698 (34.8)	273 (13.6)	456 (23.0)	640 (31.8)
동의	911 (45.4)	507 (25.2)	692 (34.9)	806 (40.1)
동의 안함	305 (15.2)	651 (32.3)	611 (30.8)	376 (18.7)
전혀동의안함	93 (4.6)	582 (28.9)	225 (11.3)	188 (9.4)
전체	2007 (100.0)	2013 (100.0)	1984 (100.0)	2010 (100.0)

## &lt;부록표 I-33&gt; 장래의 성공은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912 (45.4)	1161 (57.5)	732 (36.9)	993 (49.5)
동의	915 (45.6)	627 (31.1)	848 (42.7)	772 (38.4)
동의 안함	148 (7.4)	171 (8.5)	308 (15.5)	187 (9.3)
전혀동의안함	32 (1.6)	59 (2.9)	97 (4.9)	56 (2.8)
전체	2007 (100.0)	2018 (100.0)	1985 (100.0)	2008 (100.0)

## &lt;부록표 I-34&gt; 장래의 일은 지금 생각해봐도 소용없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78 (3.9)	204 (10.1)	138 (7.0)	214 (10.6)
동의	196 (9.7)	491 (24.4)	293 (14.8)	359 (17.9)
동의 안함	946 (46.9)	784 (38.9)	886 (44.7)	606 (30.1)
전혀동의안함	797 (39.5)	537 (26.6)	665 (33.6)	831 (41.3)
전체	2017 (100.0)	2016 (100.0)	1982 (100.0)	2010 (100.0)

## &lt;부록표 I-35&gt; 나는 미래에 대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953 (47.2)	1344 (66.6)	906 (45.7)	1422 (70.7)
동의	806 (39.9)	474 (23.5)	669 (33.8)	455 (22.6)
동의 안함	217 (10.7)	138 (6.8)	308 (15.5)	84 (4.2)
전혀동의안함	44 (2.2)	61 (3.0)	99 (5.0)	49 (2.4)
전체	2020 (100.0)	2017 (100.0)	1982 (100.0)	2010 (100.0)

## &lt;부록표 I-36&gt; 수면시간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4시간이하	64 (3.2)	16 (.8)	67 (3.4)	77 (3.8)
5시간	176 (8.7)	33 (1.6)	231 (11.6)	74 (3.7)
6시간	487 (24.1)	280 (13.9)	623 (31.3)	210 (10.4)
7시간	624 (30.9)	722 (35.9)	657 (33.0)	434 (21.6)
8시간	434 (21.5)	690 (34.3)	311 (15.6)	669 (33.3)
9시간	170 (8.4)	243 (12.1)	83 (4.2)	340 (16.9)
10시간이상	66 (3.3)	26 (1.3)	21 (1.1)	206 (10.2)
전체	2021 (100.0)	2010 (100.0)	1993 (100.0)	2010 (100.0)

## &lt;부록표 I-37&gt;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123 (6.1)	220 (10.9)	387 (19.5)	169 (8.5)
동의	481 (23.8)	425 (21.1)	888 (44.7)	547 (27.5)
동의 안함	1105 (54.7)	720 (35.7)	529 (26.6)	669 (33.6)
전혀동의안함	311 (15.4)	653 (32.4)	183 (9.2)	606 (30.4)
전체	2020 (100.0)	2018 (100.0)	1987 (100.0)	1991 (100.0)

## &lt;부록표 I-38&gt; 그렇게 되면 권력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120 (5.9)	164 (8.1)	332 (16.7)	156 (7.8)
동의	504 (24.9)	458 (22.7)	683 (34.4)	404 (20.3)
동의 안함	941 (46.6)	720 (35.7)	636 (32.0)	527 (26.5)
전혀동의안함	456 (22.6)	675 (33.5)	337 (17.0)	904 (45.4)
전체	2021 (100.0)	2017 (100.0)	1988 (100.0)	1991 (100.0)

## &lt;부록표 I-39&gt;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189 (9.4)	78 (3.9)	258 (13.0)	251 (12.7)
동의	554 (27.4)	167 (8.3)	489 (24.6)	390 (19.7)
동의 안함	967 (47.9)	629 (31.2)	805 (40.5)	572 (28.9)
전혀동의안함	310 (15.3)	1144 (56.7)	436 (21.9)	764 (38.6)
전체	2020 (100.0)	2018 (100.0)	1988 (100.0)	1977 (100.0)

## &lt;부록표 I-40&gt; 그렇게 되면 책임이 무거워진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655 (32.4)	155 (7.7)	575 (28.9)	886 (44.5)
동의	1107 (54.8)	381 (18.9)	852 (42.8)	724 (36.3)
동의 안함	205 (10.1)	803 (39.8)	429 (21.6)	268 (13.4)
전혀동의안함	53 (2.6)	678 (33.6)	134 (6.7)	115 (5.8)
전체	2020 (100.0)	2017 (100.0)	1990 (100.0)	1993 (100.0)

## &lt;부록표 I-41&gt;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희생을 해야한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625 (31.0)	86 (4.3)	324 (16.3)	662 (33.3)
동의	1055 (52.3)	207 (10.3)	757 (38.1)	795 (40.0)
동의 안함	272 (13.5)	748 (37.1)	721 (36.2)	367 (18.5)
전혀동의안함	66 (3.3)	975 (48.4)	187 (9.4)	165 (8.3)
전체	2018 (100.0)	2016 (100.0)	1989 (100.0)	1989 (100.0)

## &lt;부록표 I-42&gt;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시간이 없을 것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302 (14.9)	138 (6.8)	507 (25.5)	268 (13.5)
동의	976 (48.3)	361 (17.9)	752 (37.9)	612 (30.8)
동의 안함	644 (31.9)	771 (38.2)	562 (28.3)	712 (35.9)
전혀동의안함	99 (4.9)	748 (37.1)	165 (8.3)	392 (19.8)
전체	2021 (100.0)	2018 (100.0)	1986 (100.0)	1984 (100.0)

## &lt;부록표 I-43&gt; 그렇게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212 (10.5)	240 (11.9)	518 (26.0)	235 (12.0)
동의	578 (28.6)	325 (16.1)	570 (28.6)	757 (38.6)
동의 안함	842 (41.7)	540 (26.8)	676 (34.0)	660 (33.7)
전혀동의안함	387 (19.2)	912 (45.2)	227 (11.4)	307 (15.7)
전체	2019 (100.0)	2017 (100.0)	1991 (100.0)	1959 (100.0)

## &lt;부록표 I-44&gt; 그렇게 되면 부자가 된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277 (13.7)	192 (9.5)	632 (31.7)	195 (9.8)
동의	720 (35.6)	390 (19.3)	802 (40.3)	364 (18.3)
동의 안함	735 (36.4)	683 (33.9)	385 (19.3)	611 (30.7)
전혀동의안함	288 (14.3)	752 (37.3)	173 (8.7)	822 (41.3)
전체	2020 (100.0)	2017 (100.0)	1992 (100.0)	1992 (100.0)

## &lt;부록표 I-45&gt; 타고난 IQ가 높은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123 (7.0)	285 (14.1)	299 (15.0)	633 (31.6)
동의	481 (37.1)	598 (29.6)	680 (34.2)	943 (47.0)
동의 안함	1105 (44.2)	770 (38.2)	686 (34.5)	349 (17.4)
전혀동의안함	311 (11.7)	364 (18.0)	325 (16.3)	81 (4.0)
전체	2020 (100.0)	2017 (100.0)	1990 (100.0)	2006 (100.0)

## &lt;부록표 I-46&gt; 사교술이 좋은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505 (25.0)	234 (11.6)	529 (26.6)	1114 (55.3)
동의	1130 (56.0)	704 (34.9)	834 (42.0)	735 (36.5)
동의 안함	326 (16.1)	652 (32.4)	500 (25.2)	127 (6.3)
전혀동의안함	58 (2.9)	425 (21.1)	123 (6.2)	38 (1.9)
전체	2019 (100.0)	2015 (100.0)	1986 (100.0)	2014 (100.0)

## &lt;부록표 I-47&gt;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를 갖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916 (45.3)	609 (30.3)	844 (42.3)	850 (42.7)
동의	998 (49.4)	836 (41.5)	848 (42.5)	857 (43.0)
동의 안함	88 (4.4)	436 (21.7)	244 (12.2)	226 (11.3)
전혀동의안함	19 (.9)	132 (6.6)	57 (2.9)	59 (3.0)
전체	2021 (100.0)	2013 (100.0)	1993 (100.0)	1992 (100.0)

## &lt;부록표 I-48&gt; 지식을 넓히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621 (30.7)	1244 (61.9)	833 (41.9)	925 (46.2)
동의	1210 (59.9)	586 (29.1)	845 (42.5)	848 (42.3)
동의 안함	171 (8.5)	133 (6.6)	253 (12.7)	189 (9.4)
전혀동의안함	18 (.9)	48 (2.4)	59 (3.0)	41 (2.0)
전체	2020 (100.0)	2011 (100.0)	1990 (100.0)	2003 (100.0)

## &lt;부록표 I-49&gt; 상관에게 아침하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71 (3.5)	176 (8.8)	150 (7.5)	253 (12.7)
동의	263 (13.0)	368 (18.3)	473 (23.8)	659 (33.1)
동의 안함	811 (40.2)	663 (33.0)	899 (45.2)	761 (38.2)
전혀동의안함	874 (43.3)	803 (40.0)	466 (23.4)	318 (16.0)
전체	2019 (100.0)	2010 (100.0)	1988 (100.0)	1991 (100.0)

## &lt;부록표 I-50&gt; 특기를 가지고 있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926 (45.8)	816 (40.5)	826 (41.5)	879 (44.3)
동의	996 (49.3)	798 (39.6)	774 (38.9)	828 (41.7)
동의 안함	85 (4.2)	274 (13.6)	305 (15.3)	236 (11.9)
전혀동의안함	14 (.7)	128 (6.3)	85 (4.3)	43 (2.2)
전체	2021 (100.0)	2016 (100.0)	1990 (100.0)	1986 (100.0)

## &lt;부록표 I-51&gt; 정직한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827 (40.9)	1031 (51.1)	621 (31.2)	1299 (65.1)
동의	912 (45.1)	667 (33.1)	724 (36.3)	514 (25.8)
동의 안함	243 (12.0)	251 (12.5)	513 (25.8)	133 (6.7)
전혀동의안함	39 (1.9)	67 (3.3)	134 (6.7)	48 (2.4)
전체	2021 (100.0)	2016 (100.0)	1992 (100.0)	1994 (100.0)

## &lt;부록표 I-52&gt; 모든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솔선해서 하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533 (26.4)	902 (44.7)	688 (34.6)	665 (33.2)
동의	1013 (50.1)	773 (38.3)	859 (43.2)	822 (41.0)
동의 안함	394 (19.5)	276 (13.7)	349 (17.5)	422 (21.1)
전혀동의안함	81 (4.0)	66 (3.3)	94 (4.7)	95 (4.7)
전체	2021 (100.0)	2017 (100.0)	1990 (100.0)	1994 (100.0)

&lt;부록표 I -53&gt; 유머감각이 있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409 (20.2)	644 (31.9)	693 (34.8)	1089 (54.2)
동의	1196 (59.2)	744 (36.9)	913 (45.9)	696 (34.6)
동의 안함	387 (19.1)	522 (25.9)	308 (15.5)	176 (8.8)
전혀동의안함	29 (1.4)	106 (5.3)	77 (3.9)	50 (2.5)
전체	2021 (100.0)	2016 (100.0)	1991 (100.0)	2011 (100.0)

&lt;부록표 I -54&gt; 친구들을 많이 갖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658 (32.6)	705 (35.0)	915 (45.9)	771 (38.5)
동의	1069 (52.9)	774 (38.4)	816 (41.0)	765 (38.2)
동의 안함	260 (12.9)	427 (21.2)	205 (10.3)	372 (18.6)
전혀동의안함	33 (1.6)	109 (5.4)	56 (2.8)	96 (4.8)
전체	2020 (100.0)	2015 (100.0)	1992 (100.0)	2004 (100.0)

&lt;부록표 I -55&gt; 좋은 학력을 갖고 있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418 (20.7)	1085 (53.8)	352 (17.7)	1364 (67.9)
동의	927 (45.9)	666 (33.0)	692 (34.8)	502 (25.0)
동의 안함	552 (27.3)	214 (10.6)	681 (34.2)	107 (5.3)
전혀동의안함	123 (6.1)	51 (2.5)	264 (13.3)	36 (1.8)
전체	2020 (100.0)	2016 (100.0)	1989 (100.0)	2009 (100.0)

&lt;부록표 I -56&gt; 좋은 사람과 우연히 알게될 기회를 갖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326 (16.2)	551 (27.3)	717 (36.0)	555 (27.6)
동의	910 (45.2)	778 (38.6)	822 (41.3)	767 (38.2)
동의 안함	637 (31.6)	522 (25.9)	371 (18.6)	521 (25.9)
전혀동의안함	141 (7.0)	164 (8.1)	81 (4.1)	165 (8.2)
전체	2014 (100.0)	2015 (100.0)	1991 (100.0)	2008 (100.0)

## &lt;부록표 I-57&gt; 부모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225 (11.1)	241 (11.9)	203 (10.2)	306 (15.3)
동의	500 (24.8)	540 (26.8)	481 (24.2)	597 (29.8)
동의 안함	834 (41.3)	826 (41.0)	797 (40.1)	718 (35.8)
전혀동의안함	459 (22.7)	410 (20.3)	507 (25.5)	384 (19.2)
전체	2018 (100.0)	2017 (100.0)	1988 (100.0)	2005 (100.0)

## &lt;부록표 I-58&gt; 유력한 연줄을 갖고 있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199 (9.9)	207 (10.3)	237 (11.9)	510 (25.4)
동의	575 (28.5)	432 (21.4)	483 (24.3)	721 (35.9)
동의 안함	858 (42.5)	809 (40.1)	789 (39.7)	515 (25.7)
전혀동의안함	385 (19.1)	568 (28.2)	478 (24.1)	260 (13.0)
전체	2017 (100.0)	2016 (100.0)	1987 (100.0)	2006 (100.0)

## &lt;부록표 I-59&gt; 부자인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256 (12.7)	188 (9.3)	226 (11.4)	430 (21.5)
동의	550 (27.3)	459 (22.8)	511 (25.7)	685 (34.2)
동의 안함	797 (39.5)	754 (37.5)	776 (39.0)	562 (28.1)
전혀동의안함	415 (20.6)	612 (30.4)	475 (23.9)	325 (16.2)
전체	2018 (100.0)	2013 (100.0)	1988 (100.0)	2002 (100.0)

## &lt;부록표 I-60&gt;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239 (11.8)	873 (43.3)	411 (20.7)	333 (16.6)
동의	844 (41.8)	739 (36.7)	790 (39.8)	780 (38.9)
동의 안함	788 (39.1)	334 (16.6)	642 (32.4)	628 (31.3)
전혀동의안함	146 (7.2)	70 (3.5)	141 (7.1)	265 (13.2)
전체	2017 (100.0)	2016 (100.0)	1984 (100.0)	2006 (100.0)



## &lt;부록표 I-61&gt;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중요시하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847 (42.0)	896 (44.4)	981 (49.3)	835 (41.6)
동의	1010 (50.0)	769 (38.1)	753 (37.9)	917 (45.7)
동의 안함	133 (6.6)	281 (13.9)	199 (10.0)	189 (9.4)
전혀동의안함	29 (1.4)	72 (3.6)	55 (2.8)	67 (3.3)
전체	2019 (100.0)	2018 (100.0)	1988 (100.0)	2008 (100.0)

## &lt;부록표 I-62&gt; 공부를 잘하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441 (21.8)	1532 (75.9)	450 (22.6)	956 (47.5)
동의	1141 (56.5)	417 (20.7)	1009 (50.6)	824 (40.9)
동의 안함	338 (16.7)	47 (2.3)	384 (19.3)	170 (8.4)
전혀동의안함	101 (5.0)	22 (1.1)	151 (7.6)	63 (3.1)
전체	2021 (100.0)	2018 (100.0)	1996 (100.0)	2013 (100.0)

## &lt;부록표 I-63&gt; 과외교습을 받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29 (1.4)	77 (3.8)	49 (2.5)	122 (6.1)
동의	283 (14.0)	511 (25.4)	222 (11.1)	414 (20.6)
동의 안함	1090 (53.9)	1048 (52.0)	935 (46.9)	746 (37.2)
전혀동의안함	620 (30.7)	378 (18.8)	787 (39.5)	725 (36.1)
전체	2022 (100.0)	2014 (100.0)	1993 (100.0)	2007 (100.0)

## &lt;부록표 I-64&gt;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 전문적인 분야까지 공부하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919 (45.5)	781 (38.7)	651 (32.7)	860 (42.8)
동의	868 (43.0)	899 (44.5)	870 (43.7)	846 (42.1)
동의 안함	191 (9.5)	296 (14.7)	386 (19.4)	225 (11.2)
전혀동의안함	42 (2.1)	42 (2.1)	82 (4.1)	78 (3.9)
전체	2020 (100.0)	2018 (100.0)	1989 (100.0)	2009 (100.0)

## &lt;부록표 I-65&gt; 목표하는 대학의 수험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355 (17.6)	863 (42.8)	304 (15.3)	1261 (62.5)
동의	845 (41.9)	815 (40.4)	797 (40.2)	540 (26.8)
동의 안함	642 (31.8)	285 (14.1)	678 (34.2)	155 (7.7)
전혀동의안함	175 (8.7)	53 (2.6)	205 (10.3)	61 (3.0)
전체	2017 (100.0)	2016 (100.0)	1984 (100.0)	2017 (100.0)

## &lt;부록표 I-66&gt; 동아리(서클)활동에 열중하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266 (13.2)	350 (17.4)	639 (32.0)	890 (44.3)
동의	992 (49.2)	791 (39.2)	827 (41.5)	709 (35.3)
동의 안함	630 (31.2)	730 (36.2)	388 (19.5)	279 (13.9)
전혀동의안함	130 (6.4)	146 (7.2)	140 (7.0)	132 (6.6)
전체	2018 (100.0)	2017 (100.0)	1994 (100.0)	2010 (100.0)

## &lt;부록표 I-67&gt; 친구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202 (10.0)	714 (35.4)	940 (47.2)	806 (40.3)
동의	1023 (50.6)	838 (41.6)	824 (41.3)	750 (37.5)
동의 안함	672 (33.3)	341 (16.9)	191 (9.6)	299 (15.0)
전혀동의안함	124 (6.1)	122 (6.1)	38 (1.9)	143 (7.2)
전체	2021 (100.0)	2015 (100.0)	1993 (100.0)	1998 (100.0)

## &lt;부록표 I-68&gt; 학교행사에 열중하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213 (10.5)	388 (19.2)	491 (24.6)	925 (46.0)
동의	1140 (56.4)	787 (39.0)	878 (44.1)	810 (40.3)
동의 안함	535 (28.9)	688 (34.1)	509 (25.5)	216 (10.8)
전혀동의안함	84 (4.2)	153 (7.6)	115 (5.8)	58 (2.9)
전체	2022 (100.0)	2016 (100.0)	1993 (100.0)	2009 (100.0)

## &lt;부록표 I-69&gt; 봉사활동에 열중하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260 (12.9)	387 (19.2)	303 (15.2)	550 (27.6)
동의	1170 (57.9)	938 (46.5)	865 (43.5)	892 (44.8)
동의 안함	501 (24.8)	572 (28.4)	641 (32.2)	425 (21.3)
전혀동의안함	89 (4.4)	120 (5.9)	181 (9.1)	126 (6.3)
전체	2020 (100.0)	2017 (100.0)	1990 (100.0)	1993 (100.0)

## &lt;부록표 I-70&gt; 특기를 개발하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967 (47.9)	866 (42.9)	886 (44.5)	1091 (54.4)
동의	926 (45.8)	747 (37.0)	788 (39.6)	714 (35.6)
동의 안함	105 (5.2)	326 (16.2)	282 (14.2)	162 (8.1)
전혀동의안함	22 (1.1)	78 (3.9)	36 (1.8)	39 (1.9)
전체	2020 (100.0)	2018 (100.0)	1992 (100.0)	2006 (100.0)

## &lt;부록표 I-71&gt; 학급의 반장이 되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70 (3.5)	244 (12.1)	114 (5.7)	603 (30.1)
동의	349 (17.3)	699 (34.7)	338 (17.0)	748 (37.3)
동의 안함	1213 (60.0)	807 (40.0)	1106 (55.5)	492 (24.6)
전혀동의안함	390 (19.3)	267 (13.2)	436 (21.9)	161 (8.0)
전체	2022 (100.0)	2017 (100.0)	1994 (100.0)	2004 (100.0)

## &lt;부록표 I-72&gt; 친구를 만드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1107 (54.8)	1154 (57.2)	1297 (65.1)	1383 (69.5)
동의	862 (42.7)	656 (32.5)	564 (28.3)	442 (22.2)
동의 안함	45 (2.2)	172 (8.5)	97 (4.9)	110 (5.5)
전혀동의안함	7 (.3)	35 (1.7)	33 (1.7)	56 (2.8)
전체	2021 (100.0)	2017 (100.0)	1991 (100.0)	1991 (100.0)

## &lt;부록표 I-73&gt;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962 (47.6)	598 (29.7)	912 (45.8)	841 (42.0)
동의	921 (45.6)	765 (38.0)	794 (39.9)	808 (40.4)
동의 안함	114 (5.6)	513 (25.5)	240 (12.1)	257 (12.8)
전혀동의안함	22 (1.1)	135 (6.7)	44 (2.2)	96 (4.8)
전체	2019 (100.0)	2011 (100.0)	1990 (100.0)	2002 (100.0)

## &lt;부록표 I-74&gt; 인생의 선배로써 훌륭한 교사를 만나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695 (34.4)	1129 (55.9)	419 (21.1)	922 (45.9)
동의	998 (49.4)	668 (33.1)	759 (38.1)	730 (36.4)
동의 안함	254 (12.6)	187 (9.3)	602 (30.3)	233 (11.6)
전혀동의안함	73 (3.6)	34 (1.7)	210 (10.6)	122 (6.1)
전체	2020 (100.0)	2018 (100.0)	1990 (100.0)	2008 (100.0)

## &lt;부록표 I-75&gt; 애인을 만나는 것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336 (16.6)	221 (11.0)	645 (32.4)	1147 (57.3)
동의	659 (32.6)	335 (16.6)	697 (35.0)	486 (24.3)
동의 안함	742 (36.7)	683 (33.9)	508 (25.5)	244 (12.2)
전혀동의안함	285 (14.1)	777 (38.5)	143 (7.2)	126 (6.3)
전체	2022 (100.0)	2016 (100.0)	1993 (100.0)	2003 (100.0)

## &lt;부록표 I-76&gt; TV에 나오는 것은 가공세계의 것으로 현실 생활과는 다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232 (11.5)	479 (23.7)	650 (32.9)	314 (15.6)
동의	1063 (52.6)	878 (43.5)	914 (46.2)	882 (43.9)
동의 안함	665 (32.9)	527 (26.1)	341 (17.2)	608 (30.3)
전혀동의안함	59 (2.9)	134 (6.6)	73 (3.7)	204 (10.2)
전체	2019 (100.0)(1)	2018 (100.0)	1978 (100.0)	2008 (100.0)

<부록표 I-77> TV에 나오는 모습에서 좋은 것을 나도 해보고 싶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574 (28.4)	154 (7.6)	362 (18.2)	472 (23.4)
동의	1226 (60.7)	502 (24.9)	719 (36.1)	803 (39.9)
동의 안함	178 (8.8)	825 (40.9)	665 (33.4)	444 (22.0)
전혀동의안함	41 (2.0)	535 (26.5)	244 (12.3)	295 (14.6)
전체	2019 (100.0)	2016 (100.0)	1990 (100.0)	2014 (100.0)

<부록표 I-78> 나는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것이 재미있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547 (27.1)	513 (25.5)	529 (26.6)	859 (43.1)
동의	981 (48.6)	606 (30.1)	774 (39.0)	819 (41.1)
동의 안함	413 (20.4)	550 (27.3)	520 (26.2)	224 (11.2)
전혀동의안함	79 (3.9)	345 (17.1)	164 (8.3)	90 (4.5)
전체	2020 (100.0)	2014 (100.0)	1987 (100.0)	1992 (100.0)

<부록표 I-79> 나는 연애를 주제로 한 TV드라마를 좋아한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442 (21.9)	167 (8.3)	607 (30.5)	363 (18.1)
동의	909 (45.0)	487 (24.3)	680 (34.2)	611 (30.4)
동의 안함	554 (27.4)	737 (36.7)	516 (25.9)	651 (32.4)
전혀동의안함	115 (5.7)	615 (30.7)	187 (9.4)	384 (19.1)
전체	2020 (100.0)	2006 (100.0)	1990 (100.0)	2009 (100.0)

<부록표 I-80> 청소년의 폭력, 약물, 매춘 등의 행동은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있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364 (18.0)	541 (26.8)	532 (26.8)	512 (25.6)
동의	918 (45.5)	607 (30.1)	743 (37.4)	879 (43.9)
동의 안함	472 (23.4)	386 (19.1)	491 (24.7)	448 (22.4)
전혀동의안함	265 (13.1)	482 (23.9)	222 (11.2)	162 (8.1)
전체	2019 (100.0)	2016 (100.0)	1988 (100.0)	2001 (100.0)

<부록표 I-81> 나는 사회에서 비난받을 유행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351 (17.4)	465 (23.1)	393 (19.9)	393 (19.6)
동의	1205 (59.7)	786 (39.0)	1024 (51.8)	788 (39.4)
동의 안함	412 (20.4)	578 (28.7)	479 (24.2)	579 (28.9)
전혀동의안함	49 (2.4)	187 (9.3)	82 (4.1)	241 (12.0)
전체	2017 (100.0)	2016 (100.0)	1978 (100.0)	2001 (100.0)

<부록표 I-82> 유행이 좋은가 나쁜가 보다 그것에 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183 (9.1)	214 (10.6)	134 (6.8)	331 (16.5)
동의	604 (30.0)	468 (23.2)	420 (21.2)	661 (32.9)
동의 안함	933 (46.4)	704 (35.0)	966 (48.7)	630 (31.4)
전혀동의안함	291 (14.5)	628 (31.2)	465 (23.4)	385 (19.2)
전체	2011 (100.0)	2014 (100.0)	1985 (100.0)	2007 (100.0)

<부록표 I-83> 유행에 따르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116 (5.8)	321 (16.0)	262 (13.2)	557 (27.8)
동의	536 (26.9)	508 (25.2)	659 (33.3)	909 (45.4)
동의 안함	968 (48.5)	706 (35.1)	739 (37.3)	372 (18.6)
전혀동의안함	375 (18.8)	477 (23.7)	319 (16.1)	163 (8.1)
전체	1995 (100.0)	2012 (100.0)	1979 (100.0)	2001 (100.0)

<부록표 I-84> 내 맘에 들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도 나는 하지 않는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451 (22.5)	791 (39.2)	505 (25.5)	945 (47.3)
동의	1014 (50.5)	618 (30.6)	779 (39.4)	715 (35.8)
동의 안함	484 (24.1)	418 (20.7)	588 (29.7)	243 (12.2)
전혀동의안함	58 (2.9)	190 (9.4)	105 (5.3)	94 (4.7)
전체	2007 (100.0)	2017 (100.0)	1981 (100.0)	1997 (100.0)

<부록표 I-85>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항상 따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475 (23.6)	225 (11.1)	235 (11.8)	486 (24.3)
동의	1006 (50.0)	440 (21.8)	590 (29.7)	786 (39.4)
동의 안함	474 (23.6)	903 (44.7)	917 (46.2)	541 (27.1)
전혀동의안함	57 (2.8)	450 (22.3)	243 (12.2)	183 (9.2)
전체	2012 (100.0)	2018 (100.0)	1985 (100.0)	1996 (100.0)

<부록표 I-86> 인류에게 있어 21세기는 희망찬 사회가 될 것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271 (13.4)	1115 (55.3)	130 (6.5)	162 (8.1)
동의	1087 (53.8)	728 (36.1)	655 (32.8)	1139 (56.7)
동의 안함	553 (27.4)	137 (6.8)	918 (46.0)	549 (27.3)
전혀동의안함	110 (5.4)	38 (1.9)	292 (14.6)	159 (7.9)
전체	2022 (100.0)	2018 (100.0)	1995 (100.0)	2009 (100.0)

<부록표 I-87> 세계는 지금보다 더 평화로울 것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168 (8.3)	648 (32.1)	108 (5.4)	97 (4.8)
동의	756 (37.4)	870 (43.2)	538 (27.0)	622 (30.9)
동의 안함	924 (45.7)	406 (20.1)	1052 (52.8)	855 (42.5)
전혀동의안함	172 (8.5)	92 (4.6)	296 (14.8)	440 (21.8)
전체	2022 (100.0)	2016 (100.0)	1994 (100.0)	2014 (100.0)

<부록표 I-88> 국민생활은 지금보다 풍요로워 질 것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270 (13.4)	969 (48.1)	124 (6.3)	629 (31.3)
동의	1045 (51.7)	748 (37.2)	511 (25.8)	953 (47.4)
동의 안함	580 (28.7)	237 (11.8)	987 (49.8)	319 (15.9)
전혀동의안함	125 (6.2)	59 (2.9)	360 (18.2)	108 (5.4)
전체	2020 (100.0)	2013 (100.0)	1982 (100.0)	2009 (100.0)

<부록표 I-89>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많아질 것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556 (27.5)	1396 (69.3)	436 (22.0)	198 (10.0)
동의	1074 (53.1)	472 (23.4)	991 (49.9)	855 (43.0)
동의 안함	329 (16.3)	116 (5.8)	451 (22.7)	676 (34.0)
전혀동의안함	63 (3.1)	31 (1.5)	108 (5.4)	258 (13.0)
전체	2022 (100.0)	2015 (100.0)	1986 (100.0)	1987 (100.0)

<부록표 I-90> 규제없이 자유로운 경쟁으로 인류는 행복해질 것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121 (6.0)	375 (18.6)	100 (5.0)	207 (10.5)
동의	587 (29.1)	847 (42.0)	385 (19.4)	921 (46.5)
동의 안함	1109 (54.9)	636 (31.6)	1070 (53.9)	660 (33.3)
전혀동의안함	203 (10.0)	157 (7.8)	431 (21.7)	192 (9.7)
전체	2020 (100.0)	2015 (100.0)	1986 (100.0)	1880 (100.0)

<부록표 I-91> 인간과 인간은 훨씬 신뢰있는 관계가 될 것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105 (5.2)	324 (16.1)	84 (4.2)	214 (10.7)
동의	436 (21.6)	660 (32.8)	411 (20.6)	668 (33.4)
동의 안함	1029 (51.0)	699 (34.7)	1070 (53.7)	780 (39.0)
전혀동의안함	448 (22.2)	331 (16.4)	428 (21.5)	340 (17.0)
전체	2018 (100.0)	2014 (100.0)	1993 (100.0)	2002 (100.0)

<부록표 I-92> 과학의 진보로 인류는 보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283 (14.0)	988 (49.1)	186 (9.4)	591 (29.5)
동의	904 (44.8)	736 (36.6)	623 (31.4)	838 (41.8)
동의 안함	683 (33.9)	235 (11.7)	872 (43.9)	441 (22.0)
전혀동의안함	147 (7.3)	54 (2.7)	306 (15.4)	135 (6.7)
전체	2017 (100.0)	2013 (100.0)	1987 (100.0)	2005 (100.0)



## &lt;부록표 I-93&gt; 암과 같은 난치병이 정복될 것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881 (43.7)	927 (46.0)	542 (27.2)	736 (36.6)
동의	884 (43.8)	811 (40.2)	951 (47.7)	882 (43.8)
동의 안함	178 (8.8)	218 (10.8)	401 (20.1)	279 (13.9)
전혀동의안함	75 (3.7)	60 (3.0)	99 (5.0)	116 (5.8)
전체	2018 (100.0)	2016 (100.0)	1993 (100.0)	2013 (100.0)

## &lt;부록표 I-94&gt; 학습경쟁은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334 (16.6)	264 (13.1)	198 (9.9)	157 (7.8)
동의	993 (49.2)	515 (25.6)	542 (27.2)	500 (24.8)
동의 안함	510 (25.3)	651 (32.3)	705 (35.4)	848 (42.1)
전혀동의안함	181 (9.0)	584 (29.0)	545 (27.4)	510 (25.3)
전체	2018 (100.0)	2014 (100.0)	1990 (100.0)	2015 (100.0)

## &lt;부록표 I-95&gt; 지금보다 자유롭고 규제가 적은 사회가 될 것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243 (12.1)	415 (20.6)	131 (6.6)	100 (5.0)
동의	911 (45.2)	871 (43.2)	483 (24.2)	308 (15.3)
동의 안함	682 (33.8)	537 (26.6)	958 (48.0)	876 (43.6)
전혀동의안함	179 (8.9)	193 (9.6)	422 (21.2)	723 (36.0)
전체	2015 (100.0)	2016 (100.0)	1994 (100.0)	2007 (100.0)

## &lt;부록표 I-96&gt; 노력할 필요가 적게 되어 한가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183 (9.1)	104 (5.2)	131 (6.6)	152 (7.6)
동의	650 (32.2)	170 (8.4)	292 (14.7)	480 (23.9)
동의 안함	779 (38.6)	491 (24.4)	800 (40.2)	742 (36.9)
전혀동의안함	405 (20.1)	1251 (62.1)	768 (38.6)	638 (31.7)
전체	2017 (100.0)	2016 (100.0)	1991 (100.0)	2012 (100.0)

## &lt;부록표 I-97&gt; 빈부차가 적어질 것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110 (5.5)	290 (14.4)	92 (4.6)	161 (8.0)
동의	527 (26.1)	681 (33.8)	360 (18.1)	577 (28.7)
동의 안함	863 (42.8)	640 (31.8)	837 (42.0)	751 (37.3)
전혀동의안함	516 (25.6)	404 (20.0)	703 (35.3)	523 (26.0)
전체	2016 (100.0)	2015 (100.0)	1992 (100.0)	2012 (100.0)

## &lt;부록표 I-98&gt; 도시보다 전원이 살기 편해질 것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627 (31.1)	517 (25.7)	694 (34.9)	513 (25.6)
동의	960 (47.7)	872 (43.3)	769 (38.6)	926 (46.2)
동의 안함	340 (16.9)	493 (24.5)	409 (20.5)	422 (21.0)
전혀동의안함	87 (4.3)	131 (6.5)	119 (6.0)	145 (7.2)
전체	2014 (100.0)	2013 (100.0)	1991 (100.0)	2006 (100.0)

## &lt;부록표 I-99&gt; 남녀평등이 더 많이 실현될 것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713 (35.4)	1157 (57.4)	576 (29.0)	600 (29.9)
동의	971 (48.2)	623 (30.9)	921 (46.4)	959 (47.9)
동의 안함	205 (10.2)	163 (8.1)	394 (19.8)	332 (16.6)
전혀동의안함	127 (6.3)	73 (3.6)	94 (4.7)	113 (5.6)
전체	2016 (100.0)	2016 (100.0)	1985 (100.0)	2004 (100.0)

## &lt;부록표 I-100&gt; 자신의 능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670 (33.2)	923 (45.8)	317 (15.9)	349 (17.4)
동의	1033 (51.2)	822 (40.8)	808 (40.5)	1065 (53.0)
동의 안함	256 (12.7)	227 (11.3)	694 (34.8)	482 (24.0)
전혀동의안함	58 (2.9)	44 (2.2)	174 (8.7)	112 (5.6)
전체	2017 (100.0)	2016 (100.0)	1993 (100.0)	2008 (100.0)

## &lt;부록표 I-101&gt; 부정부패가 적어질 것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148 (7.3)	379 (7.3)	49 (2.5)	113 (5.6)
동의	471 (23.3)	726 (23.3)	266 (13.4)	429 (21.4)
동의 안함	825 (40.9)	613 (40.9)	859 (43.2)	775 (38.7)
전혀동의안함	574 (28.4)	295 (28.4)	816 (41.0)	688 (34.3)
전체	2018 (100.0)	2013 (100.0)	1990 (100.0)	2005 (100.0)

## &lt;부록표 I-102&gt; 지금보다 질서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157 (7.8)	547 (27.1)	89 (4.5)	137 (6.9)
동의	700 (34.7)	1000 (49.6)	471 (23.6)	575 (28.9)
동의 안함	856 (42.5)	358 (17.8)	997 (50.1)	826 (41.5)
전혀동의안함	303 (15.0)	110 (5.5)	435 (21.8)	453 (22.8)
전체	2016 (100.0)	2015 (100.0)	1992 (100.0)	1991 (100.0)

## &lt;부록표 I-103&gt; 범죄나 비행이 지금보다 적어질 것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108 (5.3)	350 (17.4)	49 (2.5)	149 (7.4)
동의	425 (21.1)	770 (38.2)	134 (6.7)	551 (27.5)
동의 안함	956 (47.4)	644 (32.0)	747 (37.5)	819 (40.9)
전혀동의안함	530 (26.3)	251 (12.5)	1062 (53.3)	485 (24.2)
전체	2019 (100.0)	2015 (100.0)	1992 (100.0)	2004 (100.0)

## &lt;부록표 I-104&gt; 종교가 지금보다 증시될 것이다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매우 동의	194 (9.6)	210 (10.4)	91 (4.6)	334 (16.6)
동의	690 (34.2)	591 (29.3)	346 (17.4)	625 (31.1)
동의 안함	831 (41.1)	795 (39.4)	878 (44.1)	732 (36.4)
전혀동의안함	305 (15.1)	421 (20.9)	678 (34.0)	320 (15.9)
전체	2020 (100.0)	2017 (100.0)	1993 (100.0)	2011 (100.0)

## □ 변인별분석표

&lt;부록표 II-1&gt; 봉사활동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90	1.61	2.43	1.77	.650	.510	.095	.001
	녀	1.91	1.58	2.37	1.54				
교급	중	1.79	1.59	2.31	1.67	.000	.767	.000	.000
	고	2.02	1.60	2.51	1.64				
계열	인	1.97	1.57	2.48	1.65	.000	.109	.003	.732
	실	2.12	1.66	2.60	1.74				
성적	상	1.85	1.47	2.33	1.54	.000	.000	.000	.000
	중	1.86	1.63	2.40	1.67				
	하	1.97	1.72	2.50	2.07				

&lt;부록표 II-2&gt; 특별활동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01	1.53	1.72	2.75	.000	.470	.000	.140
	녀	2.17	1.55	1.90	3.03				
교급	중	1.94	1.50	1.69	2.91	.000	.009	.000	.084
	고	2.23	1.58	1.98	2.87				
계열	인	2.30	1.59	1.94	2.89	.000	.109	.004	.022
	실	2.10	1.56	2.12	2.84				
성적	상	2.10	1.44	1.80	2.98	.684	.000	.175	.000
	중	2.07	1.56	1.85	2.85				
	하	2.11	1.65	1.89	2.69				

## &lt;부록표 II-3&gt;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은 한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21	1.72	1.87	1.77	.001	.700	.106	.000
	녀	2.10	1.73	1.82	1.54				
교급	중	2.17	1.69	1.90	1.67	.241	.035	.001	.372
	고	2.14	1.76	1.79	1.64				
계열	인	2.12	1.82	1.77	1.65	.301	.000	.104	.174
	실	2.17	1.64	1.85	1.74				
성적	상	2.06	1.66	1.73	1.54	.000	.003	.000	.000
	중	2.09	1.73	1.82	1.67				
	하	2.16	1.83	1.95	2.07				

## &lt;부록표 II-4&gt;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53	1.94	1.67	2.55	.000	.585	.168	.000
	녀	2.65	1.96	1.62	2.76				
교급	중	2.59	2.07	1.67	2.49	.876	.000	.066	.000
	고	2.59	1.83	1.61	2.81				
계열	인	2.57	1.89	1.56	2.67	.191	.002	.000	.024
	실	2.63	1.70	1.74	2.48				
성적	상	2.54	1.88	1.52	2.73	.053	.097	.000	.026
	중	2.58	1.97	1.63	2.60				
	하	2.63	1.99	1.73	2.63				

## &lt;부록표 II-5&gt;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20	1.91	2.25	1.72	.000	.000	.010	.002
	녀	2.32	2.07	2.36	1.61				
교급	중	2.27	2.04	2.32	1.69	.491	.007	.887	.179
	고	2.25	1.94	2.31	1.64				
계열	인	2.23	1.96	2.32	1.66	.168	.356	.725	.999
	실	2.30	1.90	2.30	1.66				
성적	상	2.23	1.87	2.21	1.56	.371	.000	.003	.000
	중	2.29	2.02	2.37	1.69				
	하	2.27	2.13	2.32	1.93				

<부록표 Ⅱ-6> 나는 자기주장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10	2.41	2.15	1.67	.463	.003	.002	.685
	녀	2.13	2.54	2.03	1.66				
교급	중	2.11	2.36	2.17	1.67	.797	.000	.000	.555
	고	2.12	2.60	2.00	1.65				
계열	인	2.15	2.61	1.96	1.67	.080	.406	.019	.463
	실	2.06	2.56	2.09	1.63				
성적	상	2.03	2.50	1.97	1.63	.009	.789	.000	.002
	중	2.11	2.47	2.07	1.66				
	하	2.16	2.47	2.17	1.83				

<부록표 Ⅱ-7> 나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진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76	1.42	1.56	1.62	.414	.757	.001	.000
	녀	1.78	1.41	1.45	1.48				
교급	중	1.80	1.45	1.58	1.57	.025	.010	.000	.490
	고	1.74	1.37	1.42	1.54				
계열	인	1.71	1.41	1.38	1.55	.034	.023	.001	.570
	실	1.79	1.31	1.53	1.58				
성적	상	1.71	1.35	1.41	1.45	.004	.004	.002	.000
	중	1.74	1.42	1.52	1.60				
	하	1.77	1.50	1.55	1.79				

<부록표 Ⅱ-8> 고립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생각을 지키고 싶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94	1.72	1.98	1.56	.039	.018	.006	.000
	녀	2.01	1.81	2.09	1.40				
교급	중	1.92	1.84	2.09	1.51	.002	.000	.001	.083
	고	2.03	1.68	1.97	1.46				
계열	인	2.08	1.74	1.98	1.49	.002	.001	.565	.572
	실	1.92	1.57	1.94	1.46				
성적	상	1.99	1.73	1.97	1.40	.554	.013	.235	.000
	중	1.98	1.74	2.06	1.51				
	하	1.95	1.87	2.04	1.73				

&lt;부록표 II-9&gt;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

변인		평균				유의도(P)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31	1.85	2.01	1.38	.440	.000	.000	.059
	녀	2.34	2.00	2.81	1.44				
교급	중	2.43	1.92	2.68	1.44	.000	.654	.841	.004
	고	2.22	1.93	2.68	1.36				
계열	인	2.23	1.92	2.67	1.39	.450	.393	.348	.002
	실	2.19	1.97	2.73	1.55				
성적	상	2.20	1.81	2.47	1.27	.000	.000	.000	.000
	중	2.40	1.96	2.70	1.45				
	하	2.34	2.05	2.81	1.71				

&lt;부록표 II-10&gt; 부자가 되는 것

변인		평균				유의도(P)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08	1.89	2.07	1.51	.623	.000	.000	.000
	녀	2.10	2.06	2.28	1.69				
교급	중	2.22	2.03	2.18	1.56	.000	.005	.644	.039
	고	1.97	1.93	2.20	1.63				
계열	인	1.99	1.97	2.23	1.60	.123	.008	.071	.169
	실	1.92	1.83	2.12	1.52				
성적	상	2.08	1.97	2.07	1.64	.047	.932	.004	.025
	중	2.15	1.98	2.21	1.54				
	하	2.05	1.99	2.24	1.63				

&lt;부록표 II-11&gt; 평범한 사람으로 일만한 가정을 꾸리는 것

변인		평균				유의도(P)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03	1.54	1.72	1.47	.056	.441	.000	.000
	녀	2.10	1.52	1.52	1.32				
교급	중	2.02	1.51	1.66	1.38	.012	.318	.034	.288
	고	2.11	1.55	1.58	1.41				
계열	인	2.19	1.60	1.59	1.40	.000	.001	.596	.589
	실	1.95	1.43	1.56	1.36				
성적	상	2.19	1.60	1.59	1.40	.000	.002	.002	.108
	중	2.01	1.46	1.56	1.37				
	하	2.02	1.55	1.70	1.49				

<부록표 II-12>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05	1.54	2.33	1.72	.026	.117	.034	.000
	녀	2.12	1.60	2.25	1.53				
교급	중	2.07	1.53	2.33	1.69	.494	.010	.032	.001
	고	2.10	1.61	2.25	1.58				
계열	인	2.07	1.57	2.18	1.62	.080	.015	.000	.082
	실	2.15	1.69	2.45	1.73				
성적	상	2.03	1.51	2.17	1.50	.113	.000	.000	.000
	중	2.09	1.55	2.28	1.68				
	하	2.11	1.71	2.42	1.95				

<부록표 II-13> 유명인이 되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41	2.39	2.61	2.01	.028	.035	.000	.000
	녀	2.32	2.48	2.80	2.18				
교급	중	2.38	2.39	2.64	1.94	.462	.025	.003	.000
	고	2.35	2.48	2.77	2.24				
계열	인	2.43	2.45	2.83	2.10	.000	.124	.001	.580
	실	2.19	2.54	2.61	2.05				
성적	상	2.40	2.28	2.67	2.17	.003	.000	.008	.000
	중	2.44	2.49	2.79	2.00				
	하	2.29	2.57	2.64	2.18				

<부록표 II-14> 자신의 취미나 흥미를 즐기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44	1.48	1.50	1.36	.030	.029	.290	.402
	녀	1.50	1.42	1.46	1.34				
교급	중	1.49	1.50	1.58	1.39	.126	.001	.000	.006
	고	1.45	1.40	1.35	1.31				
계열	인	1.43	1.42	1.34	1.35	.071	.071	.285	.748
	실	1.50	1.34	1.38	1.36				
성적	상	1.48	1.47	1.36	1.27	.930	.543	.001	.000
	중	1.46	1.44	1.48	1.38				
	하	1.47	1.43	1.51	1.54				



## &lt;부록표 II-15&gt; 자립하는 사람이 되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79	1.27	1.68	1.91	.223	.072	.000	.002
	녀	1.76	1.32	1.55	1.77				
교급	중	1.90	1.30	1.73	1.85	.000	.759	.000	.451
	고	1.66	1.29	1.47	1.82				
계열	인	1.60	1.29	1.41	1.85	.000	.756	.000	.085
	실	1.76	1.28	1.62	1.72				
성적	상	1.69	1.27	1.48	1.80	.000	.016	.000	.160
	중	1.74	1.27	1.59	1.85				
	하	1.85	1.37	1.68	1.95				

## &lt;부록표 II-16&gt; 그날 그날을 즐기며 사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42	1.53	1.63	1.31	.015	.011	.000	.007
	녀	2.32	1.44	1.43	1.24				
교급	중	2.30	1.51	1.53	1.30	.000	.188	.501	.064
	고	2.45	1.46	1.51	1.25				
계열	인	2.43	1.47	1.52	1.27	.337	.848	.676	.463
	실	2.49	1.46	1.49	1.31				
성적	상	2.38	1.45	1.50	1.26	.300	.087	.632	.001
	중	2.42	1.49	1.54	1.26				
	하	2.34	1.55	1.51	1.44				

## &lt;부록표 II-17&gt;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하는 일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10	1.94	2.28	1.86	.530	.466	.000	.000
	녀	2.08	1.91	2.06	1.60				
교급	중	2.05	1.87	2.17	1.71	.011	.002	.581	.038
	고	2.13	1.98	2.15	1.78				
계열	인	2.14	2.02	2.12	1.74	.769	.007	.097	.269
	실	2.12	1.88	2.22	1.81				
성적	상	2.08	1.86	2.17	1.66	.813	.048	.308	.000
	중	2.11	1.95	2.13	1.75				
	하	2.09	1.95	2.19	2.03				

<부록표 II-18> 공부를 좀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17	1.68	2.61	1.31	.000	.042	.050	.000
	녀	1.99	1.61	2.53	1.21				
교급	중	2.04	1.58	2.40	1.24	.043	.001	.000	.023
	고	2.12	1.70	2.74	1.29				
계열	인	2.11	1.65	2.68	1.26	.738	.013	.000	.334
	실	2.13	1.79	2.79	1.30				
성적	상	1.99	1.42	2.35	1.17	.023	.000	.000	.000
	중	2.12	1.65	2.57	1.30				
	하	2.10	1.97	2.73	1.47				

<부록표 II-19> 타인이 흉내낼 수 없는 특기를 갖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86	2.10	2.00	1.48	.692	.036	.410	.767
	녀	1.85	2.19	2.04	1.49				
교급	중	1.96	2.20	2.06	1.47	.000	.033	.015	.208
	고	1.76	2.10	1.96	1.51				
계열	인	1.75	2.11	1.91	1.49	.749	.858	.004	.756
	실	1.77	2.10	2.10	1.47				
성적	상	1.81	2.04	1.95	1.49	.031	.000	.102	.291
	중	1.82	2.15	2.00	1.47				
	하	1.91	2.33	2.06	1.56				

<부록표 II-20> 다른 사람을 위해 공헌하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05	1.72	2.30	1.63	.894	.169	.002	.000
	녀	2.06	1.77	2.17	1.36				
교급	중	2.07	1.68	2.31	1.53	.454	.000	.000	.124
	고	2.05	1.82	2.14	1.48				
계열	인	2.03	1.79	2.06	1.50	.214	.050	.000	.133
	실	2.08	1.89	2.37	1.58				
성적	상	2.01	1.67	2.09	1.41	.105	.002	.000	.000
	중	2.05	1.77	2.22	1.52				
	하	2.09	1.84	2.34	1.82				

&lt;부록표 II-21&gt; 과학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하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27	2.16	2.76	2.54	.000	.000	.000	.010
	녀	2.46	2.40	3.08	2.66				
교급	중	2.35	2.11	2.86	2.51	.444	.000	.000	.001
	고	2.38	2.46	3.03	2.67				
계열	인	2.32	2.38	3.01	2.58	.005	.000	.193	.245
	실	2.49	2.63	3.09	2.68				
성적	상	2.23	2.10	2.89	2.44	.000	.000	.205	.000
	중	2.33	2.32	2.95	2.66				
	하	2.46	2.50	2.99	2.84				

&lt;부록표 II-22&gt; 매력적인 이성(남자/여자)를 찾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78	1.60	1.91	1.30	.000	.000	.018	.003
	녀	2.07	1.74	1.81	1.22				
교급	중	2.02	1.82	1.94	1.29	.000	.000	.000	.026
	고	1.83	1.52	1.93	1.23				
계열	인	1.85	1.55	1.73	1.25	.106	.071	.965	.020
	실	1.77	1.46	1.73	1.37				
성적	상	2.01	1.71	1.79	1.21	.006	.023	.437	.004
	중	1.93	1.62	1.84	1.27				
	하	1.86	1.73	1.85	1.37				

&lt;부록표 II-23&gt; 스포츠나 예술분야에서 명성을 얻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31	2.52	2.39	2.00	.884	.233	.000	.000
	녀	2.32	2.57	2.62	2.37				
교급	중	2.31	2.48	2.48	2.05	.786	.004	.172	.000
	고	2.32	2.60	2.54	2.30				
계열	인	2.39	2.62	2.55	2.16	.001	.395	.880	.164
	실	2.19	2.57	2.54	2.29				
성적	상	2.48	2.50	2.46	2.32	.000	.002	.042	.000
	중	2.31	2.51	2.59	2.05				
	하	2.22	2.69	2.48	2.22				

<부록표 II-24> 수업중에 수다떠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69	3.05	2.69	2.75	.239	.002	.028	.000
	녀	2.74	3.17	2.79	3.03				
교급	중	2.62	3.18	2.71	2.91	.000	.001	.056	.395
	고	2.80	3.04	2.79	2.87				
계열	인	2.86	3.06	2.89	2.89	.001	.354	.037	.444
	실	2.69	3.01	2.70	2.84				
성적	상	2.86	3.18	2.85	2.98	.000	.030	.000	.000
	중	2.70	3.06	2.81	2.85				
	하	2.64	3.09	2.61	2.69				

<부록표 II-25>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19	2.44	1.88	1.60	.003	.133	.720	.785
	녀	2.29	2.50	1.87	1.60				
교급	중	2.33	2.58	1.89	1.57	.000	.000	.206	.051
	고	2.15	2.36	1.84	1.63				
계열	인	2.14	2.37	1.82	1.60	.339	.499	.082	.878
	실	2.18	2.33	1.81	1.59				
성적	상	2.19	2.40	1.76	1.58	.312	.028	.002	.007
	중	2.26	2.49	1.87	1.59				
	하	2.25	2.55	1.93	1.76				

<부록표 II-26> 자원봉사는 위선적인 행동이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72	3.20	2.82	3.05	.000	.001	.000	.000
	녀	2.99	3.33	3.11	3.43				
교급	중	2.74	3.26	2.91	3.15	.000	.798	.001	.000
	고	2.97	3.27	3.04	3.31				
계열	인	3.01	3.23	3.10	3.24	.063	.038	.001	.997
	실	2.91	3.35	2.90	3.24				
성적	상	2.99	3.31	3.03	3.39	.000	.126	.055	.000
	중	2.89	3.26	3.00	3.15				
	하	2.74	3.19	2.91	2.99				

&lt;부록표 II-27&gt; 주변 사람에게 협조하는 것은 처세의 요령이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36	1.82	2.23	1.71	.000	.198	.410	.010
	녀	2.47	1.87	2.26	1.80				
교급	중	2.43	2.00	2.31	1.73	.365	.000	.000	.136
	고	2.40	1.69	2.18	1.78				
계열	인	2.37	1.72	2.11	1.75	.033	.082	.000	.733
	실	2.46	1.63	2.38	1.77				
성적	상	2.38	1.72	2.17	1.71	.170	.000	.003	.000
	중	2.46	1.90	2.23	1.74				
	하	2.40	1.92	2.33	1.99				

&lt;부록표 II-28&gt; 모든 사람과 함께라면 나쁜 일을 해도 책임이 가벼워진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77	3.12	3.04	2.50	.080	.258	.031	.000
	녀	2.84	3.17	3.14	2.84				
교급	중	2.84	3.21	3.06	2.53	.034	.001	.370	.000
	고	2.76	3.08	3.10	2.78				
계열	인	2.71	2.96	3.12	2.65	.013	.000	.272	.130
	실	2.86	3.33	3.05	2.79				
성적	상	2.81	3.11	3.07	2.78	.814	.242	.001	.000
	중	2.82	3.18	3.15	2.61				
	하	2.79	3.12	2.99	2.37				

&lt;부록표 II-29&gt; 다른 사람과 함께 나쁜 행동을 했는데 나만 벌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05	2.66	1.96	1.85	.008	.280	.202	.000
	녀	1.95	2.61	1.90	1.66				
교급	중	2.05	2.72	1.94	1.70	.008	.000	.258	.014
	고	1.95	2.54	1.90	1.81				
계열	인	1.97	2.48	1.88	1.77	.348	.007	.234	.018
	실	1.92	2.67	1.95	1.58				
성적	상	1.98	2.63	1.86	1.70	.716	.933	.131	.064
	중	1.98	2.62	1.93	1.78				
	하	2.01	2.65	1.97	1.86				

<부록표 II-30> 목표설정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94	1.76	2.05	1.65	.193	.062	.018	.001
	녀	1.98	1.71	1.97	1.56				
교급	중	1.99	1.72	2.07	1.62	.141	.218	.000	.435
	고	1.94	1.75	1.94	1.60				
계열	인	1.90	1.75	1.91	1.61	.005	.809	.007	.518
	실	2.02	1.76	2.04	1.57				
성적	상	1.96	1.65	1.93	1.59	.688	.000	.023	.002
	중	1.94	1.76	2.02	1.60				
	하	1.97	1.84	2.04	1.77				

<부록표 II-31> 성공을 위한 노력여부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78	1.73	1.66	2.04	.004	.687	.288	.019
	녀	1.70	1.74	1.62	1.99				
교급	중	1.75	1.71	1.67	1.98	.488	.128	.009	.002
	고	1.73	1.76	1.58	2.05				
계열	인	1.74	1.70	1.55	2.02	.325	.000	.015	.776
	실	1.70	1.90	1.68	2.01				
성적	상	1.69	1.56	1.53	2.00	.047	.000	.000	.350
	중	1.73	1.77	1.61	2.03				
	하	1.78	1.94	1.71	2.04				

<부록표 II-32> 장래를 생각하기 보다 지금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79	3.01	2.14	2.11	.895	.420	.019	.001
	녀	2.79	3.04	2.04	2.26				
교급	중	2.66	3.09	2.05	2.12	.000	.003	.019	.004
	고	2.92	2.96	2.14	2.24				
계열	인	3.00	2.96	2.18	2.18	.000	.911	.015	.972
	실	2.76	2.97	2.03	2.18				
성적	상	2.96	3.08	2.21	2.34	.000	.029	.001	.000
	중	2.79	3.03	2.10	2.09				
	하	2.69	2.92	2.01	1.93				

&lt;부록표 Ⅱ-33&gt; 너무 일이나 공부만 하는 것은 따분한 인생이다

변인		평균				유의도(P)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한	중	일	미
성별	남	1.86	2.69	2.31	1.99	.032	.001	.801	.001
	녀	1.94	2.84	2.30	2.13				
교급	중	1.94	2.87	2.28	2.05	.037	.000	.189	.968
	고	1.86	2.67	2.33	2.06				
계열	인	1.84	2.69	2.35	2.06	.178	.380	.442	.764
	실	1.91	2.63	2.29	2.04				
성적	상	2.00	2.86	2.42	2.11	.002	.006	.000	.041
	중	1.89	2.73	2.35	2.01				
	하	1.84	2.68	2.17	1.98				

&lt;부록표 Ⅱ-34&gt; 장래의 성공은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다

변인		평균				유의도(P)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한	중	일	미
성별	남	1.68	1.59	1.91	1.74	.038	.166	.065	.000
	녀	1.62	1.54	1.84	1.57				
교급	중	1.67	1.61	1.85	1.59	.141	.023	.070	.000
	고	1.63	1.53	1.92	1.72				
계열	인	1.63	1.57	1.91	1.66	.881	.016	.450	.177
	실	1.63	1.45	1.95	1.58				
성적	상	1.49	1.49	1.75	1.56	.000	.000	.000	.000
	중	1.67	1.56	1.86	1.70				
	하	1.73	1.71	2.00	1.81				

&lt;부록표 Ⅱ-35&gt; 장래의 일은 지금 생각해봐도 소용없다

변인		평균				유의도(P)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한	중	일	미
성별	남	3.13	2.74	2.92	2.86	.000	.000	.000	.000
	녀	3.31	2.90	3.14	3.20				
교급	중	3.13	2.85	2.97	2.98	.000	.152	.000	.035
	고	3.31	2.79	3.12	3.07				
계열	인	3.34	2.82	3.21	3.03	.075	.127	.000	.669
	실	3.26	2.73	2.86	3.06				
성적	상	3.42	2.91	3.15	3.20	.000	.009	.005	.000
	중	3.21	2.78	3.04	2.93				
	하	3.12	2.76	2.98	2.73				

<부록표 II-36> 나는 미래에 대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68	1.42	1.86	1.48	.968	.023	.005	.000
	녀	1.68	1.50	1.74	1.27				
교급	중	1.74	1.45	1.81	1.40	.000	.529	.470	.324
	고	1.62	1.47	1.78	1.37				
계열	인	1.59	1.50	1.75	1.38	.058	.163	.022	.896
	실	1.68	1.42	1.89	1.38				
성적	상	1.61	1.41	1.62	1.26	.035	.000	.000	.000
	중	1.68	1.43	1.84	1.42				
	하	1.72	1.63	1.87	1.72				

<부록표 II-37> 수면시간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3.94	4.49	3.76	3.67	.370	.006	.003	.435
	녀	4.00	4.37	3.59	3.72				
교급	중	4.48	4.60	3.91	3.94	.000	.000	.000	.000
	고	3.47	4.26	3.36	3.43				
계열	인	3.24	4.16	3.33	3.71	.000	.000	.116	.126
	실	3.94	4.47	3.45	3.53				
성적	상	3.91	4.45	3.69	3.75	.279	.837	.270	.236
	중	4.03	4.42	3.62	3.64				
	하	3.97	4.41	3.58	3.63				

<부록표 II-38>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72	2.86	2.19	2.77	.000	.156	.001	.000
	녀	2.86	2.93	2.33	2.96				
교급	중	2.87	2.93	2.29	2.87	.000	.124	.089	.739
	고	2.72	2.86	2.22	2.85				
계열	인	2.74	2.87	2.21	2.85	.363	.815	.278	.365
	실	2.69	2.85	2.27	2.92				
성적	상	2.81	2.90	2.24	2.90	.577	.436	.870	.204
	중	2.80	2.87	2.27	2.82				
	하	2.77	2.94	2.25	2.90				



<부록표 II-39> 그렇게 되면 권력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79	2.90	2.48	3.03	.000	.039	.391	.001
	녀	2.93	2.99	2.52	3.17				
교급	중	2.95	2.99	2.54	3.18	.000	.047	.041	.000
	고	2.77	2.90	2.45	3.00				
계열	인	2.80	2.93	2.43	3.09	.094	.226	.239	.937
	실	2.71	2.85	2.51	3.08				
성적	상	2.90	2.97	2.47	3.12	.029	.253	.534	.624
	중	2.90	2.91	2.52	3.08				
	하	2.80	2.99	2.47	3.07				

<부록표 II-40>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68	3.41	2.68	2.90	.696	.954	.094	.065
	녀	2.70	3.41	2.75	2.98				
교급	중	2.76	3.41	2.73	2.95	.001	.739	.340	.618
	고	2.63	3.40	2.69	2.92				
계열	인	2.67	3.43	2.71	2.95	.021	.065	.387	.111
	실	2.54	3.33	2.65	2.81				
성적	상	2.75	3.43	2.74	3.01	.116	.101	.096	.029
	중	2.70	3.36	2.75	2.89				
	하	2.65	3.46	2.64	2.85				

<부록표 II-41> 그렇게 되면 책임이 무거워진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86	3.05	2.16	1.82	.064	.006	.000	.252
	녀	1.80	2.94	1.99	1.78				
교급	중	1.93	3.01	2.04	1.77	.000	.544	.243	.054
	고	1.73	2.98	2.08	1.84				
계열	인	1.74	2.98	2.11	1.80	.832	.940	.090	.123
	실	1.73	2.98	2.00	1.91				
성적	상	1.77	3.05	2.09	1.69	.027	.094	.499	.000
	중	1.81	2.96	2.03	1.86				
	하	1.87	2.97	2.07	2.05				

<부록표 II-42>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희생을 해야한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93	3.31	2.40	2.03	.029	.553	.435	.594
	녀	1.85	3.29	2.37	2.00				
교급	중	1.97	3.31	2.33	2.03	.000	.588	.004	.515
	고	1.81	3.29	2.44	2.01				
계열	인	1.82	3.28	2.46	2.02	.727	.686	.216	.609
	실	1.80	3.30	2.39	1.98				
성적	상	1.87	3.33	2.41	1.93	.770	.270	.658	.001
	중	1.89	3.26	2.39	2.05				
	하	1.90	3.32	2.36	2.18				

<부록표 II-43>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시간이 없을 것이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25	3.05	2.21	2.64	.397	.986	.279	.547
	녀	2.28	3.06	2.17	2.61				
교급	중	2.30	3.05	2.14	2.68	.075	.887	.017	.002
	고	2.24	3.06	2.24	2.55				
계열	인	2.27	3.08	2.25	2.63	.072	.303	.497	.060
	실	2.18	3.02	2.21	2.48				
성적	상	2.23	3.08	2.19	2.60	.508	.413	.975	.644
	중	2.27	3.05	2.19	2.62				
	하	2.28	3.01	2.20	2.67				

<부록표 II-44> 그렇게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머리 숙여야 한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65	3.04	2.34	2.49	.016	.567	.452	.039
	녀	2.74	3.07	2.31	2.57				
교급	중	2.76	3.10	2.31	2.54	.001	.044	.894	.780
	고	2.63	3.01	2.30	2.53				
계열	인	2.71	3.04	2.29	2.54	.000	.117	.552	.332
	실	2.47	2.93	2.34	2.46				
성적	상	2.70	3.07	2.36	2.52	.280	.530	.299	.859
	중	2.65	3.03	2.30	2.52				
	하	2.72	3.09	2.27	2.56				

&lt;부록표 II-45&gt; 그렇게 되면 부자가 된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49	2.93	2.03	2.91	.386	.009	.352	.000
	녀	2.53	3.04	2.07	3.16				
교급	중	2.64	3.04	2.07	3.13	.000	.012	.281	.000
	고	2.39	2.94	2.03	2.94				
계열	인	2.41	2.98	2.01	3.02	.165	.017	.379	.024
	실	2.34	2.83	2.07	3.21				
성적	상	2.55	3.01	1.97	3.07	.500	.412	.013	.413
	중	2.50	2.96	2.12	3.01				
	하	2.49	3.02	2.01	3.02				

&lt;부록표 II-46&gt; 타고난 IQ가 높은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57	2.55	2.55	1.96	.022	.013	.615	.128
	녀	2.65	2.65	2.52	1.91				
교급	중	2.64	2.74	2.61	1.68	.052	.000	.000	.000
	고	2.57	2.46	2.44	2.20				
계열	인	2.56	2.45	2.43	1.94	.490	.737	.524	.553
	실	2.60	2.48	2.47	1.90				
성적	상	2.61	2.56	2.33	1.90	.606	.116	.000	.005
	중	2.59	2.59	2.53	1.93				
	하	2.63	2.68	2.64	2.12				

&lt;부록표 II-47&gt; 사교술이 좋은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99	2.59	2.15	1.56	.131	.066	.281	.639
	녀	1.94	2.67	2.11	1.54				
교급	중	2.14	2.77	2.28	1.51	.000	.000	.000	.009
	고	1.80	2.49	1.95	1.59				
계열	인	1.72	2.50	1.87	1.54	.000	.745	.000	.324
	실	1.97	2.48	2.18	1.59				
성적	상	1.84	2.67	1.93	1.48	.000	.336	.000	.000
	중	1.94	2.60	2.08	1.56				
	하	2.07	2.63	2.27	1.74				

&lt;부록표 II-48&gt;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 한 태도를 갖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62	2.02	1.88	1.87	.667	.149	.000	.000
	녀	1.60	2.07	1.67	1.61				
교급	중	1.63	2.02	1.83	1.70	.099	.143	.000	.007
	고	1.59	2.07	1.69	1.79				
계열	인	1.55	2.09	1.67	1.74	.010	.279	.065	.726
	실	1.66	2.03	1.76	1.77				
성적	상	1.57	2.03	1.65	1.69	.039	.890	.000	.003
	중	1.58	2.05	1.72	1.76				
	하	1.65	2.05	1.86	1.90				

&lt;부록표 II-49&gt; 지식을 넓히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83	1.53	1.87	1.68	.020	.033	.000	.778
	녀	1.76	1.46	1.70	1.67				
교급	중	1.86	1.51	1.92	1.63	.000	.250	.000	.014
	고	1.73	1.48	1.62	1.71				
계열	인	1.71	1.50	1.56	1.67	.195	.137	.000	.709
	실	1.76	1.43	1.82	1.65				
성적	상	1.70	1.43	1.56	1.64	.000	.000	.000	.000
	중	1.78	1.48	1.76	1.65				
	하	1.86	1.64	1.93	1.88				

&lt;부록표 II-50&gt; 상관에게 아첨하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3.18	2.99	2.79	2.50	.003	.027	.011	.000
	녀	3.29	3.09	2.89	2.67				
교급	중	3.28	3.06	2.86	2.51	.015	.311	.618	.002
	고	3.19	3.02	2.84	2.64				
계열	인	3.20	3.01	2.81	2.58	.416	.633	.162	.880
	실	3.16	3.04	2.90	2.56				
성적	상	3.33	3.13	2.79	2.67	.000	.008	.293	.001
	중	3.31	2.99	2.86	2.51				
	하	3.12	2.99	2.86	2.51				

&lt;부록표 II-51&gt; 특기를 가지고 있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60	1.88	1.86	1.67	.912	.314	.396	.002
	녀	1.60	1.84	1.82	1.78				
교급	중	1.62	2.00	1.98	1.69	.074	.000	.000	.131
	고	1.57	1.72	1.68	1.75				
계열	인	1.54	1.78	1.60	1.72	.006	.000	.000	.898
	실	1.64	1.57	1.90	1.73				
성적	상	1.55	1.77	1.67	1.71	.080	.000	.000	.032
	중	1.61	1.84	1.83	1.69				
	하	1.62	2.03	1.93	1.85				

&lt;부록표 II-52&gt; 정직한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75	1.69	2.17	1.61	.874	.692	.000	.000
	녀	1.75	1.67	1.98	1.31				
교급	중	1.70	1.53	2.03	1.44	.002	.000	.014	.230
	고	1.80	1.82	2.13	1.48				
계열	인	1.88	1.86	2.16	1.46	.000	.027	.045	.890
	실	1.63	1.74	2.03	1.47				
성적	상	1.75	1.66	2.06	1.39	.941	.158	.011	.000
	중	1.74	1.67	2.02	1.46				
	하	1.75	1.75	2.16	1.76				

&lt;부록표 II-53&gt; 모든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술선해서 하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99	1.81	2.03	1.95	.246	.002	.000	.175
	녀	2.03	1.70	1.83	2.01				
교급	중	2.00	1.67	1.96	1.96	.596	.000	.072	.365
	고	2.02	1.84	1.89	1.99				
계열	인	2.04	1.87	1.87	1.97	.178	.052	.187	.436
	실	1.98	1.77	1.95	2.03				
성적	상	1.97	1.69	1.81	1.96	.139	.011	.000	.523
	중	1.98	1.77	1.89	1.96				
	하	2.05	1.83	2.05	2.04				

<부록표 II-54> 유머감각이 있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01	2.01	1.97	1.56	.595	.087	.000	.021
	녀	2.03	2.08	1.82	1.63				
교급	중	2.04	1.96	2.02	1.62	.204	.000	.000	.113
	고	2.00	2.13	1.76	1.57				
계열	인	2.00	2.13	1.73	1.59	.973	.891	.079	.965
	실	2.00	2.12	1.82	1.59				
성적	상	2.01	1.96	1.78	1.56	.205	.001	.000	.009
	중	2.05	2.07	1.86	1.59				
	하	1.99	2.15	1.98	1.75				

<부록표 II-55> 친구들을 많이 갖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79	1.94	1.78	1.82	.006	.089	.000	.000
	녀	1.88	2.00	1.65	1.98				
교급	중	1.89	2.04	1.80	1.77	.000	.001	.000	.000
	고	1.78	1.90	1.61	2.02				
계열	인	1.75	1.93	1.58	1.89	.028	.120	.017	.147
	실	1.84	1.84	1.70	1.99				
성적	상	1.78	1.91	1.60	1.91	.029	.062	.000	.343
	중	1.89	2.00	1.67	1.87				
	하	1.82	2.00	1.82	1.97				

<부록표 II-56> 좋은 학력을 갖고 있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21	1.65	2.44	1.49	.293	.080	.969	.000
	녀	2.17	1.59	2.44	1.32				
교급	중	2.28	1.60	2.41	1.35	.000	.283	.254	.000
	고	2.10	1.64	2.45	1.48				
계열	인	2.02	1.68	2.44	1.40	.000	.011	.249	.696
	실	2.25	1.55	2.51	1.43				
성적	상	2.01	1.62	2.33	1.28	.000	.010	.000	.000
	중	2.22	1.57	2.38	1.45				
	하	2.26	1.71	2.56	1.75				

## &lt;부록표 II-57&gt; 좋은 사람과 우연히 알게 될 기회를 갖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24	2.14	1.94	2.02	.002	.616	.663	.000
	녀	2.35	2.16	1.92	2.28				
교육	중	2.39	1.60	2.04	2.07	.000	.000	.000	.000
	고	2.10	1.64	1.79	2.23				
계열	인	2.18	1.68	1.74	2.15	.208	.506	.000	.950
	실	2.24	1.55	1.94	2.15				
성적	상	2.25	1.62	1.79	2.20	.256	.184	.001	.114
	중	2.33	1.57	1.92	2.11				
	하	2.29	1.71	1.98	2.13				

## &lt;부록표 II-58&gt; 부모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75	2.73	2.76	2.50	.923	.126	.009	.000
	녀	2.76	2.67	2.87	2.69				
교육	중	2.87	2.78	2.82	2.43	.000	.000	.732	.000
	고	2.65	2.61	2.80	2.75				
계열	인	2.61	2.60	2.80	2.61	.072	.463	.866	.099
	실	2.73	2.64	2.79	2.47				
성적	상	2.77	2.74	2.74	2.72	.148	.167	.202	.000
	중	2.81	2.66	2.80	2.50				
	하	2.71	2.71	2.85	2.51				

## &lt;부록표 II-59&gt; 유력한 연줄을 갖고 있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67	2.85	2.70	2.08	.045	.607	.001	.000
	녀	2.75	2.87	2.85	2.47				
교육	중	2.82	3.00	2.81	2.21	.000	.000	.013	.016
	고	2.60	2.73	2.71	2.31				
계열	인	2.58	2.72	2.68	2.27	.319	.805	.174	.386
	실	2.64	2.74	2.78	2.20				
성적	상	2.75	2.93	2.71	2.40	.173	.075	.164	.000
	중	2.73	2.83	2.73	2.16				
	하	2.67	2.84	2.81	2.15				

<부록표 II -60> 부자인 것

변인		평균				유 의 도(P)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65	2.88	2.67	2.25	.226	.818	.000	.000
	녀	2.70	2.89	2.85	2.54				
교급	중	2.80	2.97	2.81	2.30	.000	.000	.007	.000
	고	2.57	2.81	2.70	2.48				
계열	인	2.55	2.81	2.68	2.40	.367	.854	.291	.505
	실	2.60	2.82	2.75	2.35				
성적	상	2.75	2.95	2.73	2.53	.005	.096	.496	.000
	중	2.73	2.85	2.74	2.30				
	하	2.60	2.89	2.79	2.28				

<부록표 II -61>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것

변인		평균				유 의 도(P)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41	1.84	2.32	2.28	.553	.083	.006	.000
	녀	2.43	1.77	2.20	2.57				
교급	중	2.51	1.78	2.36	2.46	.000	.207	.000	.009
	고	2.32	1.83	2.17	2.36				
계열	인	2.30	1.83	2.15	2.41	.180	.775	.245	.246
	실	2.37	1.81	2.22	2.49				
성적	상	2.36	1.73	2.15	2.39	.002	.000	.000	.655
	중	2.37	1.79	2.20	2.43				
	하	2.49	1.95	2.41	2.41				

<부록표 II -62>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중요시하는 것

변인		평균				유 의 도(P)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68	1.78	1.80	1.83	.509	.602	.000	.000
	녀	1.67	1.76	1.53	1.66				
교급	중	1.68	1.67	1.73	1.72	.915	.000	.000	.213
	고	1.67	1.86	1.60	1.77				
계열	인	1.68	1.89	1.57	1.73	.596	.200	.043	.045
	실	1.66	1.81	1.68	1.86				
성적	상	1.61	1.74	1.53	1.68	.032	.134	.000	.000
	중	1.68	1.76	1.64	1.74				
	하	1.71	1.84	1.78	2.06				



<부록표 II-63> 공부를 잘하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11	1.27	2.15	1.82	.001	.192	.129	.000
	녀	1.99	1.30	2.08	1.51				
교급	중	2.06	1.23	1.99	1.56	.450	.000	.000	.000
	고	2.04	1.34	2.24	1.78				
계열	인	1.96	1.33	2.18	1.68	.000	.694	.000	.557
	실	2.18	1.35	2.42	1.64				
성적	상	1.86	1.27	1.96	1.58	.000	.100	.000	.000
	중	2.00	1.27	2.10	1.69				
	하	2.19	1.34	2.25	2.02				

<부록표 II-64> 과외교습을 받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3.21	2.92	3.23	3.09	.000	.000	.966	.007
	녀	3.06	2.80	3.23	2.98				
교급	중	3.14	2.80	3.08	2.93	.854	.000	.000	.000
	고	3.14	2.92	3.37	3.14				
계열	인	3.09	2.91	3.34	3.05	.003	.537	.008	.118
	실	3.23	2.94	3.47	2.93				
성적	상	3.20	2.91	3.29	3.23	.074	.013	.124	.000
	중	3.11	2.86	3.21	2.91				
	하	3.13	2.77	3.21	2.79				

<부록표 II-65>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 전문적인 분야까지 공부하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70	1.79	1.92	1.83	.310	.458	.082	.000
	녀	1.66	1.81	1.99	1.69				
교급	중	1.72	1.85	2.07	1.72	.011	.007	.000	.011
	고	1.64	1.76	1.84	1.81				
계열	인	1.64	1.88	1.79	1.76	.947	.000	.002	.660
	실	1.64	1.49	1.97	1.73				
성적	상	1.72	1.79	1.87	1.70	.331	.694	.015	.000
	중	1.67	1.80	1.95	1.77				
	하	1.66	1.83	2.01	2.01				

<부록표 II-66> 목표하는 대학의 수험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34	1.78	2.36	1.64	.178	.451	.056	.000
	녀	2.29	1.75	2.44	1.38				
교급	중	2.39	1.73	2.47	1.39	.000	.024	.000	.000
	고	2.24	1.80	2.33	1.64				
계열	인	2.19	1.73	2.24	1.51	.008	.000	.000	.781
	실	2.34	1.96	2.57	1.49				
성적	상	2.26	1.73	2.34	1.35	.312	.242	.026	.000
	중	2.33	1.77	2.35	1.56				
	하	2.33	1.81	2.46	1.97				

<부록표 II-67> 동아리(서클)활동에 열중하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26	2.30	1.94	1.85	.002	.129	.000	.289
	녀	2.36	2.36	2.10	1.80				
교급	중	2.27	2.27	2.08	1.74	.017	.001	.002	.000
	고	2.35	2.40	1.96	1.91				
계열	인	2.33	2.44	1.86	1.82	.359	.032	.000	.409
	실	2.38	2.32	2.22	1.88				
성적	상	2.35	2.33	1.98	1.66	.479	.859	.160	.000
	중	2.30	2.33	2.00	1.89				
	하	2.30	2.35	2.07	2.20				

<부록표 II-68> 친구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39	1.93	1.66	1.85	.060	.883	.495	.113
	녀	2.32	1.94	1.64	1.92				
교급	중	2.45	2.06	1.71	1.79	.000	.000	.004	.000
	고	2.26	1.81	1.62	1.99				
계열	인	2.22	1.83	1.61	1.87	.009	.321	.698	.020
	실	2.34	1.77	1.63	2.04				
성적	상	2.33	1.91	1.64	1.83	.590	.692	.334	.043
	중	2.35	1.95	1.65	1.92				
	하	2.37	1.95	1.70	1.98				

## &lt;부록표 II-69&gt; 학교행사에 열중하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30	2.29	2.19	1.79	.061	.758	.001	.000
	녀	2.24	2.31	2.06	1.62				
교급	중	2.21	2.26	2.13	1.65	.001	.035	.820	.001
	고	2.32	2.34	2.12	1.76				
계열	인	2.31	2.40	2.10	1.71	.776	.000	.219	.859
	실	2.33	2.20	2.17	1.70				
성적	상	2.25	2.32	2.09	1.60	.739	.677	.085	.000
	중	2.28	2.30	2.11	1.75				
	하	2.27	2.28	2.19	1.93				

## &lt;부록표 II-70&gt; 봉사활동에 열중하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24	2.23	2.48	2.24	.070	.235	.000	.000
	녀	2.18	2.19	2.23	1.87				
교급	중	2.13	2.13	2.34	1.98	.000	.000	.670	.000
	고	2.28	2.29	2.36	2.14				
계열	인	2.31	2.31	2.31	2.07	.056	.138	.004	.386
	실	2.22	2.23	2.48	2.01				
성적	상	2.22	2.16	2.33	1.96	.902	.066	.022	.000
	중	2.20	2.22	2.32	2.09				
	하	2.21	2.28	2.43	2.40				

## &lt;부록표 II-71&gt; 특기를 개발하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60	1.78	1.76	1.60	.541	.073	.316	.160
	녀	1.59	1.84	1.72	1.55				
교급	중	1.60	1.89	1.84	1.58	.838	.000	.000	.998
	고	1.59	1.73	1.63	1.58				
계열	인	1.58	1.84	1.61	1.56	.312	.000	.072	.049
	실	1.62	1.50	1.70	1.68				
성적	상	1.59	1.74	1.68	1.44	.953	.012	.075	.000
	중	1.59	1.82	1.72	1.62				
	하	1.60	1.89	1.78	1.94				

&lt;부록표 II-72&gt; 학급의 반장이 되는 것

변인		평균				유의도(P)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96	2.61	2.88	2.12	.429	.002	.008	.459
	녀	2.94	2.48	2.98	2.09				
교급	중	2.95	2.49	2.96	2.01	.851	.004	.192	.000
	고	2.95	2.60	2.91	2.20				
계열	인	2.97	2.64	2.90	2.11	.224	.027	.521	.272
	실	2.92	2.51	2.94	2.03				
성적	상	2.87	2.35	2.81	1.98	.000	.000	.000	.000
	중	2.92	2.60	2.96	2.13				
	하	3.02	2.75	3.01	2.50				

&lt;부록표 II-73&gt; 친구를 만드는 것

변인		평균				유의도(P)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45	1.49	1.46	1.49	.010	.000	.121	.000
	녀	1.51	1.60	1.41	1.34				
교급	중	1.53	1.58	1.47	1.41	.000	.058	.013	.662
	고	1.43	1.52	1.39	1.42				
계열	인	1.38	1.55	1.37	1.40	.000	.046	.034	.003
	실	1.53	1.46	1.47	1.58				
성적	상	1.40	1.52	1.36	1.31	.002	.392	.000	.000
	중	1.48	1.56	1.40	1.44				
	하	1.52	1.57	1.52	1.70				

&lt;부록표 II-74&gt;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는 것

변인		평균				유의도(P)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61	2.04	1.77	1.87	.630	.018	.010	.000
	녀	1.59	2.14	1.68	1.73				
교급	중	1.65	2.12	1.78	1.84	.000	.158	.000	.082
	고	1.55	2.06	1.64	1.77				
계열	인	1.50	2.04	1.61	1.80	.000	.140	.038	.954
	실	1.65	2.12	1.72	1.80				
성적	상	1.52	2.05	1.57	1.77	.001	.224	.000	.062
	중	1.59	2.10	1.71	1.80				
	하	1.66	2.14	1.81	1.94				

&lt;부록표 II -75&gt; 인생의 선배로써 훌륭한 교사를 만나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88	1.56	2.25	1.85	.095	.538	.086	.000
	녀	1.83	1.58	2.33	1.69				
교급	중	1.94	1.60	2.37	1.80	.000	.074	.001	.231
	고	1.77	1.54	2.24	1.76				
계열	인	1.76	1.56	2.19	1.77	.373	.256	.010	.802
	실	1.80	1.50	2.36	1.79				
성적	상	1.71	1.56	2.22	1.74	.000	.337	.001	.051
	중	1.86	1.55	2.27	1.77				
	하	1.94	1.61	2.40	1.92				

&lt;부록표 II -76&gt; 애인을 만나는 것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25	2.82	2.05	1.66	.000	.000	.101	.457
	녀	2.71	3.17	2.13	1.69				
교급	중	2.52	3.08	2.20	1.66	.096	.000	.000	.362
	고	2.45	2.92	1.95	1.69				
계열	인	2.55	2.90	1.95	1.66	.000	.314	.801	.045
	실	2.25	2.97	1.97	1.81				
성적	상	2.64	3.03	2.04	1.73	.000	.497	.493	.096
	중	2.51	3.00	2.10	1.63				
	하	2.36	2.96	2.07	1.65				

&lt;부록표 II -77&gt; TV에 나오는 것은 가공세계의 것으로 현실 생활과는 다르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24	2.14	1.93	2.32	.031	.359	.866	.075
	녀	2.31	2.17	1.93	2.39				
교급	중	2.32	2.18	1.96	2.35	.002	.307	.023	.903
	고	2.22	2.14	1.88	2.35				
계열	인	2.20	2.13	1.86	2.35	.072	.770	.161	.891
	실	2.28	2.15	1.94	2.34				
성적	상	2.21	2.13	1.86	2.36	.039	.271	.220	.637
	중	2.29	2.15	1.94	2.35				
	하	2.30	2.22	1.93	2.29				

&lt;부록표 II-78&gt; TV에 나오는 모습에서 좋은 것을 나도 해보고 싶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86	2.93	2.48	2.37	.439	.001	.001	.000
	녀	1.83	2.80	2.33	2.18				
교급	중	1.90	2.98	2.39	2.15	.000	.000	.676	.000
	고	1.79	2.75	2.41	2.41				
계열	인	1.80	2.76	2.39	2.29	.316	.674	.359	.358
	실	1.76	2.73	2.45	2.22				
성적	상	1.89	2.87	2.38	2.34	.024	.946	.736	.080
	중	1.87	2.86	2.38	2.24				
	하	1.80	2.86	2.41	2.24				

&lt;부록표 II-79&gt; 나는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것이 재미있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83	2.10	2.10	1.75	.000	.000	.099	.152
	녀	2.20	2.61	2.17	1.80				
교급	중	1.99	2.42	2.10	1.66	.221	.008	.007	.000
	고	2.03	2.30	2.21	1.88				
계열	인	2.05	2.27	2.21	1.78	.499	.217	.820	.690
	실	2.01	2.36	2.22	1.75				
성적	상	1.93	2.36	2.01	1.74	.010	.183	.000	.001
	중	1.99	2.40	2.17	1.76				
	하	2.07	2.29	2.25	1.98				

&lt;부록표 II-80&gt; 나는 연애를 주제로 한 TV드라마를 좋아한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27	3.01	2.49	2.84	.000	.000	.000	.000
	녀	2.07	2.79	1.89	2.18				
교급	중	2.17	3.12	2.23	2.52	.761	.000	.000	.826
	고	2.16	2.68	2.06	2.53				
계열	인	2.25	2.67	2.07	2.53	.000	.641	.544	.944
	실	2.00	2.70	2.03	2.53				
성적	상	2.28	2.93	2.16	2.56	.002	.193	.259	.114
	중	2.18	2.86	2.10	2.49				
	하	2.11	2.92	2.18	2.63				

&lt;부록표 II-81&gt; 청소년의 폭력, 악동, 매춘 등의 행동은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고있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28	2.43	2.27	2.13	.088	.204	.013	.934
	녀	2.35	2.37	2.15	2.13				
교급	중	2.45	2.60	2.31	2.16	.000	.000	.000	.191
	고	2.18	2.21	2.11	2.10				
계열	인	2.07	2.19	2.02	2.11	.000	.508	.000	.012
	실	2.41	2.24	2.35	2.30				
성적	상	2.13	2.34	2.05	2.07	.000	.023	.000	.006
	중	2.26	2.38	2.20	2.14				
	하	2.45	2.53	2.34	2.30				

&lt;부록표 II-82&gt; 나는 사회에서 비난받을 유행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06	2.25	2.19	2.45	.278	.823	.009	.000
	녀	2.10	2.24	2.09	2.21				
교급	중	2.11	2.26	2.20	2.26	.036	.423	.000	.000
	고	2.05	2.23	2.06	2.41				
계열	인	2.03	2.24	2.03	2.34	.129	.604	.062	.182
	실	2.09	2.20	2.13	2.24				
성적	상	2.03	2.18	2.01	2.44	.045	.053	.001	.000
	중	2.05	2.26	2.14	2.26				
	하	2.12	2.31	2.18	2.23				

&lt;부록표 II-83&gt; 유행이 좋은가 나쁜가 보다 그것에 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59	2.84	2.80	2.58	.000	.202	.001	.018
	녀	2.73	2.89	2.93	2.48				
교급	중	2.59	2.91	2.78	2.34	.000	.063	.000	.000
	고	2.73	2.83	2.99	2.73				
계열	인	2.86	2.86	3.03	2.54	.000	.109	.005	.466
	실	2.47	2.76	2.87	2.48				
성적	상	2.82	2.87	2.93	2.65	.000	.969	.077	.000
	중	2.68	2.87	2.91	2.47				
	하	2.56	2.86	2.83	2.37				

<부록표 II-84> 유행에 따르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75	2.66	2.51	2.15	.002	.674	.086	.000
	녀	2.86	2.67	2.59	1.99				
교급	중	2.74	2.66	2.54	2.03	.000	.935	.292	.041
	고	2.87	2.67	2.58	2.11				
계열	인	2.92	2.68	2.66	2.07	.001	.609	.000	.328
	실	2.75	2.64	2.37	2.14				
성적	상	2.92	2.66	2.56	2.02	.000	.916	.945	.090
	중	2.83	2.66	2.54	2.10				
	하	2.72	2.68	2.56	2.13				

<부록표 II-85> 내 맘에 들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도 나는 하지 않는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07	1.99	2.21	1.85	.610	.545	.093	.000
	녀	2.08	2.02	2.14	1.64				
교급	중	2.15	2.13	2.27	1.74	.000	.000	.000	.995
	고	2.00	1.88	2.03	1.74				
계열	인	1.96	1.93	2.02	1.75	.019	.006	.395	.518
	실	2.08	1.76	2.07	1.70				
성적	상	2.07	1.97	2.06	1.65	.836	.489	.043	.000
	중	2.06	2.03	2.18	1.79				
	하	2.09	2.01	2.16	1.86				

<부록표 II-86>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항상 따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05	2.77	2.61	2.23	.743	.541	.533	.362
	녀	2.06	2.79	2.58	2.19				
교급	중	2.10	2.81	2.57	2.22	.022	.214	.303	.774
	고	2.02	2.76	2.61	2.21				
계열	인	1.96	2.73	2.62	2.21	.001	.208	.216	.587
	실	2.12	2.81	2.55	2.17				
성적	상	1.95	2.76	2.58	2.22	.000	.688	.825	.181
	중	2.00	2.80	2.61	2.18				
	하	2.16	2.77	2.58	2.31				



&lt;부록표 II-87&gt; 인류에게 있어 21세기는 희망찬 사회가 될 것이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26	1.56	2.66	2.38	.569	.819	.168	.168
	녀	2.24	1.55	2.71	2.33				
교급	중	2.18	1.48	2.62	2.34	.000	.000	.001	.516
	고	2.32	1.62	2.75	2.36				
계열	인	2.39	1.61	2.73	2.35	.000	.297	.278	.726
	실	2.17	1.66	2.79	2.37				
성적	상	2.27	1.51	2.61	2.30	.560	.048	.032	.005
	중	2.26	1.55	2.70	2.36				
	하	2.23	1.62	2.73	2.50				

&lt;부록표 II-88&gt; 세계는 지금보다 더 평화로울 것이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53	2.02	2.79	2.78	.446	.014	.797	.050
	녀	2.56	1.93	2.78	2.85				
교급	중	2.50	1.84	2.77	2.82	.004	.000	.951	.915
	고	2.59	2.10	2.77	2.81				
계열	인	2.64	2.08	2.75	2.81	.001	.407	.067	.171
	실	2.49	2.13	2.84	2.91				
성적	상	2.61	1.92	2.68	2.78	.026	.019	.000	.227
	중	2.56	1.97	2.75	2.84				
	하	2.50	2.06	2.86	2.87				

&lt;부록표 II-89&gt; 국민생활은 지금보다 풍요로와 질 것이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28	1.69	2.80	1.99	.933	.916	.645	.039
	녀	2.28	1.70	2.79	1.91				
교급	중	2.26	1.68	2.79	1.94	.236	.403	.626	.584
	고	2.30	1.71	2.81	1.96				
계열	인	2.28	1.70	2.78	1.95	.349	.746	.132	.943
	실	2.33	1.72	2.87	1.96				
성적	상	2.23	1.65	2.73	1.93	.317	.021	.131	.530
	중	2.29	1.69	2.82	1.96				
	하	2.29	1.78	2.81	1.98				

<부록표 II-90>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많아질 것이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96	1.42	2.10	2.51	.386	.088	.468	.549
	녀	1.94	1.37	2.12	2.49				
교급	중	2.02	1.41	2.17	2.54	.000	.478	.003	.026
	고	1.88	1.39	2.06	2.46				
계열	인	1.82	1.38	2.02	2.49	.000	.642	.000	.062
	실	2.00	1.40	2.21	2.62				
성적	상	1.88	1.33	2.02	2.45	.008	.001	.000	.029
	중	1.93	1.40	2.10	2.52				
	하	2.01	1.49	2.23	2.63				

<부록표 II-91> 규제 없이 자유로운 경쟁으로 인류는 행복해질 것이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70	2.27	2.90	2.41	.364	.569	.053	.326
	녀	2.68	2.30	2.97	2.45				
교급	중	2.62	2.23	2.92	2.38	.000	.003	.918	.012
	고	2.76	2.34	2.92	2.47				
계열	인	2.86	2.28	2.92	2.41	.000	.000	.754	.014
	실	2.56	2.48	2.94	2.58				
성적	상	2.77	2.18	2.92	2.40	.001	.000	.816	.036
	중	2.72	2.32	2.93	2.41				
	하	2.62	2.40	2.91	2.57				

<부록표 II-92> 인간과 인간은 훨씬 신리 있는 관계가 될 것이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90	2.48	2.88	2.60	.964	.081	.125	.317
	녀	2.90	2.55	2.94	2.64				
교급	중	2.78	2.32	2.85	2.53	.000	.000	.000	.000
	고	3.03	2.71	3.00	2.72				
계열	인	3.16	2.69	3.01	2.63	.000	.255	.537	.445
	실	2.76	2.76	2.97	2.57				
성적	상	3.02	2.48	2.97	2.74	.000	.357	.363	.000
	중	2.94	2.52	2.91	2.55				
	하	2.82	2.56	2.94	2.50				

## &lt;부록표 II-93&gt; 과학의 진보로 인류는 보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31	1.65	2.57	1.99	.055	.148	.002	.000
	녀	2.38	1.70	2.69	2.14				
교급	중	2.27	1.63	2.58	2.00	.000	.003	.000	.002
	고	2.41	1.73	2.94	2.12				
계열	인	2.45	1.76	2.94	2.05	.022	.052	.639	.272
	실	2.34	1.66	2.92	2.13				
성적	상	2.40	1.63	2.64	2.04	.155	.045	.695	.169
	중	2.31	1.68	2.67	2.06				
	하	2.34	1.75	2.64	2.17				

## &lt;부록표 II-94&gt; 암과 같은 난치병이 정복될 것이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66	1.64	2.01	1.91	.000	.000	.495	.179
	녀	1.80	1.77	2.04	1.86				
교급	중	1.77	1.67	2.04	1.87	.023	.019	.428	.230
	고	1.69	1.75	2.01	1.91				
계열	인	1.61	1.69	1.98	1.89	.000	.001	.018	.778
	실	1.84	1.87	2.12	1.87				
성적	상	1.63	1.64	1.94	1.83	.002	.014	.012	.005
	중	1.70	1.73	2.07	1.91				
	하	1.79	1.77	2.05	2.04				

## &lt;부록표 II-95&gt; 학습경쟁은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26	2.76	2.74	2.86	.567	.574	.080	.653
	녀	2.28	2.78	2.82	2.84				
교급	중	2.18	2.74	2.76	2.78	.000	.120	.035	.000
	고	2.36	2.81	2.85	2.92				
계열	인	2.44	2.82	2.85	2.85	.000	.476	.817	.774
	실	2.19	2.77	2.86	2.87				
성적	상	2.37	2.82	2.72	2.88	.004	.191	.125	.164
	중	2.24	2.73	2.84	2.81				
	하	2.22	2.77	2.81	2.91				

<부록표 II-96> 지금보다 자유롭고 규제가 적은 사회가 될 것이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41	2.26	2.84	3.13	.426	.879	.782	.134
	녀	2.38	2.25	2.83	3.08				
교급	중	2.38	2.24	2.82	3.08	.308	.476	.235	.089
	고	2.41	2.27	2.86	3.14				
계열	인	2.48	2.29	2.84	3.11	.000	.130	.107	.306
	실	2.28	2.20	2.93	3.18				
성적	상	2.44	2.22	2.80	3.15	.132	.391	.631	.100
	중	2.41	2.28	2.84	3.07				
	하	2.35	2.27	2.85	3.13				

<부록표 II-97> 노력할 필요가 적게 되어 한가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71	3.42	3.08	2.89	.434	.516	.701	.051
	녀	2.68	3.45	3.10	2.97				
교급	중	2.68	3.40	3.00	2.88	.527	.113	.000	.010
	고	2.71	3.46	3.21	2.98				
계열	인	2.76	3.45	3.23	2.93	.016	.380	.095	.582
	실	2.62	3.50	3.14	2.89				
성적	상	2.68	3.44	3.13	3.01	.946	.914	.407	.002
	중	2.70	3.43	3.12	2.85				
	하	2.70	3.43	3.07	2.94				

<부록표 II-98> 빈부차가 적어질 것이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86	2.62	3.05	2.84	.173	.053	.348	.178
	녀	2.91	2.53	3.09	2.79				
교급	중	2.70	2.39	2.98	2.68	.000	.000	.000	.000
	고	3.06	2.75	3.17	2.96				
계열	인	3.16	2.72	3.19	2.82	.000	.083	.247	.694
	실	2.87	2.82	3.12	2.85				
성적	상	3.00	2.58	3.12	2.85	.000	.790	.383	.026
	중	2.94	2.56	3.07	2.76				
	하	2.79	2.60	3.05	2.93				

&lt;부록표 II-99&gt; 도시보다 전원이 살기 편해질 것이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91	2.10	1.88	2.05	.044	.484	.005	.008
	녀	1.98	2.13	2.00	2.15				
교급	중	2.05	2.18	1.94	2.11	.000	.001	.084	.508
	고	1.84	2.06	2.01	2.09				
계열	인	1.79	2.05	2.00	2.09	.003	.736	.357	.047
	실	1.94	2.07	2.05	2.23				
성적	상	1.92	2.07	1.96	2.01	.013	.144	.216	.000
	중	1.88	2.14	1.95	2.13				
	하	2.00	2.16	2.03	2.27				

&lt;부록표 II-100&gt; 남녀평등이 더 많이 실현될 것이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87	1.62	1.95	1.97	.683	.021	.016	.758
	녀	1.88	1.54	2.04	1.98				
교급	중	1.94	1.51	2.04	2.00	.001	.000	.038	.186
	고	1.81	1.64	1.97	1.95				
계열	인	1.76	1.66	1.89	1.98	.001	.440	.000	.567
	실	1.92	1.62	2.18	2.02				
성적	상	1.78	1.52	1.89	1.89	.006	.004	.000	.000
	중	1.86	1.58	1.99	2.01				
	하	1.93	1.68	2.11	2.20				

&lt;부록표 II-101&gt; 자신의 능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1.89	1.68	2.32	2.17	.024	.305	.063	.579
	녀	1.81	1.72	2.40	2.19				
교급	중	1.83	1.71	2.39	2.15	.112	.539	.274	.167
	고	1.88	1.69	2.34	2.20				
계열	인	1.89	1.66	2.29	2.18	.386	.036	.000	.730
	실	1.85	1.76	2.50	2.20				
성적	상	1.80	1.64	2.14	2.15	.081	.000	.000	.290
	중	1.84	1.69	2.35	2.18				
	하	1.89	1.83	2.54	2.25				

&lt;부록표 II-102&gt; 부정부패가 적어질 것이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86	2.38	3.16	2.97	.032	.211	.012	.010
	녀	2.95	2.44	3.26	3.07				
교급	중	2.81	2.22	3.11	2.98	.000	.000	.000	.054
	고	3.00	2.59	3.33	3.06				
계열	인	3.03	2.56	3.39	3.02	.043	.104	.000	.128
	실	2.92	2.66	3.17	3.13				
성적	상	2.99	2.43	3.28	3.10	.003	.492	.115	.004
	중	2.95	2.42	3.23	2.96				
	하	2.83	2.36	3.18	2.98				

&lt;부록표 II-103&gt; 지금보다 질서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61	2.02	2.81	2.76	.037	.836	.001	.042
	녀	2.69	2.01	2.94	2.84				
교급	중	2.63	1.89	2.75	2.74	.462	.000	.000	.003
	고	2.66	2.14	3.02	2.86				
계열	인	2.67	2.13	3.03	2.80	.453	.827	.491	.160
	실	2.63	2.15	2.99	2.90				
성적	상	2.70	2.00	2.90	2.83	.009	.552	.929	.106
	중	2.71	2.01	2.90	2.76				
	하	2.59	2.05	2.89	2.88				

&lt;부록표 II-104&gt; 범죤나 비행이 지금보다 적어질 것이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의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91	2.38	3.32	2.79	.064	.549	.000	.173
	녀	2.98	2.41	3.48	2.85				
교급	중	2.87	2.25	3.34	2.74	.000	.000	.000	.000
	고	3.02	2.54	3.48	2.90				
계열	인	3.07	2.49	3.49	2.81	.004	.005	.639	.033
	실	2.93	2.65	3.47	2.97				
성적	상	3.05	2.40	3.38	2.90	.001	.163	.440	.004
	중	2.97	2.36	3.42	2.76				
	하	2.88	2.46	3.44	2.81				

<부록표 II-105> 종교가 지금보다 중시될 것이다

변인		평균 (1:매우동의↔4:전혀동의안함)				유 의 도(P)			
		한	중	일	미	한	중	일	미
성별	남	2.61	2.76	3.04	2.54	.664	.008	.123	.219
	녀	2.63	2.66	3.10	2.49				
교급	중	2.66	2.65	3.03	2.43	.037	.003	.017	.000
	고	2.58	2.77	3.12	2.61				
계열	인	2.57	2.78	3.09	2.52	.843	.524	.033	.723
	실	2.59	2.74	3.21	2.55				
성적	상	2.60	2.70	3.11	2.54	.935	.237	.538	.531
	중	2.61	2.68	3.08	2.49				
	하	2.62	2.77	3.06	2.54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김유희 신경여자실업고등학교 교사

윤철경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이종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 1998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 연구보고서 ◇

### 정 책 연 구

- 98-01 천정웅·김정주·김영지 「청소년정책 평가지표 체계 연구」
- 98-02 김정주·천정웅·김영지 「지역청소년센터 운영모델 연구」
- 98-04 노 혁·길은배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성화 방안 연구」
- 98-05 이민희·이명숙·정희욱·이춘화 「청소년폭력 대책 모델 개발」
- 98-06 이민희·이명숙·정희욱·이춘화 「가출청소년쉼터 운영모델」
- 98-07 고성혜·맹영임·신선미 「특성화된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98-08 전명기·김영한·박창남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방안 연구」
- 98-09 황진구·임지수 「청소년 정보 분류·검색체계 개발 연구」
- 98-13 김정배·정희수·서수자 「청소년 자원봉사 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 98-14 윤철경·박영균·정희수·서수자 「중·고등학교 봉사활동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 해외 청소년정책 동향

- 98-16 정희욱 「세계 청소년장관회의 자료집」
- 98-17 이종원 「일본 청소년 이지매의 실태와 대책」
- 98-18 이종원 「일본 청소년육성의 현실과 대응방안」
- 98-19 이수봉 「중국의 청소년 조직과 활동」

### 청소년정보자료

- 98-10 김혁진 「청소년정보 길라잡이」
- 98-11 황진구 「인터넷에서 청소년 정보 찾기」
- 98-12 이해연 「청소년문제 어디서 어떻게 지도하나」

### 프로그램 개발

- 98-15 김정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모음집」
- 98-21 고성혜·맹영임 「98 청소년 수련거리백과」(CD-Rom 별도)
- 98-03 천정웅·김정주·김영지 「청소년정책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제4회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보고서)

## ◆ 학술행사 및 세미나 자료집 ◆

- 98-S01 「청소년육성의 방향과 과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역별 관계자 워크샵 (1998. 6)
- 98-S02 「국가 경제위기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방향」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도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1998. 6 문화관광부·중앙일보사 후원)
- 98-S03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1998. 6)
- 98-S04 「청소년육성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 청소년 관련기관 및 전문가 정책협의회 자료 (1998. 7)
- 98-S05 「학생봉사활동 지도교사 일반 연수」 연수교재 (1998. 7)
- 98-S06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 요약·설명자료」 (1998. 8)
- 98-S07 「청소년정책과 청소년 참여 - 청소년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책 워크숍 (1998. 8)
- 98-S08 「청소년 자율참여와 미래」 1998년도 1급 청소년지도사 연수교재 (1998. 9)
- 98-S09 「새로운 청소년 현장을 위한 공청회」 청소년의 권리·청소년의 책임·사회의 역할 (1998. 9 문화관광부 공동주최)
- 98-S10 「21세기 새로운 청소년정책 방향 모색 - 한·중·일 국제심포지움」 (1998. 9)
- 98-S11 「지역중심 청소년정책의 실천 방안과 과제」 새로운 청소년정책 과제의 실천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세미나 (1998. 10. '98년 1급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 세미나 준비위원회)

## ◆ 학술논문집 ◆

『한국청소년연구』 1998년 제9권 제1호(통권 제27호)

『한국청소년연구』 1998년 제9권 제2호(통권 제28호)

## ◆ 청소년지도자 교재총서 ◆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론 / 인간관계수련활동 / 전통문화활동 /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 관계 법과 행정 / 청소년활동론 / 집단지도론 /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청소년과 지역사회 / 청소년 기관운영

